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설문대 설화>의 전승양상과 활용현황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충민

2023년 2월



<설문대 설화>의 전승양상과 활용현황 고찰

지도교수 허 남 춘


강 충 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강충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현 승 환 

위 원 강 문 경 

위 원 허 남 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2월

Consideration on Transmission Aspect and
Use State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Chung-Mi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iterature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과 연구방향	6
4. <설문대 설화> 채록본 검토	7
II. <설문대 설화>의 유형적 복잡성과 그 의미	13
1. 신화적 요소의 파편성	14
2. 전설적 요소의 확장성	27
3. 민담적 요소의 굴절성	39
III. <설문대 설화>의 활용 현황과 제언	48
1. 신앙적 활용 양상	48
2. 문화콘텐츠 활용 양상	58
3. 현대적 해석의 과제와 지향점	71
IV. 결론	77
[참고문헌]	80
[부록]	84
Abstract	119

I. 서론

1. 연구목적

<설문대 설화>는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이다. 설화의 주인공인 설문대할망은 거인의 외형을 하고 있는 여성이며 창조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천지(天地)를 비롯하여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한라산과 뭇 오름들을 창조한 주체이며, 제주도 주변부의 작은 섬들도 설문대할망의 특정 행위로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전한다. 따라서 <설문대 설화>는 제주도 전체의 지형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며, 설문대할망은 이 모든 자연물들을 창조하거나 그 자리에 있게 한 주역이라고 하겠다.

설문대할망은 창세신, 대지모신과 동일한 성격을 공유한다. 이는 우리 신화의 중요한 원형이자, 고대적 요소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화소이다. 동시에 설문대할망은 다분히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존재로서 설화 향유층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는 <설문대 설화> 채록본 가운데 족두리바위, 솟덕바위, 등경돌, 공깃돌바위 등이 증거물로 존재하는 양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의 지형을 형성한 설문대의 여신적 속성은 파편적으로만 남아 전하며, 한 편의 서사 안에서 전설적인 요소, 민담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며 현재의 <설문대 설화> 전승으로 파생,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인 속성들을 자세하게 분석, 파악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며, 대개 <설문대 설화>의 신화적 속성을 대대적으로 조명하는 견해들이 최근의 시류였다. 이에 <설문대 설화>가 이처럼 복합적인 체계와 속성을 띠게 된 사례들을 정치하게 살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 그와 같은 변모 양상에 대한 이유와 해명 등에 대한 확장고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설문대 설화>는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

핀 작업은 드물다. 이에 <설문대 설화>의 문화콘텐츠화 현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뒤, 그와 같은 활용 방향이 전승층에게 어떠한 수용 가치를 지녀 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설문대 설화>의 전승과 수용에 대한 현재적 항보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설문대 설화>를 연구한 선행 업적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설문대 설화>의 신화적 속성을 밝힌 연구, 둘째는 <설문대 설화>의 복합적 성격과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 셋째는 <설문대 설화>의 현대 문학적 활용 양상 연구이다. 이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이 나아갈 방향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설문대 설화>는 장주근을 통해 최초로 소개되었다. 장주근은 설문대할망 설화 자료를 모으고 발표하여 학계에 널리 알렸다. 그는 <설문대 설화>를 천지창조 신화의 속성을 지닌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설문대할망이 거녀(巨女)라는 지점에 주목하여 일본 등지의 거인설화와 견주었을 때, 본디 <설문대 설화>는 이 같은 천지창조 신화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며 신성성이 퇴각되고 희화화 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¹⁾

김인희는 전국의 거녀 설화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설문대 설화>를 다루었다. 거녀 설화를 연구하며, 설문대 설화와 다른 설화를 통해 접점을 살폈다. 설문대할망의 명칭과 성격, 타 설화와의 교류 양상과 외래신화와의 대립양상을 통해 거녀 설화를 유형화하였다.²⁾

조현설은 <설문대 설화>를 신화의 관점에서 구명하였다. 특히 설문대할망을 포함한 노고 할미, 서구 할미, 개양 할미 등을 마고 할미계의 신격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여, 이들이 각각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여신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마고 할미의 정체 고찰과 역사적 변이양상을 주목하였다.³⁾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2)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특히 <설문대 설화>를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을 통하여 창조신화 관점에서 보고, 이는 개양 할미 이야기와 관련성이 높은 점을 주목하였다. 이런 연구를 통해 <설문대 설화>의 변이양상을 살피고 창조여신으로서의 속화와 성화를 동일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경우라고 고찰하였다.⁴⁾

전영준은 제주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여성 영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설문대 설화> 속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을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대에 따라서 변모되는 양상을 살폈다. 제주 신화에서 보이는 여성성은 여성 영웅이며, 천지와 영토를 창조하고 풍요를 내려주는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⁵⁾

박종성은 <설문대 설화>의 세계 신화적 보편성을 논하였다. 위대한 여신이었던 설문대할망은 민중속으로 스며들면서 속화되는 변이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속화 과정은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세계 여러 신화와 비교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하고, 이런 점이 설문대 할망이 여신의 보편성을 띄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⁶⁾

허남춘은 <설문대 설화>를 창세신화 유형에 속하는 거인 신화의 변모 양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설문대할망이 창세신화라는 것을 밝히며 우리 나라의 신화와 비교하여 설문대 할망의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여신과 비교를 하여 설문대할망이 창조여신임을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동하며 여성신에게 남성신으로 자연스럽게 주권이 넘어간다고 밝히며 여성신의 변이양상을 살폈다. 노고, 할미, 할망과 같은 여신을 칭하는 호칭에 대해 살피고 여신 신격의 위상이 바뀌는 것을 보였다. 여성 신이 남성 신의 부수적 존재가 되며 남성의 배우자나 어머니의 역할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거인 신이 몸집이 줄어들어 인간 크기까지 줄어든다고 하였다.⁷⁾

윤혜신은 여신을 어머니의 측면에서 탐구하였다. 어머니 신화를 연구하며, 신화적 주체가 어머니신임을 이해한 맥락을 살펴보고 자연물과 어머니 이미지가 결

3)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4)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민족문화사연구』 41호, 민족문화학회·민족문화연구소, 2009.

5)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6)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호, 한국구비문학회, 2010.

7)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 주변민족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4.

합한 것과 거인의 이미지와 어머니 이미지가 결합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거인 신화 중에서 특유의, 풍요로움은 신화적 모성과 동질적으로 보고 어머니신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성 거인 신화 유형보다 신화적 세계관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설문대 할망을 이런 관점에서 고찰하였다.⁸⁾

김현선은 <설문대 설화>와 <천지왕본풀이>를 비교하며 제주도의 여신과 남신을 비교하였다. 여신에서 남신으로 넘어가는 변화양상을 살펴며 이 관계를 살펴보았다. 신화로 전하는 여성신과 서사시로 전하는 남성신의 차별성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주도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논의하고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화와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논의를 확대하였다. 제주도의 고유한 신화적 주인공인 설문대할망은 원초적 속성을 지니고, 제주도를 만드는 구실을 했지만 신화적 사고가 후퇴하면서 여신성은 소거되고 이른바 소담으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남성신이 천신으로 설정되어 통일적 생각, 원리를 드러낸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여성신에서 남성신으로의 대체와 변화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⁹⁾

김현수는 신격의 위상이 높고, 제주도민 사이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 무당 신화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궁금증을 신화적 성격으로 새롭게 조명하려고 하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천지왕본풀이』와 비교하여 인류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을 사제자의 유무로 보고, 이는 무당신화와는 다른 일반 민중에게 향유되던 일반신화라고 파악하였다.¹⁰⁾

다음으로 <설문대 설화>의 복합적 성격과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의 요지를 아래에 정리한다.

이성준은 설문대할망의 이명칭(異名稱)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주도 전체에 널리 전승되는 공간적인 이유라고 추정하고 <설문대 설화>가 꽤 오래된 이야기로 설화의 제요소(諸要素) 즉 신화, 전설, 민담적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특이적 설화라고 보았다. 신화, 전설, 민담의 각각의 요소로 자료를 분류하였다.¹¹⁾ 이렇

8)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37권, 한국구비문학회, 2013.

9)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2008.

10) 김현수,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게 각각의 요소로 분류한 점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자의 표현대로 <설문대 설화>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친 점과 현대적으로 신앙적 문화 콘텐츠적 요소로 활용되는 양상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임동권은 <설문대 설화>와 비슷한 육지부의 설화들을 살폈다. 특히 <설문대 설화>의 전설, 민담적 성격에 주목한 뒤, 이들과 육지부의 거인 설화가 유사한 서사 구조를 띤다고 보았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인 설화의 전승이 활발하지 않으나 제주도에서 거인설화가 대대적으로 전승되는 의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¹²⁾

김영경은 <설문대 설화>가 신성성을 상실하고 파편화되어 전설, 민담의 형태로 전승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의 특별한 성과는 자료 각 편을 외모 중심형과 행위 중심형으로 분류하며 거인설화를 체계화 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 중심형은 거인의 거대한 외모가 잘 묘사되어 있다고 보았고, 행위 중심형에는 산천 형성형, 대결형, 사냥형의 유형으로 거듭 하위 분류화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¹³⁾

문영미는 <설문대 설화>를 지역 전설로써 갖는 전승 의의를 살폈다.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변이양상에 대해 살폈다. 또한 설문대 할망 유형담에서 나타나는 지역 전승 양상과 그 의의에 대한 논지를 전개했다. 크게 행위담과 증거담으로 분류한 뒤, 추가적으로 10가지 하위 분류를 설정하여 설문대할망의 문화적 변용을 지역에 준거하여 고찰하고, 문학적 소재로서 <설문대 설화>가 변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짚었다.¹⁴⁾

권태효 역시 거인설화를 주로 연구하였다. 거인설화에서 나타나는 창조신화적 본질에 중점을 두고 이 설화를 네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다. 거인설화를 통시적으로 살펴, 거인설화에 나타나는 창조 신화적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거인설화의 변이양상과 파생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인설화의 회화화 과정과 변이과정을 살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변이양상을 살폈다. 설문대할망 또한 이런 거인설화의 일환으로 살폈다.¹⁵⁾ 여성 거인은 어떤

11)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 임동권, 「설문대할망 설화고」, 『제주도』 17, 제주도연구회, 1967.

13)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4) 문영미, 「설문대 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지역적인 분포를 보이는가를 살폈고, 바다와 육지의 여성거인이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이런 여성 거인설화의 전승과정과 이를 통해 남성 거인설화와 여성 거인설화의 차이에 주목하였다.¹⁶⁾ 산 이동설화는 거인설화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를 거인설화적인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였다. 설문대할망에서 보이는 배뇨 또한 산 이동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홍수 모티브로 파악하였다.¹⁷⁾

마지막으로 <설문대 설화>의 현대 문학적 활용 양상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김동윤은 현대소설에서 나타난 설문대할망 설화 수용을 살펴보았다. 주로 현대소설에서 거녀 설화인 면이 수용된다고 보았다.¹⁸⁾ 오성찬의 단편 「구룡이 삼촌 연보」¹⁹⁾는 오백장군설화(화석설화)와 결합되지 않은 설문대할망설화(거녀설화)가 수용되었고 연륙실패 모티프를 적극 활용한 작품임을 파악하였다. 이명인의 장편 『집으로 가는 길』²⁰⁾을 살펴 오백장군설화가 포함된 설문대할망설화가 다른 제주 신화들과 더불어 큰 폭으로 변형되어 수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고은주의 장편 『신들의 황혼』²¹⁾에서는 설문대할망 설화가 확장되어 수용되었고, 설화에서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유의미하게 포착해낸 작품임을 고찰하였다.

남유하는 제주의 다양한 설화를 이야기의 출발로 삼은 책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중 「거인소녀」에서 설문대할망을 활용하여 제주의 현대적 배경으로 현대적 SF로 다시 썼다.²²⁾

3. 연구방법과 연구방향

위와 같이 문제 상황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문학의 관점

15) 권태호,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6) 권태호,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2010.

17) 권태호,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 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권 4호, 1997.

18) 김동윤,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양상」, 『탐라문화』 3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9) 오성찬 연보에는 1986년 7월에 『동서문학』에 ‘마을 이야기(1)’, 같은 달에 『한국문학』에 발표한 ‘단추와 고삐 허리띠’가 ‘마을 이야기(2)’, ‘구룡이 삼촌 연보’가 ‘마을 이야기(3)’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다. 푸른사상, 『오성찬 문학 선집』 11, 386쪽.; 김동윤, 위의 논문, 재인용.

20) 이명인, 『집으로 가는 길』, 문이당, 2000.

21) 고은주, 『신들의 황혼』, 문이당, 2005.

22) 캔리우·남유하 외, 「거인소녀」, 『일곱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알마, 2021.

에서 <설문대 설화>를 연구대상으로 본 논문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각 장에 차용될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설문대 설화>의 채록과 전사 작업은 최근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자료들은 1950-1960년대 채록본들이 대다수이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 채록된 자료들이 존재함에도 고찰 대상을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채록된 각 편과 기재 자료들을 비교한 뒤, 향유층의 인식에 따른 시대적 변화 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문대 설화>의 전승 양상과 현대적 가치를 살피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방향은 서지학의 관점과 부합하지만 또한 다르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설문대 설화> 연구에 접근하게 되면, 원전을 밝히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설화의 발생과 전승의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 힘들다. 선본을 삼는 그 기준 또한 모호하게 된다. 이본 간의 우열 관계를 정하고 원전을 찾는 것이 서지학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설문대 설화>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설문대 설화>의 전승은 현재까지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설문대 설화>에 얽힌 전승 층의 사고관을 각 편의 유사 삽화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해명할 수 있다. <설문대 설화>의 복합적 속성을 살피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설문대 설화>를 각색, 활용한 현재의 문화콘텐츠들을 살피고 그들이 해당 설화에서 주목한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한다. 그런 뒤에 현재적 관점에서 <설문대 설화>의 수용층들이 전승·발굴하여 온 서사의 미학적 특질을 분석하여 보고, 앞으로 이 같은 <설문대 설화>의 콘텐츠화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로 한다.

4. <설문대 설화> 채록본 검토

<설문대 설화>의 기본 골자는 설문대할망이 거인과 같은 큰 몸집을 지니며, 그 신체적 조건을 활용하여 제주도는 물론 한라산, 오름 등의 자연물들을 창조하였

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 외에도 설문대하르방과 부부로 등장하는 서사, 육지와 다리 놓기 서사 등도 <설문대 설화> 군에서 널리 전승되는 주요 삽화이다. 이러한 삽화들을 수집하여 전승 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삽화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
2. 설문대할망이 오름을 짜자 땅이 떨어져 나가 섬이 되었고, 바다가 깊어졌다.
3. 한라산에 베개를 하고 누울 만큼 컸고, 바닷가에 발이 닿을 정도였다.
4. 한 걸음에 섬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육지로 갈 수 있었다.
5. 제주 섬을 다리 사이에 두고 바닷물에서 빨래를 하였다.
6. 설문대하르방과 부부의 연을 맺었고, 같이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았다.
7. 옷 한 벌을 지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면 사람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옷감이 모자라 옷을 완성할 수 없게 되자 할망은 다리를 놓다가 중단하였다.
8. 설문대할망이 밥을 지으려고 걸어놓은 술덕이 남아 있다.
9. 설문대할망이 옷을 지을 때, 등잔을 켜던 돌이 남아 있다.

이 같은 1~9의 삽화는 <설문대 설화>에서 추릴 수 있는 가장 활발한 전승 서사들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증거물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이 같은 삽화들이 달리 변모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먼저 <설문대 설화> 각 편의 일람들을 아래에 표로 정리한다.

번호	명칭	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1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불확실	옥황상제 말쑤떡, 하늘과 땅 분리, 물장오리, 오백아들, 하문으로 고기잡기, 배설로 오름만들기, 설문대하르방과 부부연 맺기, 하늘과 땅 분리, 등경들	불확실	진영삼	『신화의 전설』 (진성기, 2001)

번호	명칭	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2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섭섭의 구멍, 거구 흔적	서귀포	김씨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3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다리 놓기 실패	한림읍	이씨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4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빨래하기	구좌면 송당리	고삼립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5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술의 흔적	구좌면 송당리	고삼립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6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빨래하기	제주시	고씨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7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오름 만들기	안덕면 상창리	이씨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8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오름 만들기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9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배설하여 산 만들기, 지형창조	중문면 강정리	이갑순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10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백사장 만들기, 지형창조	표선면	고씨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11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다리 놓기 실패, 맹수가 없는 이유	중문면 강정리	이갑순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12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물장오리, 죽음	구좌면 송당리	고삼립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13	선문대할망	1960년대 이전	오백형제, 죽음	한경면 판포리	변인선	『한국의 신화』 (장주근, 1961)
14	설문대 할망	1971.1	빨래하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쇠섬 만들기 등	제주시 이도2동	고홍규	『한국구전설화』9 (임석재, 1992)
15	설문대하루방 과 설문대할망	1972.3	하르방과 하문으로 사냥하기	성산면 신평리	오문복	『한국구전설화』9 (임석재, 1992)
16	선문대할망	1975.2	거구	구좌면	김학기, 안용인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17	선문대할망		빨래하기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18	선문대할망		감투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번호	명칭	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19	선문대할망		오름만들기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0	선문대할망		다리 놓기 실패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1	선문대할망		물장오리, 죽음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2	선문대할망	1975.2	빨래하기	성산면 고성리	양기빈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3	선문대할망	1974.10.19.	빨래하기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4	선문대할망	1974.10.19	오름만들기, 지형형성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5	선문대할망	1974.10.19	산 모양 만들기, 지형형성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6	선문대할망	1974.10.19	거구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7	선문대할망	1974.10.19	거구, 등경불흔적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8	선문대할망	1974.10.19.	소섬만들기, 배노, 지형창조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29	선문대할망	1974.10.19.	배노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30	선문대할망	1974.10.19.	다리놓기 실패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31	선문대할망	1974.10.19.	이칭이 여러개임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32	선문대할망	1975.12	가마솥의 흔적	한경면 고산리	이자영	『제주도 전설』 (현용준, 1976)
33	선문대할망	1979.4	다리놓기 실패, 죽은장오리, 거구, 하문에 각록 숨김,,배노로 냇가 만들기	서김녕리 용두동	안용인	『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4	선문대할망	1980.11	빨래하기, 오름만들기, 다리 놓기 실패, 설문대하르방	오라동 동카름	송기조	『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5	설문대할망	1988.11.16.	다리놓기 실패, 나막신자국, 산신제	조천읍 조천리	김수동	『국문학보』 10 (제주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1990)
36	설문대할망	1990년대 추정	당신좌정 당케할망, 설문대할망의 좌정 경위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민	『표선리 향토지』 (표선리, 1996)

번호	명칭	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37	설문대할망	2011년 이전 예상	오름형성 만들기, 지형형성	한림읍 금악리	양경옥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11.)
38	설문대할망	2011년 이전 예상	물장오리,죽음, 거구	함림읍 금악리	양일화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11.)
39	설문대할망	2012년 이전 예상	치마로 오름만들기, 지형형성, 물장오리	도련 1동	양병생, 현술생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40	설문대할망	2012년 이전 예상	죽두리흔적, 바둑판의흔적	도련 1동	양상수, 고중휴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41	설문대할망	2013년 이전 예상	다리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와흘리	임완송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11.)
42	설문대할망	2014년 이전 예상	오좁누기로 물 만들기	신엄리	김만봉	『국문학보』 18(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43	설문대할망	2005.7	다리놓기	신흥1리 마을회관	유혜옥	『백록어문』 2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44	설문대할망	2005.7	한라산 오름 만들기, 속옷 만들기		김갑생	『백록어문』 2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2005)
45	설망도 할망 이야기	1992년 이전 예상	다리놓기, 오름 만들기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오봉남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11.)
46	설문대 할망	2017.3.24.	거구, 대식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제주연구원, 2017)
47	설문대 할망	2017.5.15.	다리 걸치기	안덕면 감산리	고재일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제주연구원, 2017)
48	설문대 할망	2017.5.18.	오좁누기, 지형형성, 생계못	조천읍 와산리	고근송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제주연구원, 2017)
49	설문대 할망	2017.5.20.	죽음	안덕면 사계리	박군생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1 (제주연구원, 2017)
50	설문대 할망	2017.5.23.	다리놓기, 영장배,	조천읍 신흥리	김기배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1

번호	명칭	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물장오리			(제주연구원, 2017)
51	설문대할망	2017.8.10.	거구	애월읍 하귀1리	배광시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1 (제주연구원, 2017)
52	설문대할망	2017.11.2.	거구	표선면 가시리	오국현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1 (제주연구원, 2017)
53	설문대 할망	2017.12.9.	거구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1 (제주연구원, 2017)
54	설문대할망	2018.7.19.	거구, 지형형성	제주시 오라동	서인순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2 (제주연구원, 2018)
55	설문대할망	2019.5.30.	다리농기	서귀포시 하예동	강순봉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3 (제주연구원, 2019)
56	설문대할망	2019.10.17.	거구, 다리농기	서귀포시 호근동	정순희	『제주문화원형: 설화편』 3 (제주연구원, 2018)

[표1] <설문대 설화> 자료 일람과 주요 화소

우선 출처를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하되, 핵심 화소들을 밝혀 적었다. 그 결과 <설문대 설화>는 크게 창제, 거구, 대식, 대근, 대의, 대설, 죽음의 7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고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채록 연도와 채록 방식, 전승 방식에는 이야기마다 차이점이 크다. 그러면서도 핵심 화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설문대 설화>의 채록본만이 전승의 전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특정 증거물들에 얽혀 단편적인 서사가 전하는 구전들도 있는데, 채록본들은 그를 다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재된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단편적인 구전 전승까지 합하여 신화적 속성, 전설적 속성, 민담적 속성이 얽혀 있는 <설문대 설화>의 유형적 복합성과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작업은 다음 단락에서 진행한다.

II. <설문대 설화>의 유형적 복합성과 그 의미

앞서 <설문대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설문대 설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화적 속성을 담지한 전설로 변모하였다. 신화적 속성은 그 안에서 과편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설문대 설화>는 전설에서 나아가 흥미 위주의 민담적 속성을 띤 각 편으로 다시금 변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설문대 설화> 전승 각 편의 유형적 복합성, 즉 신화·전설·민담으로서의 각 삽화 단락들을 확인하기 전에, 이 같은 설화 유형의 특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구분 항목	신화	전설	민담
전승자의 태도	신성하고 진실하다고 신뢰함	진실하다고 신뢰함	흥미목적, 안 믿음
시간과 장소	태초 혹은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추상적 장소와 시간
증거물의 형태	포괄적 (천지, 국가, 인류)	개별적이다 (자연물, 인공물)	증거물이 없다
주인공의 행위	신(神), 창조, 건국	특수한 능력의 인물	일상적인물
전승범위	민족(부족, 氏)적 범위내 전승	지역적	범세계적(汎世界的)
기능	민족(氏·部族) 융합	지역적 유대강화	사교

[표2] 신화·전설·민담의 구분²³⁾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설문대 설화> 속의 각 이야기는 완성형은 아니나, 어

23)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2, 17-20쪽.

는 정도 핵심 화소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세상의 중심 지배축이 이동하면서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이 약화되고 큰 증거물은 남기던 전설에서 작은 증거물을 남기는 전설로 변모되고 할망이 희화화의 대상이 되면서 민담화 양상을 지켜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설문대 설화>의 변모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단락에서는 <설문대 설화>에서 살필 수 있는 신화적 요소, 전설적 요소, 민담적 요소들을 각각 파편성, 확장성, 굴절성이라는 속성 범주에 준거하여 자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1. 신화적 요소의 파편성

신화라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서로 대결한다는 특징이 있다.²⁴⁾ 신화에서 사건의 전제는 자아와 세계의 이질성보다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보완적이고 동질적인 관계에 있다. 신화를 이야기하고 듣는 행위는 유희적인 측면이 아니라 화자나 청자가 신화적 질서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설문대 할망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화화되고 파편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설문대 할망과 관련된 증거물이 할망의 몸집도 크다고 증명하기에 이야기의 애초에 모습은 거인 신화일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거인 설화에 대한 선제적 탐구가 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인 신화는 설문대할망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거인 신화 자체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고 할미 설화를 제외하고도 안가닥 할미나 개양 할미 등의 이름을 지닌 여성 거인에 대한 설화가 존재한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주된 이야기는 할머니가 거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거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행위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서술하는 형식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거인 신화는 그 안에서도 종류가 차이가 있다. 설문대할망의 신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존재하는데,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해 동시에 신체가 닿는다는 식으로 설문대할망이 간접적으로 상상 이상의 거인(巨人)이라는

24)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동서인문학』 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4, 11쪽.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화소 부분이 존재한다.

옛날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 하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중략)
할머니는 키가 커서 한라산과 일출봉 사이를 한 발자국에 놓았다 한다.²⁵⁾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²⁶⁾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이 바위는 설명두할망이 길삼을 할 때에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라 한다. 등잔으로 켜다 해서 이 바위를 등경돌이라고 한
다.²⁷⁾

나아가 거녀의 특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설문대
할망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여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세상을 만든 창조신의 성격
을 지녔다. 따라서 산이나 강은 기본으로 주변의 오름과 한라산까지 만든 것으로
불려진다.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설문대 할망이 지형창조 즉 창세신의 면모를 보
인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이 부뚝는디 천지개벽할 때 아미영호여도(아무리 하여도) 열린 사름
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렸느냐 호면 아주 키고 쉰 사름
이 딱 떼어서 하늘을 우테레(위로) 가게 호고 땅을 밋트레(밑으로) 호여서 호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읍으니 굿드로(가로) 돌아가명 혁 파 올려서 제주도
를 맨들었다 호는디 거 다 전설로 호는 말입쥬.²⁸⁾

<설문대 설화>는 일반적으로 전설화되고 파편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설문대
할망과 관련된 증거물들이 크고 할망의 몸집도 크기 때문이다. 위의 채록본은 창

25) 현용준, 『제주도 전설』, 1976, 서문당, 24쪽.

26) 현용준, 위의 책, 22쪽.

27) 현용준, 위의 책, 24쪽.

28) <오라동 설화 23(송기조, 남, 74세)>,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714쪽.

세신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설화이다. 제보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천지가 붙어 있던 혼돈의 시절에 하늘을 밀어 올려 분리했다고 구술했다. “큰 사람”은 설문대할망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했다. 제보자는 천지 분리 이야기에 이어서 치마에 흙을 퍼 담아 한라산과 오름을 만드는 주체를 ‘설문대 할망’이라고 했다.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 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금세 두 쪽으로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제각기 트였다.²⁹⁾

위의 자료에서도 설문대할망의 천지분리 화소가 명확하게 보인다. 앞의 채록본에서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고만 했는데, 진성기의 자료에서는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눌렀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허남춘은 설문대할망의 천지분리의 사실을 안 옥황상제가 진노하고 말쑤딸(설문대할망)을 세상 밖으로 내쫓았고, 이어 설문대할망이 속옷도 챙겨입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흙을 치마폭에 담고 내려와 흙으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주목하였다.³⁰⁾ 그는 설문대할망의 천지 분리와 지형 형성 화소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유구의 신화를 예로 들어 천지를 분리하는 창세 여신의 흔적이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유구의 거인 아만추는 태고 적 하늘이 낮아서 인간이 개구리처럼 엎드려 사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양손과 양팔을 이용하여 힘을 다해서 하늘을 들어 올렸다고 한다. 다음의 이야기에서 아만추의 창세신화의 흔적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아만추의 발자국] 오랜 옛날 천지는 하나로 붙어 있어서 당시 인간들은 개구

29)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5, 28쪽.

30)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70-74쪽.

리처럼 기어다녔다. 아만추-고류큐 개벽의 신, 오모로 신가 등에는 ‘아마미쿄’라고 적혀 있다-는 이것을 불편하다고 여겨, 하루는 단단한 바위가 있는 곳에 가 바위를 발판으로 양손으로 하늘을 밀며 일어섰다. 이때부터 천지는 멀어지게 되고 인간은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³¹⁾

[아만추의 천지분리]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붙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어다닐 수 밖에 없었다. 먹을 것을 구하면서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하므로 하늘과 땅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나 아만추라는 이가 와서 나하의 유치노사치라는 곳에 서서 “이얍!”하고 하늘을 들어올렸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서 걸을 수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게 되었다.³²⁾

위의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즉 천지 분리를 하는 창세 여신의 흔적은 후대로 내려와 천상계 신의 명령으로 하계로 내려와서 지상의 땅을 만드는 지형 형성 이야기로 되고, 남녀 신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신화에서도 여신이 천지 분리의 반을 담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중국 남부 소수 민족 백족(白族)의 창세서사시 <창세기>에 반고와 반생의 경우에도 반고의 몸은 하늘, 반생의 몸은 땅이 되었다고 한다. <기원지가>는 동족(侗族)의 창세 서사시로 악위라는 신이 땅을 만들고 왕의라는 신이 하늘을 만들었다고 한다.³³⁾ 또한 남서족(納西族)의 <송반도>에는 천신 아홉형제는 하늘을 열었고, 지신 일곱 자매가 땅을 이룩했다는 것을 보면 남녀 신이 합세해서 하늘과 땅을 만든 것으로, 천지 분리의 파생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설문대 설화>에서는 하늘과 땅이 붙어 있던 것을 밀어 올려 분리된 천지 분리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자료들에서 지형창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변화하게 된다.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다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은 도내에 산재한 작은 산(오름)이 되었다.³⁴⁾

31) 정진희, 『오키나와 옛이야기』, 보고사, 2013, 64쪽.

32) 정진희, 위의 책, 76쪽.

33)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9, 201쪽.

할망이 삼으로 흙을 떠서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고, 조금씩 흘러 흩날린 흙들이 도내 작은 산이 되었다. 35)

설문대할망은 키가 크고 힘이 셨다. 흙을 파서 삼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도내 여러 곳의 산들은 할망이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흙이다. 36)

삼으로 흙을 퍼 담아 조금 던진 것은 작은 오름이 되었고, 많이 던진 것은 한라산이 되었다. 37)

설문대할망은 육지 할망인데, 한쪽 가달은 육지에 다른 한쪽은 제주에 놓고 삼으로 육지 흙을 떠서 한라산을 만들었고, 조금씩 떨어진 흙이 영아리나 붉은 오름 같은 작은 산(오름)이 되었다. 38)

위의 자료처럼 <설문대 설화>는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이 형성된 연유를 말해주는 설화이다. 제주 전역에 걸쳐서 전승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는 이야기이다. 이런 점은 천지 창조 뒤에 나타나는 지형 형성의 신화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성 신화가 나타나기 이전의 여성 신화이다. 대단한 생산력을 지닌 여성신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39)

마고할미, 중국의 여와, 북유럽신화의 이미르(Yimir),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Tiamat) 등은 설문대할망처럼 모두 거구의 창세신들이다. 원시 인류는 최고의 대모신격(大母神格)을 그 능력에 걸맞는 거구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크다’는 것은 실제적인 ‘크다’의 의미를 초월한 일종의

34)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2, 6-7쪽.

35) 장주근, 위의 책, 7쪽.

36) 진성기, 『남국의 전설』, 교학사, 1981, 105-106쪽.

37)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4집, 1997, 127쪽.

38)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22집, 2006, 329쪽.

39)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거인신화비교」,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94쪽.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최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⁰⁾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라는 섬을 창조한 여성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무 사람이나 말로써 전승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관념적인 사실을 전함으로써, 공동체의 역사와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게 된다.⁴¹⁾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오름을 만든 관념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설문대할망을 떠올린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이면서 그 당시 마을과 우주의 중심인데,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동시에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성한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설문대 할망은 신성한 창조를 행한 신으로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흙으로 날라 만든 한라산과 흘러내린 흙으로 만든 오름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신성하고 위대한 창조물이다. 이런 점에서 <설문대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창조신이나 대지모(大地母)신의 모습을 보이는 설문대할망이 다리놓기 실패담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백통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은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 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고 한다. 바다에 흘러 뺏어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⁴²⁾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이 다리는 인간에게 이롭기에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사람에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속옷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 이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창조신적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그를 대가로 인간에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 보통 여성 거인의 신이라면 어머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조건 없이 인

40) 허남춘, 위의 책, 94-95쪽.

41) 김영희, 『구전이야기 언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163-164쪽.

42) 현용준, 앞의 책, 23쪽.

간에게 베풀고 있기 마련인데, 이 변모된 설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다리가 결국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패배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배담 속에는 제주도가 한반도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라는 절망적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화소는 여러 문서에서 드러난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명주 100통이 드는데 제주 백성들은 99통밖에 모을 수 없어 속옷을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는데 그 자취가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남긴 여(바위)라고 한다.⁴³⁾

할망은 속옷 한 벌만 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명주를 모아 보니 99필밖에 안 되어 속옷을 만들다가 사타구니 부분의 옷감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리도 놓아주지 않게 되었다.⁴⁴⁾

할머니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명주 100통이 드는데 명주가 99통밖에 없어 옷을 못 만들었다고 한다.⁴⁵⁾

설문대할망은 몸이 거대한 할머니였다.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는데 도민들은 명주 선 통을 들고도 옷을 짓지 못했다고 한다.⁴⁶⁾

이 할망은 도민들에게 명주 백 동(1동은 50필)을 모아 속옷을 한 벌 만들어주면 본토까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도민들은 있는 한 모았으나 한 동이 모자랐고 육지와는 다리를 놓다가 말았다. 그 다리를 놓던 흔적이 조천에 있는 영장매코지라고 한다.⁴⁷⁾

43) 현용준, 위의 책, 22-23쪽.

44) 현용준, 위의 책, 5쪽.

4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26쪽.

46)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511-512쪽.

47) 진성기,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05-106쪽.

설문대할망이 속옷을 만들어주면 다리를 놓아준다고 하여, 있는 명주를 다 모아 속옷을 만들다가 모자라 다 만들지 못하니, 다리도 놓다 말았다. 명주를 모두 모았는데 속옷 하나 만들지 못하니 그 할망의 크기를 알 수 있다.⁴⁸⁾

설문대가 목포와 제주 사이 깊은 바다에 들어도 무릎 밖에 안 닿았다. 도민에게 옷 한 벌 해주면 목포와 제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돈을 모아도 옷 한 벌 사줄 수 없어 다리를 못 놓았다.⁴⁹⁾

속옷을 지어 주면 소섬과 성산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는데, 명주 7동을 들여도 부족해 결국 다리를 못 놓아주었다고 한다.⁵⁰⁾

명주 백 동만 모으면 소중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목포까지 다리를 놓아서 걸어 다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한 동이 쉰 필이고, 한 필이 스무 자라, 백 동을 마련할 수 없어 부족해서 결국 옷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리도 실패하였다. 조천 영장매코지(웅장벽하지)에 시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⁵¹⁾

위의 자료를 보면 핵심적인 대립을 찾을 수 있다. 설문대할망과 백성들, 다리와 속옷이다. 이 대립을 설문대할망의 다리놓기 실패담으로만 단정짓지 않고 신화적 요소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속옷을 바친다는 신화적 제의의 상징성을 띤다는 것이다.

권태효는 이것이 육지와 제주도에서 거행되는 수많은 무속제사에서 신들의 내력이 무가의 형태로 불려지는 제의과정에서 복식과 옷감들을 신들에게 바쳐지는 것은 일반적 형태라고 보고,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주를 내어 속옷을 만들어 바치는 것을 무속의례로 보았다. 무속의례에서 신들에게 옷감과 복식을 바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며 이런 점에서 제주도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속옷을 지어 바치는 행

48)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224쪽.

49)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20집, 2013, 97-98쪽.

5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4집, 1997, 204쪽.

5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제22집, 2006, 310-311쪽.

위도 종교적 의례의 일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⁵²⁾

<설문대 설화>는 설문대할망이 가진 신격으로 보면 여신 신화로 볼 수 있다. 인류가 지금처럼 정착 생활을 하기 전, 수렵으로 생계를 해결했고, 동굴,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식량의 유무에 따라 떠도는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기에 여신 신화는 여신의 생산력에 주목을 한다. 이런 점은 인류가 이후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사회로 접어든 후에도 계속된다. 농사를 하고 수확하는 과정은 자연의 힘이 결과물을 맺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여신은 생산력의 관점에서 추앙되고, 자연스럽게 여신의 생산력은 결실을 맺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다.

이런 연유로 신화에 고대 유물들에서 여성의 가슴, 하문, 즉 신체는 고대 인류가 지녔던 풍요에 대한 소망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생산력은 성적인 권능임과 동시에 생산력과 동일한 사유의 결과이다. 따라서 여신의 하문으로 여신이 지닌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설문대 설화>에서도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하문에 대한 언급이 잦다. 이런 점은 설문대할망이 지닌 생산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음문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그 음문의 크기만큼이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은 바로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집약적 표현이다. 고대로부터 여성의 생식능력은 신성화되고 이어 여신의 생산력으로 된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이기에 가능하다. 이런 신성한 능력을 가진 여신 즉, 설문대할망은 거대한 음문을 지녔기 때문에 여신 신화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설문대 할망은 대모신으로서 생산력을 갖추었고, 모계사회에서 여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설문대할망이 이런 거대한 음문을 가졌다는 것은 거대한 신체를 지녔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의 거대한 신체는 배설과 배뇨 또한 보통의 인간의 범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여신의 생산력은 배설과 배뇨를 통해 지형창조로 이어진다.

본래 성산리(城山里) 앞바다에 있는 소(牛)섬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옛

52)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52쪽.

53) 김현수, 앞의 논문, 42-43쪽.

날 설명두할망이 한쪽 발은 선상면 오조리의 식산봉에 디디고, 한쪽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즘을 썼다.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깨어지며 오즘이 장강수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다.

그때 흘러 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산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그 형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일설에는 이 할머니가 성산 일출봉과 성산면 시흥리 바닷가의 빗름알선들이라는 바위를 디디고 앉아 오즘을 누었다고 하기도 한다.⁵⁴⁾

위에 제시한 이야기는 소섬(牛島)가 어떻게 제주도와 분리되었고, 제주도와 소섬 사이의 바닷물이 왜 깊어졌는지, 물살이 왜 거세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이다. 설문대할망은 오즘누기 즉 배뇨로써 성산포와 우도를 분리해놓았고 바닷물을 깊게 만들어놓았다. 이는 단순한 분리와 깊이가 아니라 생산력과도 연관이 있다. 성산포와 우도를 분리하고 깊은 바다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수 많은 물고기가 노니는 또 다른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우도라는 섬은 섬 그 자체의 생명력을 지닌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오즘누기 즉 배뇨는 설문대할망의 창조도구로 <설문대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단순하게 “오즘을 누었다.”가 아닌 “오즘 줄기의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혹은 “세차게 오즘이 흘러간 흔적으로...” 으로 오즘을 쓴 양이 많고,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오즘싸기 또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설문대할망이 거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에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은 그만큼 왕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다가 깊어지고 물결이 거세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민의 생활방식에는 험난한 여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한다. 위의 제시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센 조류로 인하여 배가 파산하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잦아지게 된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새로운 섬이 생기고 거센 파도 덕분에 오히려 그런 바다 환경에 기대고 살아가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또 다

54)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24-25쪽.

른 생산의 원천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척박한 환경 그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생계를 위한 수단 즉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신화적 사유로 설문대할망은 배뇨 또한 생산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진 것이다.

설문대 할망은 워낙 큰지라 식량(食糧)이 많아서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싸낸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 55)

위의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이 대식(大食)을 하고 배설한 것이 오름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대식은 일차적인 행위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는 배설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 둘의 과정은 상반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면 절대 어떤 생물이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결된 두 개의 과정의 주체는 설문대할망이다. 두 개의 과정 중에서 후에 일어나는 배설조차도 설문대할망은 다시 생산의 과정으로 연결한다.

앞서 설문대할망이 흙을 퍼 올려 한라산을 만들고, 치마 사이로 떨어진 흙이 오름이 되는 직접적인 지형창조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살펴보았다, 배설과 배뇨의 경우 또한 지형이 변하고 창조가 되는 것은 앞의 경우와 결코 분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제시한 이야기에서는 설문대할망이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한다. 이 배설물은 다시 지형을 창조한다. 사라졌으나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즉 소멸과 생성의 순환,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대지를 만든 설문대 할망이 지모신(地母神)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설문대할망의 배설, 배뇨 행위는 출산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생산력은 출산을 통해서 증명된다. 설문대할망도 마찬가지이다. 거대한 신체로 대식을 하고 그 이후에 배설 배뇨를 통해 지형창조를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여성의 출산 과정과 동일하다. 그 결과물이 생명이나 지형

55)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2, 7쪽.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배설과 배뇨는 설문대할망이 엄청난 거구였음을 알려준다는 것은 앞에서 제시했다. 할망의 오줌발로 우도가 갈라져 나왔다는 이야기 속에는 설문대할망에 의해 섬이 생겨났다는 국토생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음부와 오줌발 모티브에는 창조여신의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점은 육지에서 모내기를 할 때 아침 일찍, 그 마을에서 아들을 가장 많이 낳은 여성이 눈에 오줌을 누어 준다. 여성의 생산력이 전이되기를 바라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여성의 오줌은 이후에도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다.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흙을 퍼 나르다가 구멍 난 앞치마에서 새어나온 흙이 오름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녀의 배설물이 오름이 된다. 거대한 배설이 국토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도와 굿상망오름은 단순한 지명전설이기 이전에 국토생성의 신화가 화석화한 흔적으로 보인다. 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문대 설화>의 이런 화소 역시 국토형성에서 지형 혹은 지명형성으로 바뀌고 이어 국조설화(國祚說話)로까지 변형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⁵⁶⁾

애초 대지의 창조는 여성신의 몫으로 봐도 타당하다.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의 어머니 ‘가이아’가 탄생한 것으로 봐도 그렇다.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는 바로 대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설문대할망 같은 여성신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여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로 변하면서, 여성영웅은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뒤에 남성영웅이 등장한다. 여성창세신이 남성신의 배우자를 만나, 이어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 여성신으로 변모하게 된다. 거구이면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신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부드러운,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신화는 이렇게 전설로 바뀌는 경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이야기 역시 전설로 남게 된다.⁵⁷⁾ 이런 경로를 이해하면 <설문대 설화>가 애초에 지녔던 신화적 속성, 혹은 요소들이 파편화되는 과정도 추정할 수 있다. 원형적인 신화소가 신성성을 잃으면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설 혹은 민담으로 변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이 다소 떨어지면서 창조신적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모순

56)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거인신화비교」,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108쪽.

57) 허남춘, 위의 책, 82-84쪽.

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개연치 않던 설문대할망이 자신이 만든 범주 안에 있던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 결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배개를 삼아 누울 정도로 거대한 설문대할망이 자신의 만든 작은 공간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하다. 천지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를 분리하는 능력을 가진 이러한 여신이 한순간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매우 허무하다. 이는 거인 창조신이라는 이미지조차 몰락하게 만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설문대 설화>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녀가 자신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고 고대 신화적 세계관에서 남성중심,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문명과 이성을 확립하기 위해 변모한 설화가 전파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설문대 설화>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신화에서 나타나는 화소이다.

이를 두고 허남춘은 여성 영웅 시대에서 남성 영웅시대로의 전환이 명확히 드러난 결과로 보았다. 거대한 몸집과 거대한 식성, 힘을 상징하는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는 다른 남성신들이 계승하게 된다고 보았다. 사슴 10마리, 멧돼지 7마리를 먹거나, 음부에 들어간 엄청난 물고기를 포식하던 설문대할망의 대식성(大食性)은 점심으로 소 두 마리를 잡아먹는 소천국과, 매 끼니 소나 돼지 한 마리씩 먹는 케네깃도의 식성으로 바뀐다. 이런 대식성이 영웅성의 근거인데 그 힘의 주체가 여신에서 남신으로 바뀌고, 여신은 산속으로 내몰렸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과정이라고 했다.⁵⁸⁾

김현선은 이런 <설문대 설화>의 전승주체가 사제자가 아닌 일반 민중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⁵⁹⁾ <설문대 설화>는 사제자의 개입없이 일반 민중에게 행해지던 신화이고 이런 전승과정은 사제자 즉 전문적으로 신화를 학습한 심방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 전승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관이 자유로운 구연과 전승이 이루어진다. 사제자의 개입없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인상적으로 기억된 삽화들이 전승되면서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런 <설문대 설화>의 전승 주체의 특징이 앞서 제시했던 자료, 일반 민중이

58) 허남춘, 위의 책, 115-117쪽.

59)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2008, 291쪽.

설문대할망에게 다리 놓기의 대가로 옷을 바치는 화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 민중들과 설문대할망사이의 거리가 없고 따로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반 민중 그 누구든, 공물을 바치는 것에 참여하는 자는 신과의 대면이 가능하다.⁶⁰⁾

종합하자면 이런 위에서 제시한 설문대할망이 지닌 창세신적인 특성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하게 된다. 여성 중심사회가 남성 중심사회로 바뀌고, 독립적인 여성신에서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한다. 거대신(巨大神)이 거인신으로, 그 다음 거인으로 바뀌고 인간 크기의 신으로 점점 왜소해진다. 또한 심방이 구연하는 의례가 없는 전승주체가 민중이다 보니, 애초에 가졌던 <설문대 설화>의 신화적 요소들이 과편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구전의 시간도 길었기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설문대 설화>가 더욱 과편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2. 전설적 요소의 확장성

전설에서는 신화와 다르게 자아와 세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⁶¹⁾ 자아와 세계를 포괄하는 원리가 존재하지 않고 작품 외적 자아가 개입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전설은 증거물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 증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배경이며 이 때문에 설화만으로는 부족한 실감을 느껴지게 한다. 전설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세계가 우위에 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나아가 전설에서는 전설적 경이가 나타나고 세계의 경이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자아의 관계가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설문대 설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흘러 설화 자체가 과편화되면서 신화에서 전설로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신성성 약화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제시될 수 있다. <설문대 설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성성이 감소하여 결국 남성, 인간형 신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설문대할망 전설은 그 내용은 신화인데 전승 과정에서 전설화

60) 김현수,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37쪽.

61)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계명대학교, 1974, 12쪽.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설은 제주 여러 지역의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 전설로 정착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장주근은 <설문대 설화>의 이 같은 와해에 대하여, 신화의 산출심리는 고려 시대에 이미 사라졌으며, 특히 이지(理智)의 발달은 신화의 민간 구전도 어렵게 해서, 결국 해당 설화가 전설, 반 민담화 되었다고 보았다.⁶²⁾

우선 설문대할망의 자취가 할망과 관계있는 지형지물로 남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하겠다. 전설은 신화·민담의 성격과 크게 다른 점은 위의 표에서 살펴본 듯이,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를 가진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증거물로 지닌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문대 설화>의 전설적 요소를 쉽지 않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앞서 <설문대 설화>의 자료를 시기별로 번호 1부터 번호 56까지 표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대표 전설적 요소를 선택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⁶³⁾

- 1) 제주도의 수 많은 오름들은,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면서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나르면서,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된 것이라 한다.
- 2)-1 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에 있는 큰 바위는 할망이 작은 술을 걸쳐 놓고 밥을 지어 먹던 돌이라 한다.
- 2)-2 북제주군 애월면 광지리에 술덕 모양의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다. 이것은 할망이 밥을 해먹던 곳이다.
- 3) 남제주군 성산면 성산리의 일출봉에는 많은 커다란 기암(奇岩)들이 있다.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할망이 길쌈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다. 다시 얹어 놓은 듯한 바위는 할망이 길쌈하기 편하게 다시 올려놓은 것이라 한다.
- 4) 제주시 한천(漢川) 위쪽에 구멍이 팬 바위가 있다. 할망이 쓰던 감투이다.
- 5)-1 설문대할망은 육지와 다리를 놓아주려다가 말았다. 그 놓다 만 다리가 한림면 한림리 앞바다의 긴 곳이다.
- 5)-2 조천면 신촌리의 대섬과 조천리 바닷가에 नी이 퍼져있는 곳을 영장매라고

62) 장주근, 『한국문화사대계』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657쪽.

63) 표로 정리한 자료의 원문은 본 논문 뒤의 부록으로 정리하였으며, 인용하는 자료는 연구자가 핵심 화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축약했음을 밝힌다. 순서의 의미는 없다.

하는데 이것은 할망이 놓다가 만 다리이다.

- 6) 할망이 짠 오줌이 하도 거세서, 육지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섬이 되었는데 이것이 소섬(牛島)이다. 오줌줄기가 워낙 세어서 깊이 파여 고래·물개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다.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배가 난파되는 일이 많다.

위에 제시한 대표적인 전설적 요소를 살펴보면 대개가 지형을 설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설문대 설화>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시한 자료에서 2)-1과 2)-2, 5)-1과 5)-2는 설문대할망의 동일한 증거물이다. 2)에서의 핵심 화소인 솔덕의 흔적이 제주시를 기점으로 각각 동쪽과 서쪽인 구좌면 송당리와 애월면 광지리의 지역에서 동일한 증거물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핵심 화소인 다리 놓기 실패담은 5)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5)-1은 한림면 한림리에서, 5)-2는 조천면에서 동일한 화소를, 동일한 증거물로 2)의 경우처럼 제주시를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동일한 증거물이 두 군데 있고, 같은 행위의 증거물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서 전설적 요소들이 제주 전 지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설문대 설화>의 신화적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편화의 과정을 겪었다. 기본적으로 <설문대 설화>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흘러 설화 자체가 과편화되고 신성성이 점차 약화, 소멸되면서 신화에서 전설로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신성성 약화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제시될 수 있다. <설문대 설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신성성이 감소하여 결국 남성, 인간형 신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현용준은 설문대할망에 의해 전설화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⁶⁴⁾

- 1) 관탈섬, 및 주변의 여러 섬: 다리가 그 섬(여러 섬)에 걸쳐졌다.
- 2) 한라산: 할머니의 베개
- 3) 한내 위 큰 구멍 난 바위: 할머니 감투
- 4) 제주도의 여러 오름: 할머니가 흘린 흙
- 5) 용소, 홍리물 물장오리: 깊이 측정(빠지지 않거나 빠짐)

64)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76, 57-58쪽.

- 6) 마라도, 우도, 일출봉, 표선리 해안 모래밭: 할머니 신체 부위가 닿았던 곳
- 7) 구좌읍 다량쉬오름 분화구: 할머니가 주먹으로 친 곳
- 8) 일출봉 기암괴석: 할머니가 불을 켜던 등잔
- 9) 괘지리 지경 바위: 술을 얹혀 밥을 짓던 곳
- 10) 성산과 우도: 오줌줄기의 힘

결론적으로, 설문대할망은 창조신화와 지형형성의 신화적인 성격은 분명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편화되어 지형이 전설적인 면모를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성준은 <설문대 설화>가 제주민(濟州民)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술덕 비슷한 모양을 돌을 보거나 다리의 모양을 한 지물(地物)을 보면 바로 설문대할망을 연상했을 정도로 濟州民들의 가슴속에는 <설문대 설화> 혹은 설문대할망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⁶⁵⁾

<설문대 설화>의 전설적 요소가 확장된 예는 다음의 표로 살필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⁶⁶⁾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증거물과 동일한 행위가 제주시를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제주도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담의 종류 및 핵심화소	관련증거물	지역
빨래하기	한라산, 관탈섬, 추자도 식산봉, 우도, 일출봉 산방산, 마라도, 가파도	한라산 제주 앞바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제주서쪽과 그 주위의 섬들
다리 놓기 (連陸橋)	조천, 한림, 모슬포의 곳 표선 백사장	표선, 조천, 한림, 모슬포
술덕(술걸이)	애월 괘지부근 기암 송당 부근 기암	애월읍 구좌읍

65)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제주대학교, 1989, 70쪽.

66) 제시한 표 역시 앞에서 서술한 <설문대설화>의 자료에서 내용을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앞의 1)부터 6)까지 제시한 전설적 요소의 차이점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면으로 읍으로 표기하였다.

유형담의 종류 및 핵심화소	관련증거물	지역
밭뺨고 잠자기	한라산, 관탈섬, 섭섬	한라산과 제주시, 서귀포시 전승지역 앞바다에 있는 섬
섬 가로지르기	한라산, 산방산 표선 백사장, 추자도	한라산과 전승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형물
지형형성	한라산, 원당봉 다랑쉬오름, 우도	한라산과 제주도내 오름들

[표3] <설문대 설화>의 전설 삽화와 관련 증거물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핵심 화소가 제주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화소는 바다나 산, 섬 등 유사한 자연환경에서 그 지역의 지형물에 전설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빨래하기의 관련 증거물은 한라산을 비롯하여 산과 바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섬이 위치한 곳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지형, 지물은 한라산, 오름을 비롯하여 섬, 기암 등이었으며, 특히 주된 증거물은 오름과 섬들이다.

증거물 중에서 단연 한라산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은 한라산은 제주의 상징물로서 제주도의 몇 군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서든 제주민의 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고 큰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의 거대한 외모를 형상화하는데 가장 적당했을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지형물에서 설문대할망의 증거라는 자연스러운 인식이 자리 잡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이런 유형은 행위담과 증거담으로 나눌 수 있지만 행위냐 증거냐 하는 것은 전승 비중의 문제일 뿐, <설문대 설화>가 지니는 전설적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제주도 전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서사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물 외에도 짧은 전설만으로 얽혀 있는 증거물들이 현재도 제주도민의 생활 반경과 밀접한 곳에서 발견된다. 현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사무소나, 애월읍 상가리에 있는 바위는 설문대할망의 공깃돌이라고 하고, 제주시 오라동 KBS 제주방송총국 인근에 있는 족두리바위는 설문대할망

의 족두리라고 전해진다. 이런 증거물들도 시대를 거쳐 설문대할망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적 변이를 거쳐 확장되면서 생성된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생활 양상과 관련된 설문대할망 전설의 증거물들은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오름, 지형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에서 인간 즉, 어머니 혹은 인간 삶을 형상화 한 세속적 설문대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양상들은 최근 2017년 이후에 채록된 자료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에서 제시한 <설문대 설화>의 자료 목록 중 46번부터 56번에 해당한다. 다시금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핵심화소	관련증거물	채록 지역	채록년도
46	거구, 대식, 다리걸치기	한라산, 산방산, 군산	안덕면 대평리	2017.3.24.
47	거구, 다리걸치기	한라산, 산방산, 마라도	안덕면 감산리	2017.5.15.
48	오좁누기, 지형형성 생괘못	부대악, 민오름, 생괘못	조천읍 와산리	2017.5.18.
49	다리놓기, 다리걸치기, 죽음	한라산, 산방산, 형제섬*	안덕면 사계리	2017.5.20.
50	다리놓기, 죽음	한라산, 영장매, 물장오리	조천읍 신흥리	2017.5.23.
51	다리놓기, 거구, 배게	파군봉, 큰 관탈섬 작은 관탈섬	애월읍 하귀1리	2017.8.20.
52	거구, 지형형성, 배설·배뇨	한라산, 성산오름, 산굼부리*, 송악산*, 산방산*,	표선면 가시리	2017.11.2.
53	거구,	한라산, 백록담, 검은오름,	한림읍	2017.12.9.

	베게	바르메오름*, 금악오름*	대림리	
54	거구, 빨래하기	한라산, 산깃물	제주시 오라동	2018.7.19.
55	다리놓기	제주에서 목포다리*, 범이 들어온다고 하여 제주민이 거절.*	서귀포시 하예동	2019.5.30.
56	거구, 다리걸치기, 다리놓기	한라산, 고근산, 범섬, 문섬 다리: 제주-일본 연결실패*	서귀포시 호근동	2019.10.17.

[표4] 2017년 이후 <설문대 설화> 채록 자료

위의 표를 살펴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채록본을 살펴보면 핵심화소는 그 이전의 자료와 유사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최근 채록본 앞의 표 유형담의 종류와 관련 증거물에서 다리 놓기 실패의 화소가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다. 표선, 조천, 한림, 모슬포의 지역을 벗어나 안덕면,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지형물에 연관되어 전승되고 있다. 새롭게 채록된 지역에서 전승이 확장되는 현상은 다리를 놓기에 필수적인 자연물, 즉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변이는 비단 다리 놓기 화소 뿐만 아니라 다른 화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위의 표에 * 표시를 한 증거물이 그것이다. <설문대 설화> 각편에서 이에 해당하는 삽화 부분의 채록 내용을 간략하게 옮겨보기로 한다. 주목할 부분에 밑줄과 **진하게** 표시를 했다.

1) 49번자료

<조사자>: 설문대, 한라산 오름 만든 할망 말도 곱아 줘서.

<제보자>: 이제 머 멧고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 잇 너무 커 부난, 빨래 허젠
훤 산방산에 다리 걸치고, 저 한라산에 밭 걸친 빨래 허고, 저 설
문대할망이 너무 커 부난 죽지 못허연.

“아이고 어디 간 죽으코.”

저 한라산, 물에 강 죽젠 훤 이거 사지는 못이 엇언.

<조사자>: 여기가 사전에 요기가 물속에 못 들어 간?

<제보자>: 너무 얇안.

<조사자>: 너무 낮아부난, 물이 낮아부난?

<제보자>: 응, 물이 낮아부난 못 죽으나네 저 바당 물에 간 빠전에.

<조사자>: 바당물 어느 바당물 마씨?

<제보자>: 저이 형제섬 앞이.

<조사자>: 어떻 살앗인고예? 할망이 막 커부난.

<제보자>: 아이고 게메, 지금은 생각허문 다 거 거짓말, 어디 저 밭 산방산에
걸치고 한락산에 걸치고 빨래 허여? 죽지 못 허난게 저 한라산 물
에 빠정 죽젠 해도 죽지 못 해연, 바당에 강 빠전 죽언.⁶⁷⁾

위는 설문대할망의 죽음 화소와 관련된 자료이다. 설문대할망의 죽음의 장소는 대개가 물장오리이며 그곳에서 빠져 죽는 결말이다. 물장오리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라산 서남쪽에 있는 오름이며 산정에 둘레 1500m의 호수가 있는 곳이다. 이런 물장오리에서의 죽음이 49번 자료에서는 형제섬 앞으로 장소가 옮겨진다.

물장오리와 형제섬 앞의 죽음이 지역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형제섬 앞의 죽음은 제보자의 거주 지역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채록본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 박군생의 거주지는 안덕면 사계리이다. 안덕면 사계리는 산방산과 용머리를 끼고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또한 이 산방산과 용머리라는 지형물에서 바다를 보면 바로 형제섬이 눈 앞에 펼쳐진다. 낯익은, 익숙한 장소 바다에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2018, 231쪽.

<제보자: 2017년 5월 20일 안덕면 사계리 박군생, 여, 1916년생>

2) 52번 자료

<조사자>: 어릴 때 혹시 들어났우과?

<제보자>: 들어나긴 헛인디, 설문대할망이 어떻게 컷인디 멩지 아홉 필을 헛인디도 속옷 하나를 못 헛인디 한라산 발 혼짜 올라난 디가 거리 물 골르고 성산오름 한 쪽 놓은 디가 그 디가, 오름이 뵈고 산굼부리엔 오줌 싸부난 그 물 고인 거랜.

<조사자>: 산굼부리가 마씨?

<제보자>: 경 흐고 대변 본 거는 저기 송악산이고, 닭을 거 엇이난 돌 하나 심어 닭아난 게 산방산이주.⁶⁸⁾

52번 자료의 제보자는 표선면 가시리이다. 제보자의 지역인 가시리와 산굼부리는 지역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장소이고 동일하게 중산간에 위치해 있다. 가시리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위의 사계리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전승 과정을 거쳤으리라 짐작이 된다. 낮익은 지형지물에 <설문대 설화>의 전설적 요소가 덧씌워졌을 것이다. 이런 전설적 요소가 주변의 지형지물에 번지면서 확장되는 요소는 53번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 53번 자료

<조사자>: 설문대할망예?

<제보자>: 근거는 없고, 근거는 없어도 키가 한라산, 여기서 추자 관탈꺽지는 다리를 놔 가지고 그냥 걸었다고, 한라산 꼭대기에서는 그 백록담에 서는 그때 빠져 낫다고 이런 것이 이서. 계단 키가 얼마나 컸는지 저 그 한라산을 그 바르메오름을 베게 삼아 누우면은 검은 오름 균악봉꺽지 발이 닿았다고 이제. 춤 그계 있을 수 없는 일로 내가 그런 전설을 들은 적 있어 마씨.

<조사자>: 설문대할망 이야기 또 다른 거 아는 거 엇우과?

<제보자>: 예.

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2017, 355쪽.

<제보자: 2017년 11월 2일 표선면 가시리 오국현, 남, 1935년생>

<조사자>: 키만 엄청 컸다?

<제보자>: 예. 키만 엄청 컸다는 얘기만 들었우다.

<조사자>: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만들었저 허는 얘기는 안 들어봤우과?

<제보자>: 그런 거는 안 들어봤입주.⁶⁹⁾

53번 자료의 핵심화소는 설문대할망의 거구이다. 거구를 설명하는 전설적 요소 즉 증거물이 제보자의 지역적으로 가까운 바르메오름과 금악봉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53번 자료의 제보자가 거주하는 한림읍 대림리와, 지형 증거물인 바르메 오름 금악봉은 동일한 지역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점이 지역에 있는 특정한 지형물에 설문대할망이라는 전설적 요소를 만나 지역의 전설로 번지는 모습이다.

4) 55번 자료

<제보자>: 아, 설문대할망이야 옛날 해가지고 거 할망 속곳 하나 멘들어 주며는 **목포에서 제주까지** 다리 놔 준다고 해가주고 허며는, 게서 제주도에 서 거절허는 게, 그 웨냐문 그 다리 노며는 육지서 그 범이 제주도 들어온다고, 제주도에 범이 없으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주 사름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다릴 못 놓게 하여.

<조사자>: 설문대할망이 그리해 준대 했는데.

<제보자>: 어, 속곳 하나만 멘들어주민 그걸 다릴 내준다고 했는데 그 범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지고 제주도 사름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그걸 안해.

<조사자>: 그건 어릴 때 들은 얘기우파?

<제보자>: 그 전설이지 뭐.⁷⁰⁾

55번 자료는 다리놓기의 실패담 화소가 육지 중에서도 목포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고, 범이 들어온다는 제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오히려, 제주민이 반

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2018, 112쪽.

<제보자: 2017년 12월 19일,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남, 1934년생>

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2018, 268쪽.

<제보자: 2019년 5월 30일, 서귀포시 예래동, 김순봉, 여, 1934년생>

대한다는 변이된 형태가 발견되는 전설이다. 이런 양상은 56번 자료에서는 목포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넘어 일본까지 다리를 놓는다는 엄청난 지역의 차이와 상상력의 증거물을 만들어 낸다. 채록본의 내용을 짧게 인용해 보도록 한다.

5) 56번 자료

<조사자>: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마쑈?

<제보자>: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 나 소중기 하나 멘들어주면 일본과 한국을 다리 놔주켄. 소중기라고 해녀들 입는 거 잇지이? 근디 천 엇어부난 소중기 못 멘들앗주. 할망이 얼마나 컷인디 그거 허리에 하는 거 하나 못 만들언.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리도 놔주켄 헛인디이. 옛날에 고근산 굽부리에서 방아깨 던지믄 문점으로 나온다고 해. 그건 범섬 호고 고근산 호고 연결되었다는 거.⁷¹⁾

앞선 간략하게 정리한 설문대할망 자료 중 1번부터 44번 자료는 1960년대 이전부터 2005년까지 정리된 채록본들이다.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보자의 연령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자신들의 경험한 일들이나 관계 있는 익숙한 지명들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변이 형태로 확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부지불식간에 투영하는 양상이 반영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다리놓기 화소는 <설문대 설화>를 채록하던 초기부터 제주도의 지역적, 성별을 막론하고 익히 구술하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보자의 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익숙한 지형물에 덧씌워져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양상은 비단 다리 놓기 화소뿐만이 아니라, 앞선 자료에서 설문대할망의 거대한 몸집을 나타내는 ‘거구화소에도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55번 자료에서 56번 자료에서 다리 놓기 화소도 이런 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連陸橋)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를 놓아 왕래가 원활해진다는 의미 그

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3, 2018, 282쪽.

<제보자: 2019년 10월 17일 서귀포시 강정동 정순희, 고정열, 여, 각각 1935년생, 1937년생>

이상이다. 육지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소망이, 다리가 연결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어,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특정 지명을 거론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점은 2000년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이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55번 자료에서의 목포라는 구체적이 지명이 등장한 것은, 목포에 닿으면 자신들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와 가장 가까운 육지 목포는 경제적으로 힘든 제주에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형물이다. 그 곳으로 간다면 그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대상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런 점은 56번 자료에서 일본으로까지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문제 해결은 연륙교(連陸橋)의 종착지가 목포 혹은 일본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설문대 설화>가 고착화 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설문대 설화>가 사람들 속에서 계속 회자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과 연관된 내용으로 변이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제보자의 연령과 그 당시 상황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기도 하다. 즉 55, 56번 자료의 목포, 일본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의 등장은 제보자의 연령과 그 당시 제주민의 생활상,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55번과 56번 자료의 제보자는 1930년생이며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목포와 일본에 제주와 다리가 놓인다는 바람은 그들의 물질적인 욕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가족과 이별이 없는 상황일 것이다.

좀 더 확대해서 추측한다면 1930년대 생의 제주 여성은 출향 해녀가 많았다. 제주에서 어린 시절부터 습득한 물질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경제적인 재화를 획득했었다. 이들이 제주에서 출향하여 가장 먼저 닿는 곳은 목포였을 것이다. 물론 목포 인근의 완도, 진도의 섬들도 있으나 이곳 역시 제주해녀의 입장에서는 제주와 다를 바 없는 섬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목포에 닿았을 때 비로소 육지에 도착했다. 라고 여겼을 것이며, 목포는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소망의 지명인 것으로 인식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55번 자료의 다리 놓기 화소가 목포라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변이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56번 자료에서 일본이 등장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1949년 4·3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제주도민의 일본으로의 집단 이주가 이루어졌다. 밀항이라는 방법으로 마을 공동체의 다수가 4·3이후 오직 생존의 목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예는 제주의 어느 마을 공동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일례로 4·3의 피해가 심했던 조천읍 북촌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학년 졸업생의 60%가 일본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경우가 이를 입증한다. 이런 이주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중 일부 몇몇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다. 남겨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다리가 놓아졌다면 그리운 가족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소망을 실현해 줄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설문대 설화>의 다리 놓기 화소로 지역의 범위가 일본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제보자의 구술로 채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설문대 설화>가 가지는 전설적 요소들을 전승 층들, 즉 제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점들이 <설문대 설화>가 지금까지도 폭넓은 향유층을 지닐 수 있었던 요인으로 파악된다. 창조여신의 신격이 사라지고 인간의 생활상을 공유하는 인간 설문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변이를 거치면서 더 깊게 제주 민중의 삶 속으로 파고 들었던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생활권이나 생활 반경 전반을 설문대할망과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한 경향성만으로도, <설문대 설화>가 제주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사하는 기제로써 수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3. 민담적 요소의 굴절성

민담은 작품 내적 세계가 작품 외적 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형적 증거가 존재하는 전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담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자아의 우위에서 입각해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민담은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계에 대한 자아의 우위를 전제로 세계에 대한 지배적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⁷²⁾ 그래서 민담

72)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계명대학교, 1974, 38쪽.

은 현실을 초월해서 흥미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민담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술자의 상황이나 심리가 민담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민담의 신뢰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한편, 민담은 서술자의 주관이 크게 들어가 있기에 서술자와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서술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⁷³⁾

이런 점에서 보면 민담이 신화나 전설에 비하여 구분하는 점은 전형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다. 신화나 설화는 과거에 발생했던 이례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을 서술하는 것에 비해 민담은 목가적이고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담은 전설과 비교하여 지형지물과 같은 증거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담이 허구처럼 들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타지적인 면이 필요하다.⁷⁴⁾

민담은 이미 주지하다시피, 해학과 편안함의 느낌을 준다. 본질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방식이기에 유희가 목적이다. 따라서 민담은 세계와 자아의 대결에서 자아의 우연한 승리와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신화와 전설은 사회의 맥락이 주요하게 작용하기에 세계에 더욱 집중되는 방식이다.⁷⁵⁾ 나아가, 민담은 신화나 전설에 비해 주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화나 전설은 증거물을 기반으로 과거의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데 민담은 서술자의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설문대 설화>에서 1960년대 이전에 채록된 자료부터, 최근 2018년 채록된 자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화소를 중심으로 신화적 속성을 지닌 요소들이 흥미 위주의 민담적 요소로 굴절화 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제시했다시피 <설문대 설화>는 파편화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파편화된 이야기로 인해 설문대할망이 신화에서 전설적인 면모를 띠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민담으로 변모했다는 시각도 제시될 수 있다. 신의 영역이었던 천지창조, 지형 형성의 화소가 거인의 배설, 배뇨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설문

73) 김열규 외 7인,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 개문사, 1979, 78쪽.

74) 김열규 외 7인, 위의 책, 79쪽.

75)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계명대학교, 1974, 40쪽.

대할망의 위대한 지형 창조담이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흥미 본위의 민담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또한 <설문대 설화>는 민담의 특징 중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점과 달리,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는 전설적 요소에서 흥미를 본위로 하는 민담으로 변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전설적 요소들의 확장성을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삽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채록 내용을 제시한다.

본래 성산리 앞바다에 있는 소섬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는데, 옛날 설명두 할망이 오조리의 식산봉과 성산리 일출봉에 양발을 디디고 앉아 오줌을 쏘다. 오줌 줄기의 힘이 워낙 세서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소섬(牛島)이 되었다. 그때 흘러나간 오줌이 지금의 성산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줌 줄기의 힘이 워낙 세어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 물개등이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세찬 오줌발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⁷⁶⁾

설문대할망은 워낙 커서 식량(食糧)이 많았고,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쏘는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⁷⁷⁾

위에 제시한 자료는 설문대할망의 배뇨와 배설로 인한 지형형성의 화소이다. 지형 형성은 신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의 위대한 지형 창조담이 시간이 흐르면서 흥미 본위의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흥미 본위의 민담으로 흐르면서 설문대할망이 두 손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화소에서 어느 덧, 설문대 할망의 배설물이 지형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위의 민담 중 우도 유래담은 비속화된 민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우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 바다 가운데에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설문대 할망이 쏘는 오줌 때문이다. 오줌의 양이 워낙 많고 거세어서 강을 이루고, 육지조각이 성산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섬이 된다. 또한 설문대할망은 성산 앞바다에 있는 일출봉과 식산봉에 발을 디디고 앉아 오줌을 누었다. 그래서 깊게 골이 패이

7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문고, 1996, 231쪽.

77)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248쪽.

고, 그 골에는 고래 물개 등이 살만큼 깊어 물살도 세다고 전한다. 이 런 모든 지형형성과 자연현상의 원인은 바로 설문대 할망의 오줌이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긱상망오름’ 역시 거인의 배설물로 생긴 오름이다. 앞서 <설문대 설화>의 ‘신화의 과편성’을 다룰 때, 한라산을 설문대할망이 만들었고, 흙을 나르던 치마의 틈새에서 흙이 새어 나와 오름이 되었다고 했고 이런 화소들이 지형창조, 즉 신화적 요소라고 고찰했었다. 제주의 한라산과 제주의 수많은 오름이 생겨난 연유는 설문대할망의 의도된 행동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창조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의 오름을 만들려고 했다는 능동적인 의도로 보이는 채록본은 없지만, 한라산을 창조하려고 하는 행위에 수반되어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위의 ‘긱상망오름’이 생겨난 연유는 설문대할망의 의도적인 행위 뒤에 수반되는 증거물이 아니다. ‘워낙 거구였다. 그래서 먹는 양도 엄청 났다. 그러므로 먹은 뒤의 똥, 즉 배설물도 거대했고 그것이 바로 ‘긱상망오름’이다.’ 라고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긱상망오름’이 생겨난 원인은 바로 설문대할망의 배설이다. 이 배설은 설문대할망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다. 제주의 오름들이 할망의 한라산 창조행위와 수반된, 창조의 영역에 해당하는 범주라면 이 경우는 의도가 없는 단순한 인간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보통의 인간과 다른 점이라면 훨씬 큰 거구였기 때문에 배설물도 엄청났다. 어느 부분에서도 창조 신격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오줌의 세기와 더불어 거대한 양을 강조하는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창조담이 희화화된 민담으로 변이된 형태에 해당한다. 설문대할망의 배설과 배뇨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가 생긴 민담의 예는 최근에 채록된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의 ‘전설의 확장성’에서 언급한 52번 자료와 동일하다. 중요 화소만 간략하게 옮긴다.

1) 52번 자료 중 일부

<조사자>: 어릴 때 혹시 들어났우과?

<제보자>: (전략)…설문대할망이…(중략)… 어떻게 컷인디 디 한라산 발 흔 짝

올라난 디가 거리 물 끌르고 성산오름 한 쪽 놓은 디가 그 디가, 오
름이 돼고 산굼부리엔 오줌 싸부난 그 물 고인 거랜.

<조사자>: 산굼부리가 마씨?

<제보자>: 경 호고 대변 본 거는 저기 송악산이고, 닭을 거 엇이난 들 하나
십어 닭아난 게 산방산 이주.⁷⁸⁾

앞의 ‘굿상망오름’의 화소와 동일하다. 한라산의 백록담에 물이 고인 이유와 성산오름의 지형형성의 화소가 있는 전설적 요소의 증거담이다. 이 전설적 요소와 더불어 설문대할망의 배설과 배뇨 화소가 들어있다. 제보자의 지역적으로 가까운 산굼부리에 고인 물의 원인이 할망의 오줌이라고 했고, 송악산은 할망의 대변이라고 구술했다. 더 나아가 산방산 꼭대기의 돌로 용변을 보고 난 뒤, 뒤처리를 해결했다고 하고 있다. 이런 화소는 앞의 ‘굿상망오름’의 자료처럼 신화가 전설, 전설이 민담, 신화가 민담화 하는 형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총체적으로는 <설문대 설화>에서 민담의 굴절성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설문대하르방이 설문대할망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할망은 하르방에게 한라산꼭대기로 같이 가자고 하고 제안했다.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똥을 싸면서 나무를 막 두드리면서 오줌을 작작 갈기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멧돼지, 노루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자 동물들이 막 도망갔는데, 마침 비바람을 피하려고 누운 할망의 음부(陰部) 속으로 숨어서, 그것들을 잡아서 일년 반찬을 해 먹었다.⁷⁹⁾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이 바닷고기들을 잡아 먹으며 살았는데 원체 거인이라 생계를 이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할망이 하르방에게 소섬(牛島) 옆으로 가서 고기를 좀 몰아오라고 제안했다. 하르방이 우도 옆으로 가서 고기를 섭지코지쪽으로 몰자, 섭지코지쪽 바다에 앉았던 할망이 하문(下門)으로 그물을 치듯이 에워 잡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다.⁸⁰⁾

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2017, 355쪽.

<제보자: 2017년 11월 2일 표선면 가시리 오국현, 남, 1935년생>

79)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0쪽.

80) 오성찬, 『제주의 마을 시리즈』 5, 반석, 1987.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이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져 고민을 하다가 하르방이 제안을 했다. 할망에게 섭지코지에 가서 속옷을 벗고 들어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고 했다. 할망은 하르방이 시킨대로 섭지코지에 가서 앉아 있었다. 하르방은 하도(北濟州郡 舊左邑 下道里) 아래 소섬(牛島) 동쪽으로 가서 갈대 길이 세 배 만큼 큰 자지로, 쟁기로 밭갈이하듯이 바다를 가며 고기를 쫓으니까 고기들이 할머니 하문(下門)을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가 하문을 잠그고 물밖으로 나와서 요기를 했다.⁸¹⁾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하르방과 더불어 거대한 성기를 이용하여 사냥, 고기잡이를 하는 자료이다. 이 사냥 · 고기잡기는 흥미 위주로 민담화한 가장 대표적인 행위담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거대한 하문(下門), 음부(陰部) 즉, 거근을 이용해서 사냥해서 먹는 것은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의 생식력은 음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은 음문을 통해 후대를 생산한다. 따라서 여성의 생산력이 응집되어 있는 기관은 음문이다.

사냥은 수렵시대에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생존을 했다. 거대한 설문대할망의 음문으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고, 또한 설문대하르방과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묘사는 이를 통해 여성이 풍부한 생산력에 더불어 먹을 것도 비옥해지길 기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사냥 · 고기잡기 화소의 각 편에는 설문대하르방이 함께 등장한다. 이런 점은 전체 <설문대 설화>에서 유일하게 할망의 남편인 하르방이 등장하는 유일한 행위담이다. 또한 사냥, 고기 잡기의 행위가 설문대하르방에 의해 함께 혹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더구나 설문대할망의 거대한 음문에 걸맞게 설문대하르방의 성기도 갈대 길이 세 배 만큼 크다. 설문대하르방이 자신의 거대한 성기로 쟁기로 밭갈이하듯이 고기를 몰았고, 몰려온 고기를 설문대할망의 음문으로 들어갔다는 행위는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신성함은 사라지고 생산력의 증거를 입증하는 거대한 성기로 행해지는 과정은 희화화되고, 웃음이 터지는 민담화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81) 김영돈·현용준·현길연, 『제주설화집성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705-706쪽.

이런 민담의 굴절 과정에서 설문대하르방의 등장은 좀 더 극적이고, 흥미를 돋우는데 필연적인 민중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연구자가 민담의 굴절이라고 서술했듯이, <설문대 설화>에서 발견하는 화소 중에서 유일하게 설문대하르방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변이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설문대 설화>에서 ‘連陸橋 놓기’ 즉 ‘다리 놓기’의 화소는 앞서 ‘신화적 요소의 파편성’ 부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다리놓기의 댓가인 속옷 한 벌의 대립을 다리놓기 실패담으로 단정 짓지 않고 신화적 요소로 해석하는 견해도 고찰했었다. 이는 백성들이 설문대 할망에게 속옷을 바치는 신화적 제의의 상징성을 띤다고 하고, 무속제의에서 신들의 내력이 무가의 형태로 불려지는 제의과정에서 복식과 옷감을 신들에게 바치는 형태로 본 점을 살펴 보았다.⁸²⁾

다리 놓기 실패담도 앞선 언급했던 <설문대 설화>의 특성처럼, 신화, 전설, 민담의 성격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화소이다. 의복을 바치는 공물(貢物)으로써 제의의 흔적으로 보고 신화의 성격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실패담과 증거물들이 있어 전설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리놓기의 종착지가 육지라는 불특정지역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완도, 진도, 목포까지 확장되다가, 2018년 채록본에는 일본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확인하였다. 신화, 전설적 요소와 더불어, 다리놓기의 댓가인 의복 중에서도 속옷이라는 점이 민담으로 굴절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다리놓기 화소는 유형담 중에서 제주도 전역에서 최다 채록되고 있음은 본 논문 앞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제주민에게는 상징적이고, 육지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은 소망과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실현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면서 지역에 맞게 변이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다리놓기 실패담에서, 다리 놓기의 대가로 속옷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채록본이나 자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화소이다. 앞에서 다수의 채록본과 자료를 언급하였기에 본 장에서는 1960년대 이전 채록본과 가장 최근에 채록된 2018년 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60년대 이전 채록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채록본이다.

82) 앞의 ‘신화의 파편성’에서 언급한 권태효의 논문이다.

명주 明紬 백통을 모아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기에 도내의 명주를 전부 모았더니 99통밖에 못돼서 못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할망도 다리를 놓아 주다가 말았다. 그 놓다가 만 다리가 지금 한림 翰林 앞 바다에 있는 긴 곳이[岬]이다.⁸³⁾

다음은 2018년 채록본이다.

<조사자>: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마씀?

<제보자>: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 나 소중기 하나 만들어주면 일본과 한국을 다리 놔주켄. 소중기라고 해녀들 입는 거 잇지이? 근디 천 엇어부난 소중기 못 만들앗주. 할망이 얼마나 컷인디 그거 허리에 하는 거 하나 못 만들언.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리도 놔주켄 헛인디이.⁸⁴⁾

위의 두 채록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다리 놓기(連陸橋)의 대가는 설문대할망의 속옷이다. 이성준은 원래 속옷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신적 믿음의 존재였던 설문대할망이 신성성의 약화와 더불어 민담화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화 소화 되었다고 했다.⁸⁵⁾ 앞의 1960년대 이전 채록본 속옷의 재료는 명주이다. 그 이 대부분의 채록본에서도 명주 혹은 명쥐 즉 명주로 그 재료를 말하고 있다. 그 중 명주를 재료로 할 수 없는 갈중이, 옷의 허리, 2018년 이후의 채록본에서 해녀들이 입는 소중기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설문대할망에게 다리 놓기의 대가로 만들어 주는 속옷의 재료가 명주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망에게 다리 놓기의 대가로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시 제주에서 가장 비싼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바치는 것이었다. 이런 점은 앞에서 이성준이나 권태효의 논문에서 제의를 바치는 흔적이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겉옷과 속옷은 문명화된 현대 이전에는 동일한 의복의 개념

83)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제보자: 한림읍, 이씨(여), 62세.>

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3, 2018, 282쪽.

<제보자: 2019년 10월 17일 서귀포시 강정동 정순희, 고정열, 여, 1935년생, 1937년생.>

85)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연구」, 『국문학보』 11,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9, 72-73쪽.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고, 신성성을 잃고, 풍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옷으로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명주라는 재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민담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다.

- 설문대할망에게 바치던 신의(神衣)였다.
-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속옷으로 바뀌었다.
- 제의(祭儀)의 흔적으로 여전히 명주라는 최고급 옷감 재료는 남아 있었다.
- 여성의 음부를 가리는 속옷을 강조하며 민담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속옷이었을까. 현대에 들어서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속옷의 기능은 확실해졌다. 추위를 피하고 몸을 보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생식기를 가리는 목적이다. 생식기를 보호하는 기능에서, 점차 성(性)을 언급하는 것이 도덕적 관점에서 불경스럽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신성한 음문(陰門)의 개념은 점차 풍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의식의 저변에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세속화된 상황에서 설문대할망의 속옷은 민담으로 굴절되는 변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설문대 설화>의 활용 현황과 제언

1. 신앙적 활용 양상

<설문대 설화>는 제주도의 토착 신앙인 당 신앙에도 다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서는 표선면 당캐할망당 신앙이다. 당캐는 당나라 배가 오가던 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캐 포구는 어선 50여 척이 드나드는 포구로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다. 당시에는 당두리배를 이용하여 고기를 낚고 육지로 내다 파는 일도 하였다. 먼저 당캐 할망당에 전하는 신앙 양상을 다음의 채록 자료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제보자1] 당캐 알아져? 동네 이름인디.

[조사자] 예.

[제보자1] 지금 민속촌하고 해비치호텔 잇인디. 거기 바당하고 가깝운 데난, 거긴 수시로 도체비도 나오고 구신도 나와. 계난 우리 마소왕 거기 멧기지 못해났어.

[제보자2] 당캐란 말이 당이라고 하면 무당이라 뭐라 하논디 그게 아니고 옛날에 당나라에서 무역선이 여기 와났어. 여기하고 산지향이랑 배가 들어와났어. 나라 당자를 써서 당이라. 당나라에서 배 풍선으로 와났어. 그래서 당캐라. 캐는 바당이라는 뜻이라. 그땐 새, 지붕 엮으는 지푸라기를 수출했거든.

[조사자] 지푸라기에.

[제보자2] 여기 사람들은 할망당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어디 나갈 때 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해서 당이 있어부난 당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보자1] 거기 당캐할망 있어. 당캐할망. 당캐할망 해났주. 해녀들이나 풍선 나갈 때 거기서 제 지내고 나가났어. 그러면 안전하고

[조사자] 예.

[제보자1] 제 지내며 전복, 소라 많이 잡게 해달라고 제 지내났어.

[제보자2] 지금도 있어. 옛날에는 짚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리에서 잘 만들어놨어.⁸⁶⁾⁸⁷⁾

표선면 표선리 해양경찰파출소 부근에 고즈넉한 기와집이 있다. 그곳이 당캐할망 또는 세명주할망이라는 여신의 좌정처, 즉 신당이다. 당캐할망은 달리 세명주할망(설맹디할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세명주할망은 하로영산(한라산)에서 나타난 풍신으로 어부와 잠수를 수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삶의 근간인 해상 안전 전체를 지키는 여신이다. 어부와 잠수부들이 드나들며 제를 올리기에 당집은 웬만하면 열려 있다. 소지나 지전을 태운 연기가 당집을 둘러싸는 경우가 많다.

당캐할망 이야기는 <설문대 설화> 속의 이야기와 공통적인 화소로 구전으로 전해져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명주할망은 바다를 메울 생각을 하고 남초곶의 나무들을 베어다가 바다에 넣었는데, 이 시기에 표선 마을 모든 집의 도끼와 소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보니 바다는 모두 메워졌는데 집에 보관되어 있던 도끼나 괭이와 같은 도구들의 날이 모두 무더지고 소들은 등이 터지고 벗겨져 있었다고 한다. 멸치잡이를 하던 어장은 백사장으로 변하였고 이 백사장에서 까맣게 탄 나무 등걸이 있다고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치마통으로 흙을 나르며 오름을 만든 <설문대 설화>와 비슷하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세명주할망의 다른 이름은 설맹디할망이라고 한다. 설맹디와 설문대 발음 역시 유사성을 띤다. 따라서 세명주할망이 설문대할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순히 동일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신이라고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대할망과 세명주할망(세맹주할망)이 동일신이라는 채록도 존재한다. 실제로 2004년 여름 구좌읍 송당리에서 세맹주할망이라는 이름으로 설문대 할망이야기로 수집되기도 한다. 제보자는 1932년생의 허순화이다.

<제보자>: 경헌디 드리에 그 저 설문대할망이엔 허연 허염젠 현 말은 들언.

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제주특별자치도, 2017, 477쪽.

87) 이러한 당캐의 유래는 2017년 10월 31일, 표선면 표선1리 표선1리 노인복지회관의 고옥년 씨와 송봉휴 씨가 제보한 바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조사자는 문순덕 씨이다.

<조사자>: 아 드리에서. 아니 거기서 설문대. 드리 저쪽 그 돌박물관?

<제보자>: 으. 경헌디 그게 설문대가 아니고, 옛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을 땐 세멍주 할망, 세멍주할망 해낫주게.

<조사자>: 세멍주할망?

<제보자>: 세멍주할망. 계난 요디 상당히 신기헌 디가 잇어낫주. 이 질 허젠 허난 이 저 그 돌을 완전히 집 높이 가차운 돌을, 세 덩어린 계난 솟덕엔 허연. 그게 그 할망이 그디서 냄비 앓저난 디엔 허메.

<조사자>: 아, 그 동네 이름은 뭐우과? 그 큰 돌 잇어난디.

<제보자>: 시덕앗인빳.

<조사자>: 아 덕이 세 개 앓앗덴 허영?

<제보자>: 그 돌이, 돌도 그냥 그자 귀난 돌도 아니고 둥그런헌 돌이라.완전 둥그런. 둥그런헌 돌이 경 신기헌 그 돌이 춤 유명헛주. 그 돌이 서민 유명한 돌이주게. 그 할망이 이제이 오름도 탕기명 흑 혼 갈래죽 거려논 게 오름이 경 뉘 거다고 헤. 육지허곡 제주허곡 드리를 놓아 줍센 허난 이제 멩지를 아흔아홉 빌을 들연에 이제 헌디. 처지헿 게 죽안.

<조사자>: 으. 처지는 뭐우과?

<제보자>: 처지엔 허민이 속웃이 영 허영근에이 영허영 이것도 큰 것 영허영 오 그리게 뉘 거주게. 그리민 이거는 베 가는 디가 뉘고 이디는 가달이 되는 거라. 영허민 처질 크짱허게 뉘어야 헿 거 아니라. 이제도 속곳은 계속 벌막작 돌곡 해낫주게.

<조사자>: 벌막작?

<제보자>: 벌막작도 들앙 속곳을 멘들아. 옆의는 벌막작을 돌아서. 이 속곳을 허 당도 이디 처지 이디 헿게 아흔아홉 빌을 들어도, 아흔아홉 동 들어도 처지를 못헤연 내부난 육지허고 제주허고 드릴 못 낫젠 허민. 계난 할망이 진짜 유명한 할망이주. 머리가 쉬은 대 자간 무신 멧 자고 우린 계속 들어신디. 이거는이 옛날 사름들이 엇어부난 설문대할망이여. 우리는 어린 때부터 들은 게 세멍주할망. 송당에 그디는 시덕앗인빳. 시덕이 진짜 유명한 돌이 잇어낫지. 그 돌이 서신디 진짜 유명한 거주게. 그 돌이 어디 가불곡 어떻게 부수닥질 헤부럿주.

<조사자>: 거기서 그 세멍주할망이?

<제보자>: 냄비 앓전 뉘 꿇여 먹어낫다.

<조사자>: 아. 시덕앗인빳. 지금도 잇어예?

<제보자>: 시덕앗인빳은 지금도 잇주. 빳이름이 시덕앗인빳. 그 질허곡 시덕 앓인 디가 이거는 질이민 이만이 허게 시덕을 앓져젓주게. 경헌디 그냥 질 을 늘르젠 허난, 옛날은 질을 늘르젠 허난 시덕앗진빳이 다 들어간. 그 런 옛날 전설이 상당히 중요헌 거라.⁸⁸⁾

위의 ‘세명주할망’ 설화를 보면, ‘세명주할망’은 흙 한 ‘갈레죽’(나무로 만든 삽) 떠놓은 것이 오름이 되고, 육지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속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명주 아흔아홉 필을 들였지만 ‘치지’할 부분이 부족해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줄거리로 보아 오늘날 전해지는 ‘선문대할망’ 이야기의 화소와 동일하다.⁸⁹⁾

“웃손당 금백주 셋손당 세명주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아기 열여덟 딸아기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일흔여덟. 이 말은 웃손당(上松堂里)의 신은 금백주이고, 셋손당(中松堂里)의 신은 세명주이며, 알손당(下松堂里)의 신은 소로소천국”⁹⁰⁾

위의 내용으로 볼 수 있듯이 ‘세명주할망’은 구좌읍 중송당리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세명주할망, 설맹디할망, 세명뒤할망, 당캐할망이 설문대 할망 전설과 화소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신앙민이 이들을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할망이 설문대할망의 별칭이라는 점으로 파악한다면 무속신앙으로 변모양상을 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측과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객관성 있는 자료의 발굴이 필요한 점은 너무도 명확하며, 앞으로 연구자의 몫이어야 한다.

88) 김순자,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98-299쪽.

89) 현용준(1976)은 『濟州島傳説』 19에서 선문대할망 이라는 제목으로 18개의 관련 이야기를 채록해 소개하고 있다. 1974·75년에 채록된 ‘선문대할망’은 구좌 김녕, 제주시 노형, 성산 시흥, 성산 고성, 안덕 화순, 표선, 한경 고산 등 7개 지역에서 수집된 것으로, ‘선문대할망’ 4회, ‘설명두할망’ 5회, ‘설문대할망’ 2회, ‘마고할망’ 2회, 별칭으로 ‘세명뒤, 췌맹디, 설명대, 설명지할망’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할머니’라고 해놓고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도 5차례나 되었다. ‘할머니’라고 쓴 경우는 한 제보자가 여러 유형의 이야기를 전개할 때 사용하여 이름이 생략된 경우다. 현용준은 18개 유형의 이야기 주인공 대표 이름으로 ‘선문대할망’을 내세웠다.

90)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교보문고, 2005, 200쪽.

또한 이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민의 신앙 관념 속에서 대지모신의 성격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제주의 사찰에 산신각 혹은 삼성각에 설문대할망의 위패가 모셔져 있거나 재례 의식에서 숭배나 기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한라산 영실 존자암⁹¹⁾ 산신각에 “한라산창조 女神 설문대 山王大神”으로 위패에 모셔져 있다. 존자암의 산신각내의 탕화에는 하얀 수염과 지팡이를 짚고 하얀 부채를 든 남자 신선의 모습으로 산신이 그려져 있는데 위패의 “설문대 山王大神”이 이질감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이는 탕화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설문대 할망이 제주민에게는 한라산 창조여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행해지는 한라산영산대제⁹²⁾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매해 행해지는 한라산 영산대제의 재례상에서 “耽羅開闢 설문대할망 神位”라는 위패를 모셔 제례를 지내고 있다.

91) 존자암은 『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의 문헌에 나한을 모셨던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제주도의 절. 한라산 해발 1280m 지점 속칭 ‘불래오름’ 중턱에 존자암터만 남아있다가 2002년 11월 복원되었다. 지난 91년째부터 제주지역의 불교계와 향토사학자 등은 한반도의 불교문화가 제주도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존자암’이다.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에 “부처님의 16존자(제자) 가운데 6번째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탐몰라주는 제주의 옛 이름이고 절터가 남아 있는 존자암은 당시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존자암터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때 건물지, 부도, 배수시설과 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1998년부터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2002년 11월 완공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존자암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92) 한라산 영산대제는 탐라국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풍운뇌우제와 제주 지역 각지에서 행해졌던 각종 제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현대적으로 복원하여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재현하는 불교 의식이다. 영산회상은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 회상을 오늘날에 재현시킨 장엄한 불교 의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한라산 영산대제로 발전하였다. 한라산 영산대제에서는 참가한 사람들의 부모, 조상 등의 영가와 유주무주 영가는 물론, 4·3사건 원혼들의 영가를 천도시키고, 기원제 및 경신 공양제를 베푼다. 모든 제례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거행되었던 제주도의 민속 신앙 제례로서, 관과 민중들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나라를 지키고, 향토를 애호하는 마음이 모여 거행된 의식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문화와 향토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일제가 미신이라는 오명을 씌워 금지시켰던 것을 2000년부터 다시 봉행하였다. 제주 지역 사회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제주도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한라산 영산대제는 제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해원시키는 평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라산 영산대제 [漢羅山靈山大齋]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진2] 한라산 영실 존자암내 산신각 탕화



[사진3] 한라산 영실 존자암내 산신각 설문대할망 위패

물론 이들 사례가 제주도 전역의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서 전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창조하고 탐라를 개벽했다는 제주민의 의식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산신각은 불교가 유입되고 토속신앙과 습합되는 과정을 거쳐 그곳에서 산신을 모시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제주에서는 이 산신각에 그

산신이라는 대상이 제주민에게 친숙한 설문대할망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 제주 전 지역의 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지만 이질감 없이 쉽게 제주의 사찰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한라산 영산대제에서 설문대할망은 탐라를 개벽한 신격으로 숭배와 기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설문대할망은 여러 과정으로 변모하면서도 제주민의 정서와 의식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활용현황은 단편적으로 관찰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더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연유로, 어느 시기부터 제주의 사찰에서 수용했는지를 정확한 자료와, 무가의 본풀이처럼 내력담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는 앞으로 본 연구자가 위의 표선면 표선리 당캐할망 신당의 경우처럼 많은 현장방문과 답사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부분이다.



[사진4] 관음사의 한라산영산대제 제례상과 위패



[사진5] 한라산영산대제 제례상의 설문대할망 위패(왼쪽에서 네 번째)

또한 이런 <설문대 설화>가 지닌 화소를 차용하되, 제주돌문화공원 내 마련된 ‘설문대할망당’과 ‘설문대할망제’에서 구연되는 <설문대할망 본풀이>⁹³⁾를 빼놓을 수 없다. <설문대할망 본풀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별왕이 떨어뜨린 해와 달이 바다위에 떠서 흐르다가 제주 섬이 된다.
- 2) 천지가 만들어지고, 설문대할망이 탄생하여, 한라산을 만들고 오백장군을 낳는다.
- 3) 할망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 했고, 멩주 한 필이 모자라 옷이 완성되지 못하고 다리놓기도 실패한다.
- 4) 할망은 자신의 키를 자랑하다 물장오리에 들어갔다가 빠진다.
- 5) 할망은 오백 명의 아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빠져 죽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자책하고 울다 바위로 굳어 버린다.
- 6) 할망은 죽어 표선리 한 모살 당캐 해녀와 어부들을 지켜주는 당신(堂神)이 된다.

이 <설문대할망 본풀이>에 대해 정진희는 ‘설문대할망’이라는 신격(神格)의 변천사에 관한 노래라고 했다. 창조신의 속성을 지닌 거녀에서 물장오리에 빠진 후 한라산의 산신이 되고 백록담이라는 거대한 죽술에 빠지면서, 아들들에게 한

93) <설문대할망제 본풀이>는 2008년 ‘설문대할망제’에서 문무병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제주돌문화공원 출판기획팀 편, 『2008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설문대할망제』 10-11편, 2008.에 전체 내용이 실려있다.

라산을 맡기고 당신이 된다. <설문대할망 본풀이>는 신격의 본풀이 즉 신화라고 할 수 있으며, 설문대할망의 신격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였다.⁹⁴⁾ <설문대할망 본풀이>는 물론 설문대할망당의 존재는 현대에 <설문대 설화>를 신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 한 활용물이라 할 수 있다.



[사진6] 설문대할망당 전경



[사진7] 설문대할망당 입구 표석

94) 정진희, 위의 논문, 239-240쪽.



[사진8] 설문대할망당제(1)(2022년도)



[사진9] 설문대할망당제(2)(2022년도)



[사진9] 설문대할망당제 중 <본향뚝>(2022년도)

2. 문화콘텐츠 활용 양상

<설문대 설화>의 가치는 문화원형의 이유로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설문대 설화>가 가진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현재 활용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의 캐릭터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의 감성유전 인자로 세계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의 실재로 감동을 줄 수 있다.⁹⁵⁾ 또한 보편적인 어머니 신의 이미지를 지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문화가 삶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문화 감성 시대에 과거 신화 캐릭터를 새롭게 바꾸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감성 시대에 과거 신화캐릭터를 새롭게 소통하는 방식이다.⁹⁶⁾ <설문대 설화>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양상으로는 연극, 영화, 등의 공연예술과 설문대할망을 모티브로 동화 등의 출판물로 발간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먼저 영화 <지슬>⁹⁷⁾로 유명한 오명 감독이 대표로 있던 제주도 문화예술창작

95)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19호, 국문학회, 2009, 229쪽.

96) 이창식, 「신라인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온지논총』 23집, 온지학회, 2009, 7쪽.

집단 자파리연구소의 가족창작극 <죽쭉는 할망>을 들 수 있다. <죽쭉는 할망>은 2011년 12월 간드락 소극장에서 초연한 연출 오경현, 출연 고은의 작품으로 제목에서 그 의미를 짐작 할 수 있듯 500명의 아들에게 먹일 죽을 거대한 솥에 쭉다가 그 안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의 설화에서 모티브로 따온 연극이다. 설문대할망을 소재로 자파리연구소가 지향하는 기발한 상상력의 더해졌고, 모래 그림과 익살스런 인형극, 코믹 마임등의 장치를 더한 1인극이다. 제주 섬을 옮겨 놓은 무대 위, 한라산에 걸터 앉아 빨래를 하고 사람들의 소원대로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는 모습이 할머니에게 전해 듣던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구수한 제주어로 연기한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자작곡들을 포함시켜 특유의 유쾌함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구 어린이문화예술학교)에서 주관한 극단 사다리의 연극 <할망>도 설문대할망의 설화를 모티브로 한 어린이 연극이다. 큰물이 난 뒤 인류가 탄생하는 과정을 제주 설문대할망과 강화 마고할미 설화를 주요 모티브로 하여 2010년 5월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초연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공연을 만들어가는 체험형 공연으로, 어린이들이 연주하는 소리장난감은 말이 되고 새가 되고 비를 내리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이 세상을 만든 건 할망으로 현대화로 인해 환경오염에 시달리는 현대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할망’이 되어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또한 제주 연극인들이 만들어 낸 <섬에서 사랑을 찾다>(한윤섭 작, 김성노 연출)는 제주로 유배 온 선비 조정철과 제주 소녀 홍윤애의 슬픈 사랑을 다룬 연극이다. 2018년 11월 제주시가 추진한 제주소재 창작연극 개발사업 선정작으로 제주연극협회 소속극단이 모여 만든 작품이다. 이 연극에서는 조정철과 홍윤애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작품 속에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를 삽입하여 보다 제주다움을 소재로 하여 현실감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머니의 이야기 치마>(장정인 작, 성민철 연출)는 인형극이다. 제주를 창조한 할망이 이야기를 보따리를 꺼내면서 시작하는데, 설문대할망을 작품의 큰 줄

97) 오명 감독, 2012. 3. 21. 개봉한 제주 4.3사건을 다룬 영화. 제주의 배우들이 제주어를 사용하여 현실감있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4.3의 진실을 알린 영화.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의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기로 삼았다. 2019년 5월 초연한 작품으로 인형극의 특성상 어린이가 주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나 구성은 연령을 막론하고 묵직한 울림이 있다. 설문대 할망을 통해 넘치는 쓰레기와 환경파괴로 신음하는 제주도를 치유하는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가 안고 있는 개발주의와 사회문제를 치유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의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영화 <설문대할망 큰 솔에 빠져 죽다>(김경률작, 김경률연출)은 독립영화로 2001년 창작된 작품이다. 세계화·정보화라는 큰 물결에 떠밀려 한국 사회, 혹은 제주의 정체성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난감한 문제를 영화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영화는 석범, 애란, 창준, 소연 등,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현대 사회에서 소시민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떠밀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설문대할망이 죽술에 빠져 죽는 설화를 차용하여, 그 감정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영화는 제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비디오 독립영화로서 일종의 실험영화로서의 의의는 있지만, 그 한계로 인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설문대할망을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설화가 영화 속에 차용되는 부분이 적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고훈의 자신의 장편 영화 <어멍>을 그의 논문을 통해 ‘제주 여성’으로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⁹⁸⁾ 고훈은 그의 논문에서 설문대할망의 설화에서 여성의 진취성과 적응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설문대할망이 제주도과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나섰다가 명주 1동이 부족하여 그만둔다는 다리 놓기 실패 화소를 예로 들면서, 설문대할망의 다리놓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제주 섬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하였다.⁹⁹⁾ 또한 그는 설문대할망이 섬을 만드는 노동과,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후대 제주 여성의 노동력과 그 질량에 맥이 닿는다고 보고, 물질적 궁핍함을 설명하는 설정은 실제로도 넉넉하지 못했

98) 고훈, 『제주여성성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99) 고훈, 위의 논문, 12-13쪽.

던 예전의 제주 생활의 한 양상을 대변하며, 이는 농경사회가 제주에 정착되기 이전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계중심(母系中心)으로 꾸려지던 제주 인류사회의 일면이 설문대 신화 등 제주 여신에 기호화 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었을 행적으로 파악했다.¹⁰⁰⁾ 하지만 그가 그의 논문에서 스스로 밝혔듯, 제주 여성성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라고 밝힌 그의 의도대로 자신이 직접 만든 영화 <어멍>에 과연 설문대할망이 지향하는 바가 제대로 드러났는지는 의문이 든다. 주인공 ‘숙자’의 모습에서 그의 논문에서 밝힌 <설문대 할망 설화>를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작품 속 대사 중에서 직접 설문대할망을 등장시키는 장면이나, 다른 장치를 통해 한층 작품이 의도하는 바를 연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문대 설화>가 가지고 있는 화소의 다양성은 특히 동화의 소재로 무척이나 흥미로운 요소이다. 창세신의 성격이나, 한라산, 오름 등 지형창조의 화소 등은 동화로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느끼게 하여 아동문학가들의 소재로 삼아 왔다. 동화의 정의가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이야기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화가 옛날이야기·민담(民譚)·우화(寓話)·신화(神話)·전설(傳說) 등과 같은 설화의 종류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재구성, 고치거나 또는 그러한 특징을 동화라는 형태 속에 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화가 지향하는 것은 종래 있어 온 단순히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의 재구성이라기보다는 시 정신(詩精神)에 입각한 인간 보편의 진실을 상징으로 표현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¹⁰¹⁾ 이러한 점에서 <설문대 설화>는 동화로 재탄생하는데 아동문학가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하는데 적절했을 것이다. 관련하여 <설문대 설화>의 주요 화소를 모티브로 동화 혹은 이야기책으로 구현한 작품들은 표로 정리해 보았다. 밑의 표에 동화가 아닌 작품들도 있으며 편의상 같이 정리하였고 각주로 처리하였다.

작품명	작가	주요화소,내용	출판사	출간년도	비고
시와 노래가 있는 옛이야기 그림책	김장생	천지창조 지형형성	한솔교육	1999.4.13.	

100) 고훈, 위의 논문, 13쪽.

101)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83, 121쪽.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탐라창조여신-	장영주	제주창조 지형형성 다리놓기 실패 거구	글사랑	2009.5.20.	
설문대할망 -송재찬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설화-	송재찬	거구 천지창조 지형형성	봄봄	2007.12.15.	
설문대할망	임어진	거구 천지창조 지형형성	해와나무	2013.01.30	7편중 하나
설문대할망	김정희	거구 지형형성 오줌누기 우도만들기	을파소	2013.11.25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¹⁰²⁾ -우리의 창세여신 설문대 할망이야기-	고혜경	거구 천지창조 지형형성 신화원형분석	한겨레출판	2011,3,30	동서양 고대 신화속 여신들과 비교, 설문대할망 재조명
설문대 할망 -제주도 최초 설화동화연구-	장영주	거구 천지창조 지형형성	책과나무	2017.7.25	설화집 중 수록
설문대할망 손가락	문무병	거구	알렙	2017.10.31	거구임과 동시에 외로움을 느끼는 설문대할망 재조명
조곤조곤 제주신화 ¹⁰³⁾ -천지왕부터 설문대할망까지 우리신화로 배우는 문화창조이야기-	여연	거구 천지창조	지노	2018.10.22	제주신화 속 여신 이야기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설문대할망	장영주	제주 창조 지형형성	도서출판 영주	2018,11,16	e- Book
설문대할망 길따라	장영주 외	지형형성 흔적정리	도서출판 영주	2019.7.9	e- Book

제주전래동화 설문대할망	장영주	지형형성	도서출판 영주	2021.9.24	e- Book
설문대할망은 누구인가?	장영주	천지창조 지형형성	도서출판 영주	2022.5.09	e- Book
설문대할망은 언제 왔을까?	장영주	유래담	도서출판 영주	2022.5.9	e- Book
설문대할망은 무엇을 했을까?	장영주	행위담	도서출판 영주	2022.5.11	e- Book
설문대할망은 왜 했을까?	장영주	의미부여	도서출판 영주	2022.5.6	e- Book
설문대할망은 어떻게 했을까?	장영주	의미부여	도서출판 영주	2022.5.9	e- Book
설문대할망 유튜브 주인공되다	장영주	현대식으로 재해석, 새로운 시도	도서출판 영주	2022.5.20	e- Book
설문대할망 언론사 주인공되다	장영주	현대식으로 재해석, 새로운 시도	도서출판 영주	2022.5.25	e- Book
설문대할망 논문 주인공 되다	장영주	현대식으로 재해석, 새로운 시도	도서출판 영주	2022.5.26	e- Book
설문대할망 디카에세이	장영주		도서출판 영주	2022.5.29	e- Book
설문대 할망마춤 일어납서	장영주		책과나무	2022-11.5	

[표5] <설문대 설화>의 문학 콘텐츠 목록

우선 동화의 특성상 그 책을 읽는 대상이 주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흥미를 끌 만한 신화적, 전설적인 화소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천지창조 화소나, 지형 형성, 한라산을 만든 거구의 화소는 어린이 독자가 무한한 호기심과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여 작가들이 집필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제주돌문화공원에서 2007년부터 기획하고 고안한 <설문대할망 페

102) 이 책을 동화가 아닌 대중교양서로 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자의 편의로 표에 같이 정리하였다.

103) 이 책 역시 동화가 아니라 어린이 교양서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티벌〉에서 설문대할망의 가진 이야기 즉 스토리를 제의와 축제의 형식으로 텔링하여 온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위에서 언급한 “설문대 할망제”를 비롯한 굿 문화제, 워크샵, 음악 공연, 요가와 명상, 전시회, 탐쌍기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그동안 개최된 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우르는 것은 본 논문에서 전부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6년과 가장 최근의 2022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¹⁰⁴⁾ 먼저 아래는 2016년에 진행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표이다.

날짜와 시간	행사명	장소	내용
3.13(일) 09:00-18:00 15:00-16:00	설문대할망 전시관 기공 축원식, 기념행사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제주도민의 안녕과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공적 건립위한 축원행사 주관: 원불교 제주교구
		설문대할망 전시관 예정지	설문대 할망 전시관 건립 예정지 지신밟기 주관: 설문대할망 소리회
4.7(목) 17:-18:00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사업	탱고올레 스튜디오	제1회 국제 즉흥춤 축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즉흥 춤 공연 (주최/주관: 국제 공연예술 프로젝트, 제주돌문화공원/제주국제즉흥춤 사무국)
4.8(금) 15:00-20:30		어머니의 방 물장오리 연못 하늘 연못 설문대 할망 재단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5.1 (일) 10:00-17:00 5.2(월) 09:00-17:00	설문대할망 굿 페스티벌	설문대할망재단	제주도발전과 제주도민 무사안녕기원 주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5.3(화)- 5.31(화)	제2회 “제주를 꽃 피우는 설문대할망” 어린이들의 전람회	오백장군 갤러리 6-7전시실	어린이들의 설문대할망 그림전람회 주관:ASHA-진정한 자기치유예술
5.12(목) 10:00-17:00	설문대할망 워크샵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설문 대(設問 大)? 설문대할망 신화와 모성성, 크게 묻다 주관: 삶의 예술문화원
5.13(금)	설문대할망 평화극	오백장군 갤러리	사전공연-'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104)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일정표는 제주돌문화 공원홈페이지 (<http://www.jeju.go.kr/jejustonepark>) 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고 중요내용으로 축약하여 작성하였다.

14:00-16:00		공연장	세계평화 프로젝트-설문대할망 평화극 '너희 꽃봉오리들아' 주최/주관: 세계평화프로젝트 극단 〈The Moon〉 후원: 세계여성평화그룹
5.15(일) 10:00-12:00	설문대할망제 식전행사	주차장에서 설문대할망제단	주차장 입구 설문대할망 돌손 앞 집결 맨발로 성곽 위 지나 매표소 앞, 전설의 통로 지나 설문대할망제단 앞까지 행진 주최/주관:제주돌문화공원
5.15(일) 10:00-12:00	설문대할망제 본행사	설문대할망제단	2016 설문대할망제 강연과 제의식 -제주섬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의 거 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림 -설문대아리랑 소리 및 무용공연 -궐근(고사리뿌리)죽 맛보기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5.15(일) 10:00-17:00	설문대할망 그림치유	신화의 정원 2코스 숲길	공원 내 숲길에서 자연물을 활용하여 '만다라'작업 협동작업 주관: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5.15(일) 12:00-17:00	'설문대할망 스스로 되기'공연	설문대할망제단 주변	'설문대할망제'와 '스스로 춤'이 공유하 는 자연,모성,영성, 치유의 주제하에 이를 각각의 형식으로 구성표현함 -설문대할망 상징 조형물 제작 -관객 함께 하는 서클댄스 -스스로 춤 공연 '성 性' 주관: 김기인 춤 문화재단
5.14(토) 18:00-20:30	제2회 제주설문대 국제영상음악제 (주관: 길에서 만난 사람들)	1부: 하늘연못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로 한 영상음악 공연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요가 명상
5.15(일) 18:00-20:00		2부: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소프라노, 바이올린독주회, 대금연주 도민과 관람객이 함께 하는 요가 명상
5.16(월) 18:00-20:00	한국아난다마르가 명 상 요가협회	3부: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명상이야기와 영상음악
5.15(일) 14:00-17:00	제주돌문화 대담프로그램	제주돌문화공원 일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기획의도 설명 명상의 길따라 2.3코스 걷기 우리들의 답 쓰기 주관: 시 하나 노래 하나
4.29(금) -6.28(화)	김두레 展 삶과 꿈, 신화이야기	오백장군 갤러리 1-5 기획전시실	설문대할망 신화모티브와 오방색으로 표현한 작품 전시 주관:돌문화공원
5.21(토) -5.22(일) 09:00-18:00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	제주도일원	돌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제주 설문 대할망 신화지를 찾아 제주역사문화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 1일차: 돌문화공원-제주동부지역

			2일차; 한라산 영실-윗세오름-어리목 주관: 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 람들 운영위원회
6.4(토) -6.5(일) 19:30-21:00	이루마 콘서트 -제주-	오백장군 갤러리 공연장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제주공연

[표6] 2016 제10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프로그램 일정표

날짜와 시간	행사명	장소	내용
5.14(토) 10:00-15:30	'할망신화와 모성성 크게 문다' 세미나	오백장군 갤러 리 공연장	1부 제주와 돌문화공원의 생태영성적의미 의 기초강연 2부 제주돌문화공원 공간이 주는 현재적 의미 토론 주관: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
5.14(토) 19:00-22:00	밤하늘 산책	설문대할망전시 관 옥상야외무대	주제:제주돌문화공원의 아름다운 야 간 환경체험 -빛공해 그림자연극 -가족 별자리그리기 -반딧불이탐사 -설문대할망의 별빛 음악회 -밤하늘 촬영 -별 해설 주관:
5.15(일) 10:00-12:00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제단	-기초강연 -제의식 주관: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
5.15(일) 12:30-16:00	설문대할망당 본향비넴	설문대할망당	주관심방: 김영철
5.15(일) 10:00-12:00	설문대아리랑공연 '설문대할망을 기리다'	설문대할망제단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소리와 음악으 로 재해석하는 설문대아리랑공연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제주의 아픈 역사, 제주인의 삶과 아픔을 제주소 리와 다양한 악기로 연주 -크나 큰 설문대할망 사랑의 그리움 -설문대할망이 만든 이 섬에 문화의 꽃이 피다 -제주의 아픈 역사 그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위로의 음악을 울림

			-제주의 노동요와 제주민요를 재 각 색한 소리와 음악연주 총괄연출: 설문대아리랑 보존회
5.15(일) 10:00-13:00	제주전통차 및 다식체험	설문대할망재단	-다도의 예를 배우는 시간 -전통차의 종류, 차 만들기 체험 -차 내리기 체험 -전통차 마시기 및 다식체험 -차와 함께 하는 명상 체험 진행; 제주차인회 회원
5.13(금) -5.15(일) 5.15(일) 14:00-15:30	설문대할망 시화전& 시낭송 '설문대의 치마폭에 꽃으로 피어'	하늘연못 옆 야외무대	-시화 전시 -시낭송회 -닫는 음악: 클래식음악연주
5.15(일) 16:00-16:30	스스로 춤: 스스로 - 되기 (Becoming Oneself)2022 '모음'	설문대할망 제 단 옆	제주를 낳고 품고, 키운 설문대할망 의 숨결이 깃든 제주시인들의 언어와 우 주적 모성성을 화두로 한 스스로춤의 몸짓이 어우러지면서, 제주시헌에서 출발해 모든 인간의 내면으로 번지는 한 판의 춤 마당을 펼쳐 보임 -여는 시 -맺는 시 -'모음'공연 -공연 2, 춤추는 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진행: 김기인 춤 문화재단 이사
5.15(일) 17:00-19:00	춤추는 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늘연못 옆 석부작 전시장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돌문화공원의 하늘연못과 푸 른 잔디 위에서 물의 움직임, 곧 파동의 움직임을 찾아가는 시간 -나의 물 -나의 바람 -주관: 스스로 춤모임
5.17(화) 14:00-16:30	제주돌담의 보전 및 전승 방안 학술세미나	오백장군 갤러 리 공연장	주제발표 1.강정효 (사진가) -제주돌담의 의미와 보전방안 2. 김병기(전북대교수) -제주돌담의 인문학적 가치와 판관지 포 김구
5.18(수) 10:00-12:00	설문대할망과 함께 추는 저절로 춤	석부작전시장	생각을 비우고 몸에 맡기는 무심의 몸짓으로 명상과 힐링을 체험 -저절로 춤의 원리와 요령을 지도받

			아 참가자들이 함께 춤춘다 진행: 제주봄날(비영리단체)
5.18(수) 14:00-15:30	'제주의 소리는 다르다' 국악공연	하늘연못 옆 야외무대	좁녀(해녀)들이 부르는 아리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를 주제로 한반도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무대화하여 그 차이를 알리고 탐라국 만의 역사와 독특한 정체성을 재조명 하고자 함 제주해녀문화는 우리가 후대에 전승 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문화라는 것을 알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과 연계하여 제주 지역 아리랑도 널리 알림 -서우갯소리, 조천아리랑. 우도아리랑 송악산아리랑, 탄광아리랑., 사할린 아리랑, 왕십리아리랑, 소극(해녀의 삶과 노래), 가무악 한바탕 진행:제주도 아리랑 연구회, 서귀포 아리랑 보존회
5.19(목) 14:00-15:00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할 망' 설문대아리랑 무용공연	하늘연못 및 야외무대	2019년 첫 작품“설문대할망, 어머니 의 땅”이후 제주돌문화공원을 상징하 는 대표적 공연예술작품으로 자리매김 -2022년 새롭게 발표되는 '아리랑 아 리랑 아리랑할망'작품 또한 설문대할 망 신화를 총체예술공연으로 기획됨 -진행순서 1. 초혼의 아리랑 2. 지상의 아리랑 3. 아리랑 할망 4. 설문대할망의 강림 5. 천상의 아리랑 총괄연출: 정진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무용전공, 상명대학교 예술대학교수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역임)
5.20(금) 14:00-20:00 5.21(토) 11:00-16:00	'가장 순수한 춤과 제주돌 문화공원의 만남' 국제즉흥춤축제	하늘연못, 야외 무대, 공연장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즉흥공연(금) 14:00 커뮤니티 즉흥공연 14:30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공연 16:00 즉흥이 리벨의 <볼레로>와 만 나면

			18:30 국제 Relay 즉흥공연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즉흥공연(토) 11:00-13:00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 춤과 놀이 즉흥 워크샵 15:00 네덜란드&한국 국제협업 즉흥 공연 16:00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공연 예술감독: 장광일
5.22(일) 16:00-17:30	'할망의 바다, 그리고 땅' 전통국악공연	하늘연못 옆 야외무대	기획의도: 설문대할망이 창조한 제주 의 바다를 그리고 설문대할망이 오백 장군을 위해 죽술에 빠져 죽었다는 신화이야기를 전통국악 판소리 심청 가 중에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느 대 목을 가지고 국악기로 풀어내며, 할 망이 창조한 제주땅의 아픈 모든 것 을 진도 셋김굿의 일부를 연주로 풀 어내며, 남은 제주의 모든 이들에게 재수와 복을 준다는 제석굿을 국악연 주로 풀어낸다. 프로그램 -한(恨)을 풀어낸다 -할망의 바다 -초망 -남도소리 -시나위
5.22(일) 18:30-20:00	'시인 한희정' 제주의 시노래 콘서트	오백장군 갤러 리홀	여는 공연 -먹엄직이 살암직이/웃당보민/보말죽 -토크콘서트: 한희정 시노래 6곡 마무리공연 -밴드쇼 출연: 한희정, 밴드쇼, 뚜럼부라더스

[표6] 2022 제10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프로그램 일정표¹⁰⁵⁾

제주 돌문화공원측에서 밝힌 축제의 취지는 “설문대할망을 널리 전파하고, 제주의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성을 담은 세계적인 신화행사로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¹⁰⁶⁾는 것이다. 정리하면

105) 2022년 프로그램은 제주돌문화 공원홈페이지 (<http://www.jeju.go.kr/jejustonepark>)을 참조하고 세부내용은 고순옥사무장의 도움을 받아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06) 제주돌문화 공원홈페이지 (<http://www.jeju.go.kr/jejustonepark>)에서 참조.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설문대할망을 널리 알리고, 제주다운 색깔을 입힌 문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열리는 축제라고 할 것이다.

2016년에 개최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성의 다양성은 대상이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크게 전시, 춤, 굿, 워크샵, 연극, 협동작업, 음악 공연, 명상과 요가등의 프로그램과 직접 하루를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로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람회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어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들에게 그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은 아쉽다.

2022년에 열린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행사가 2016년에 비해 많이 축소된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거나 기획 의도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삭제한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전의 프로그램을 다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식과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특히 2022년에 들어서 국악적인 요소를 가미한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은 <설문대 설화>가 가지는 지역성이나 정체성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런 참신한 시도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도 한 몫을 차지했으리라 본다. 보다 효율적인 구성을 기획하고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는 시도 또한 가능했으리라는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본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8년에 설문대 할망당이 건립되어 이후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기간에 매년 5월 15일 개최되는 '설문대 할망당 비넴'은 지역 정체성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와 새로운 전승공동체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행사임에도 다른 지역 단체들의 참여도 많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중도 크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련 단체의 참여가 이어지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주체성을 매우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많은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 비용을 들여 축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⁷⁾

107) 김진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러한 의의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설문대 설화>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 유산이다. 따라서 축제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집단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개방성이 큰 문화공유방식인 축제의 형식을 통해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해당 지역, 즉 제주도민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구성원들의 주체적, 자발적 참여이다. 자발성이 없다면 주체적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힘들고, 참여 과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집단 의식도 생기기 힘들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서 타 지역 단체나 개인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제주 지역 참여자 또한 관련 단체 중심 위주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보기에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점을 주최 측에서 인지하고 언론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라고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제주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라는 인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는 차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3. 현대적 해석의 과제와 지향점

<설문대 설화>는 신화에서 전설, 민담, 그리고 무속으로까지 변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설문대할망은 천지창조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확고한 증거물을 가진 전설의 주인공이고 흥미로운 민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전설적, 민담적 형태가 혼용된 천지 창조신화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이 설화¹⁰⁸⁾는 신화와 전설 민담이 공존하는 설화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이 설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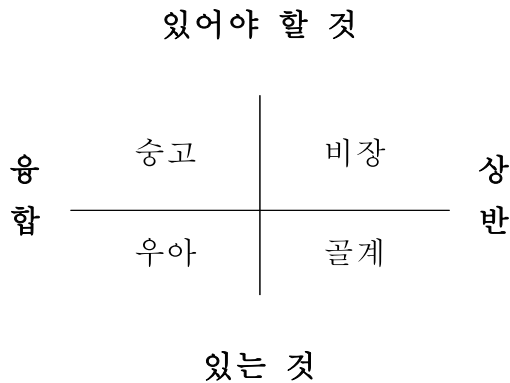
2019.

108) 이창식,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학회, 2012, 14쪽.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은 필요하나 설문대할망 설화가 신화인가, 전설인가, 민담인가 하는 논쟁에서 나아가 신화와 전설 민담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설화로 규정지어 현대적으로 해석할 가치가 있다.

미적 범주로 따져 말하자면 신화는 숭고미, 전설은 비장미, 민담은 골계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화·전설·민담의 복합적 속성과 현대적 활용이긴 하나, 신앙적 범주로까지 확장하게 된 <설문대 설화>에서는 중간 단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죽술에 빠져 죽은 어머니로서의 설문대할망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로서의 숭고미와 죽음의 비장미를 동시에 준다. 오줌을 누워 바다를 가르고 우도를 만든 이야기에서는 자연을 창조하는 숭고미 속에 흥미담이 주는 골계미가 녹아 있다. 또한 전설과 민담이 섞인 이야기는 비장미와 골계미를 동시에 주기도 한다. 설문대할망이 콧구멍을 후비다 발가락으로 찢러 생겼다는 범섬의 콧구멍 동굴이 그러하다.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무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모 과정을 겪으며 이 설화에 다양한 미학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설문대 설화>가 갖는 현대적 의미는 바로 ‘우아미’의 탄생에 있다고 본다. 조동일은 ‘있어야 할 것’(이상적인 것)과 ‘있는 것’(현실적인 것)을 ‘융합’과 ‘상반’ 관계에 따라 숭고미와 비장미 우아미와 골계미를 추출하였다.



[그림1] 조동일의 미적 범주¹⁰⁹⁾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면서도 ‘있는 것’(현실

109) 조동일, 『한국사상대계 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475쪽.

적인 것)이 우세하여 ‘있어야 할 것’ (이상적인 것)을 융합하여 나타나는 미의식이 곧 ‘우아미’이다. 현대적 시점에서 <설문대 설화>의 미적 특질을 ‘우아미’로 상정할 수 있는 까닭은 <설문대 설화>가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무속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다양하게 변모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인의 수용양상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명주 한 필이 부족하여 다리를 놓다가 만 영장메코지를 보며 사람들은 분명한 실패담이지만 흥미롭게 바라본다. 창세신화지만 송고미가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는 오줌을 누고 빨래를 하는 우리 주위의 할머니로 희화되었기 때문이다. 죽술에 빠져 죽었거나 밭창 뚫린 산정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는 비극적 죽음마저도 크게 슬퍼하지 않고 현실적인 적절한 재미와 흥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수용양상의 변화는 <설문대 설화>의 새로운 미의식을 만들었다.

동시에 이러한 미의식이 발현은 설문대할망이 현대에 소환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성격 속성을 갖춘 존재였음을 방증한다. 설문대할망은 분명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제주를 만들고 오름과 바위를 만든 창세신이자, 오백 명의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육신을 바치는 위대한 대지모신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이 농담과 장난을 일삼는 친근한 이미지의 민담 속 할머니, 급기야 마을의 절이나 당 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할머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이자 동시에 가장 친근한 우리들의 할머니 신에게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이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렌암스트룀은 ‘우리가 겪은 곤경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에게 세상 속 저마다의 위치와 진정한 방향을 찾아 주는 것이 신화’¹¹⁰⁾ 라고 하였다. 설문대할망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며 다양하게 사람들의 삶 속 곤경에 빠질 때마다 소환되었던 위대하고도 가까운 신이었다. 앞서 제시한 구술 채록 자료에서 제주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을 수시로 찾고 만났음을 알 수 있다. 기록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표류하던 뱃사람들이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설문대할망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¹¹¹⁾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도 설문대할망

110) 카렌암스트룀,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12쪽.

을 찾는 이들이 많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가 육지처럼 큰 인명사고가 없는 이유를 ‘설문대할망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빠름과 편리함 이면에 숨은 암울한 인간성 상실의 시대.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우리가 설문대할망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설문대할망은 숭고한 할망, 그로테스크한 할망, 희화화된 할망으로 인식되었는데 이제 설문대할망은 어머니의 모성성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숭고미, 비장미, 골계미의 모습보다는 우아미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즉 신화시대에는 숭고가 있다가 그 숭고가 깨지면 비장이 나타난다. 그 비장을 극복하기 위한 골계가 나타나는 과정을 지나, 그 다음 시기에는 어머니의 모성과 자애를 위주로 하는 연민과 공감의 정신이 강조되는 변이가 지속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물질만능주의와 약육강식의 비인간에 대한 반성으로 공감과 공생, 공존을 중시하는 정신이 필요하게 되면서 <설문대 설화>는 우아를 표방하게 되었다는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정신이 오늘날 설문대할망을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현실 상황에서 이상을 지향하게는 것이 숭고이고, 이상과 현실 상황에서 현실을 지향하는 것이 우아인 점에서, 우세한 쪽을 지향하는 점은 같지만 관점이 이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우리 시대의 특성이 탈 신성이면 서도, 현실에서 중요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바로 <설문대 설화>에 담긴 제요소(諸要素)들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소환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설문대 설화>의 가치는 문화원형의 이유로 다시 재조명 받아야 한다. 실제로 서양에서 영화로 성공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북유럽신화라는 문화원형을 가지고 제작된 영화이고, 웹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영화 <신과 함께> 역시 제주도 신화라는 문화원형을 차용하였다.

111) 장한철 『표해록』에는 1770년 과거 시험을 보러 나갔던 선인들이 난파당하고 표류하다 이듬해 1771년 1월 5일 멀리 한라산이 보이자 백록선자와 선마선과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선마선과가 설문대할망이라는 주장이다. 이창식, 위의 논문, 14쪽.

더구나 영상문화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으로 발전은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수용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SNS를 통해 이용하고 보급할 수 있는 시대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 전성 시대에 설문대할망 설화를 OSMU(One Source Multi Use)로 활용하여 2차 3차 문화 콘텐츠를 생산, 보급한다면 제주도는 신화의 섬이라는 랜드마크적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대할망은 전 세계의 여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감성 창조의 섬 아이콘으로 설문대할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지닌 신화적인 위대함과 인간적인 친근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브랜드이자 가치 창조의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서 설문대할망의 가치 재창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¹¹²⁾

이를 위해 <설문대 설화>의 전설적 증거물들이 존재하는 장소를 IT 기술과 결합하여 축제나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 방법을 제안해 본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서귀포시 대규모 메밀밭 ‘보름왓’에서 농경신 자청비와 메밀이야기를 LED 및 300대의 군집 드론을 이용해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스페셜 공연을 연출한 감독과 작가 등이 참여하여 공연을 하는 입체적인 축제를 기획하였다. 신화를 증강현실(AR)과 확장현실(XR)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축제로 만드는 과감한 시도와 함께 메밀밭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장대한 스케일의 공연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메밀 씨앗을 제주에 갖고 내려온 농경의 여신 자청비의 화려한 축제를 광활한 메밀밭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이 공간이 갖는 장소의 정신(sence of spirit)을 생각하게 한다. 장소의 정신은 오랜 시간을 거쳐 그 장소에 부여된 것으로 집단적이며 문화적인 성격을 가지는데¹¹³⁾ 광활한 메밀밭 ‘보름왓’은 문화원형이 가진 여신 자청비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본다.

112) 이창식, 위의 논문, 6쪽.

113) 유정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여성문학연구』 제41호, 2017, 8쪽.

그렇다면 설문대할망 문화콘텐츠의 활용 중심지는 설문대할망을 기리며 만들어진 장소인 제주돌문화공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설문대할망 스토리텔링마케팅을 정립하고 제주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대할망의 현대적 의미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문대할망을 주요 모티프로 하는 돌문화공원의 설립은 매우 의미있는 출발점이다. 돌문화공원은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돌에 관한 전설을 주 테마로 드넓은 제주의 대지 위에 제주 돌문화의 면면과 제주민의 생활상 등을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돌문화공원에서는 매해 설문대할망 축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그 활용방안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주민의 초월자라는 입장에서 신비롭고 환상적인 설문대할망은, 여성신이라는 현대적 매력과 지형형성, 천지창조라는 신비적 신화의 양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브랜드이자 가치 창조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설문대할망의 문화 콘텐츠적 활용양상의 중심지는 바로 그 설문대할망을 기리며 만들어진 장소인 돌문화공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돌문화공원내의 설문대할망당의 설립 또한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대목이다.¹¹⁴⁾ 설문대할망당은 2018년 5월 15일 설립되어 매해 5월 15일 제일로 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당이다. 설문대할망당의 설립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을 그녀를 모티프로 하는 장소인 돌문화공원에 좌정하게 하여 현시대 인류가 봉착한 파탄난 지구를 재창조하는데 그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녀가 지닌 창조신적인 의미를 되살려 사람을 궁핍히 여기는 인간애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설문대할망이 지닌 순수증여의 정신을 따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런 의미

114) 설문대할망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돌문화공원내에 있으며, 2018년 5월 15일 설립되었다. 설립자는 제주돌문화공원 민·관 합동추진 기획단 백운철 총괄기획단장과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허남춘 교수이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거주 김영철 심방이 집사관이다.

를 지녀 모두에게 대등한 사랑으로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전승공동체가 생겨나면서, 단골들이 생기고 그 동안 잊고 있던, 혹은 점차 사라져 가는 제주민의 의식의 뿌리를 소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IV. 결론

본 연구는 <설문대 설화>의 복합적 유형 속성, 즉 신화·전설·민담적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승되는 양상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전승층의 사유적 변모를 살핀 뒤, <설문대 설화>가 현재적 시점에서 지니는 의미와 수용 가치를 살피고 그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여 본 것이다. 또한 <설문대 설화>가 현재 문화콘텐츠로서 각광 받고 있는 현황들을 조명하고, 이것의 의의와 더욱 긍정적인 행보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점 등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설문대할망을 모티프로 돌문화공원이 건립된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 돌문화공원에서 매해 설문대할망에 대한 축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조망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돌문화공원내 설문대할망당의 설립의 의미도 살펴보았다.

<설문대 설화>는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 제주도의 지형을 만든 신화였다. 그러나 점차 신성성을 잃고 증거물 기반의 전설과 유희적 측면의 민담으로 변모되어 설화의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설문대할망은 신화에서부터 전설, 민담 그리고 무속까지 복잡한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할망의 다양한 설화 화소를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전승의 의의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설문대할망 신화화의 가치와 여러 설화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신화로 나타나며 거인형 여신이다. 그러나 설문대할망 설화가 과편화된 정도가 매우 커서 구전되는 설화가 무궁무진하다. 또한 다리 놓기나 백사장 메우기 등 설문대할망의 죽음이 설화에 대한 인식

에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다리 놓아주기’ 화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외래문화의 유입이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어 설문대할망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오히려 제주도만의 자치적 환경을 유지시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이를 더불어 대표적인 설화로는 몸집이 거대해 여러 지역에 신체가 닿는다는 이야기, 배설을 하여 여러 지형지물이 창조되는 이야기, 죽 숲에 빠져 죽는 이야기,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 이야기 등 다양한 화소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지형 형성 설화가 특히 돋보이는데, 제주도의 산이나 오름 그리고 소섬 등을 만든 이야기이다. 한라산이 중심이고 계속된 화산활동의 지형을 증거로 삼아 여러 전설적 이야기가 분화된 것이다.

〈설문대 설화〉에서 천지를 창조한 화소와 지형 형성의 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설문대할망이라는 여신에 대한 경외감과 신성성이 남아 전해진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의 이야기는 풍화되고 설문대할망의 화소는 다양해지고 전설화, 민담화 되면서 신화의 신성성은 약해지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문대할망 존재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여러 화소와 구전 전승자들이 남아 있다. 여전히 설문대할망은 옛 설화로 남아 있고 당신으로 좌정하기도 하고, 불교와의 습합으로 한라산 깊은 암자에서, 제주불교의 본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창세 신 또는 대지모신이었던 설문대할망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설문대할망이 이러한 과정에서 변모양상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설화가 변모하면서 제주도의 창세 신에서 당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제주도 세명주할망 설화가 설문대할망 변모양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접하는 화소와 매우 비슷한 줄거리로 흘러가는 것을 참고하면, 세명주할망과 설문대할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고를 해볼 수도 있다.

결국 오늘날 인간적인 면모가 줄고 남성주의에 대한 맹목성이 회의화 되자, 제주의 가치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소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문대 설화〉가 주는 목직한 울림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나아가 지구촌이 직면한 인류애 고갈의 해답을 어찌면 설문대할망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요즘 페미니즘 논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 일변도로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인류평화의 큰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 걸음에 설문대할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할망의 이야기와 숨결을 느끼고 귀 기울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우위에 있어 온 합리적이고 과학적 이면에 숨은 남성 중심적, 자기 주장적이고 정복적인 지배이념의 틀을 깨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인류애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예술적이고 수용적이고 포용하는 지혜와 자비를 내면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하늘과 땅,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동양과 서양, 이성과 감성, 로고스와 뒤토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화롭게 온전한 하나로 이 시대의 이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자료편]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오성찬, 『제주의 마을시리즈』 5, 반석, 1987.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1집, 1992.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4집, 1997.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7집, 2010.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8집, 2011.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9집, 2012.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0집, 2013.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1집, 2014.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10집, 1994.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백록어문』, 22집, 2006.
- 제주돌문화 공원홈페이지 (<http://www.jeju.go.kr/jejustonepark>)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2, 20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 3, 2018.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81.
- 진성기, 『제주도전설집』, 제주민속연구소, 2001.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제주도 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논저]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 신 관념」, 한국민속학 학술저널, 1993.
- 고훈, 「제주여성성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권태효, 「여성거인 설화의 자료 존재 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 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권 4호, 1997.

김동윤,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 양상」,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0.

김소윤, 「한국 거인설화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컨셉디자인 연구: ‘제주도 설문대 할망 전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김순자, 「설문대할망’과 그 別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김열규 외 7인, 『우리 민속문화의 이해』, 개문사, 1978.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영희, 『구전이야기 언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진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본 제주신화 축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현수,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김혜정, 「설문대할망 설화의 전승양상과 신적성격-마고할미설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3, 2019.

문무병, 「濟州島 堂神仰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종국, 「제주도 설화에 나타난 巨食性的 의미 연구: 신화, 당본풀이, 전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호,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유정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소환」, 『여성문학연구』 41호, 2017.
-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37호, 한국구비문학회, 2013.
- 이경진, 「퍼포먼스로 본 문화공간의 의미화 과정: 제주돌문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성준, 「설문대 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1983.
- 임동권, 「설문대할망 설화고」, 『제주도』 17, 제주도연구회, 1967.
-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2.
-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권, ㄷ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 정슬기, 「제주도 설문대할망 설화의 관광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 정진희, 『오키나와 옛이야기』, 보고사, 2013.
-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동서인문학』 7,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4.
- 조현설,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4.
-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 카렌암스트룀,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 황윤정, 「신화소 중심의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일본,중국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학회, 2014.
-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거인신화 비교」,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허남춘, 「성모, 노고, 할미란 명칭과 위상의 변화- 지리산과 한라산의 여성 신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9집, 2014.

[부록] <설문대 설화> 기 채록본 자료 전문

1.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pp. 27-40.

- 핵심화소 : 하늘과 땅 분리하기, 천지창조, 옥황상제 말젓딸, 빨래하기, 등경돌, 배설통 해 강, 오름만들기 소섬만들기, 설문대하르방 인연 맺음, 하문으로 고기잡음, 배설로 오름 만들기, 오백아들, 장군바위로 왜적막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말젓딸이었다. 할망은 워낙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라 천상계의 생활이 갑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문대할망이 바깥 세계가 궁금해서 몰래 내려다 보았다. 바깥세계는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다. 그 순간 할망이 그 세계를 열어 놓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 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트였다. 이제 땅의 세계는 옥황상제의 권역 밖이 되어 버려서 옥황상제의 진노가 대단하였다. 옥황상제가 말젓딸의 소행임을 알고 설문대할망을 땅의 세계로 내쫓아버렸다. 설문대할망이 속옷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바깥 세계를 갈라 놓을 때 퍼놓았던 흙만을 치마폭에 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설문대할망이 먼저 남쪽 노인성이 비치는 아늑한 곳을 찾아내어 치마에 담긴 흙을 내려놓자, 타원 모양으로 내려 앉았다. 제주도는 이때 설문대할망이 내려놓은 흙더미이다. 그런데 흙이 굴곡 없이 평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손으로 다시 흙을 일곱 번 떠 놓아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남쪽 멀리 남극 노인성이 보인다. 노인성은 남극의 축(軸)에 있어서 땅 위에 나오지 않는 신령스런 별인데, 오직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南嶽)에서만 볼 수 있다. 한라산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으로 사슴사냥을 나왔다. 사냥꾼이 한라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사슴을 발견해서 급히 활을 치켜들었다. 그때 활 끝이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게 되었다.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 뽑아 서쪽을 내던졌다. 그 봉우리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여 백록담이 되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에 왼쪽 발을, 산방산에 오른쪽 발을 디디고 태평양 물에 빨래를 하

곤 했다. 설문대할망은 몸집이 커서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발끝이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까지 닿았다. 그런데 한 번은 실수로 발을 잘못 뺀 바람에 서귀포 법환리 앞바다에 범섬에 구멍 두 개가 뚫리고 말았다.

설문대할망은 성산 일출봉 위에 관솔불을 켜 놓고 길쌈을 했다. 일출봉 기암가운데 높이 솟은 바위를 골라 불을 켜는데 등잔이 알아서 다시 큰 바위를 하나 더 얹어 놓고 등잔을 켜었다. 이곳이 등경석이다.

구좌읍 송당리 목장에 띄엄띄엄 놓인 큰 암석 세 개는 할망이 솔을 걸어 밥을 해 먹던 솔 받침돌이라고 한다. 할망은 성산읍 오조리의 식산봉과 일출봉을 디디고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줄기가 세어서 땅이 패이고 강이 되어 흘렀다. 그러다 오줌 강이 깊어져 섬 한귀통이가 잘려 나가서 생긴 곳이 지금의 소섬(牛島)이다. 지금도 성산과 소섬 사이는 바다가 깊고 조류가 세어서 파선되는 일이 잦다.

할망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천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흙을 가지고 오래도록 주무르며 몰두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360여개나 되는 오름들이다. 처음에는 둥그스름한 것, 삼각형, 사각형 모양을 만들다 차차 여러 모양에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구좌읍의 다랑쉬 오름에는 둥근 모양의 봉우리를 주먹으로 탁 쳐서커다란 굽부리가 생기게 하기도 했다. 오름을 만들다 설 때는 한라산을 베개삼고 서귀포 고근산 굽부리에 엉덩이를 얹은 다음 앞바다 범섬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물장구를 치기도 했다. 덕분에 고근산 굽부리는 설문대할망의 엉덩이선이 그대로 찍혔다.

어느 날, 설문대할망이 바닷가에서 해물을 잡고 있었다. 이때 할망 옆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와 보니, 어떤 거인이 서 있었다. 그 거인은 설문대하르방이라는 어부였다. 설문대하르방의 키는 한라산만하고 신(男根)은 갈대 세 대만했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이 부부의 연을 맺고 오백 형제를 낳았다. 설문대할망이 오백 형제를 낳고 속이 허해서 바닷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할망과 하르방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내려갔다. 하르방이 소섬쪽으로 가면서 할머니에게는 표선 바다쪽에서 하문을 열고 앉아 있으라고 일렀다. 하르방이 소섬 바다쪽으로 가서 긴 신(男根)으로 바위굴마다 찌르며 휘저어가니 고기들이 삼시에 할머니 하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자 할망이 하문을 꼭 잠그고 물으로 나와서 신평리 목장에 가서 열어 놓으니, 그 양이 열 섬 열 말이나 되었다. 할망과 하르방은 그 고기를 한 끼니로 모두 먹었다.

할망은 식성이 좋은 만큼 똥을 싸는데도 그 양이 오름만큼 했다. 사람들이 마소를 찾으러 들이나 산으로 다니다가 할망이 싸 놓은 똥을 오름인 줄 알고 올라섰다가 빠지기 일

쭈었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사람들이 불만이 높았다.

제주도민들이 공론을 하여서 할망에게 똥을 한군데만 싸지 말고 여러 군데 조금씩 흘리며 싸달라고 부탁했다. 설문대할망이 사람들의 부탁 대로 조금씩 썼지만, 세월이 흘러서 싸 놓은 똥 위에 거둬 싸게 되어 오름이 되고 동산이 되고 산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할망의 오줌은 땅 속에 샘솟는 샘물이 되었다.

할망의 오백 아들이 성장하여 기골이 부모에 못지 않게 장대하였다. 흉년이 든 해에 설문대할망이 아들들을 불러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다. 할망은 아들들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 하르방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죽을 쭈기 시작했다. 하르방이 큰 가마솔에서 불을 때고 솔전 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이때 하르방이 밭을 헷디더서 필필 끓는 가마솔 속으로 빠졌다.

집에 돌아온 아들들이 죽을 보고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죽맛이 좋았다.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 아들이 가마솔 바닥에 남은 죽을 뜨려는데 국자에 뭔가가 걸려서 살펴보니 사람의 뼈였다. 막내가 아버지가 죽 속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 불효한 형들과 함께 살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 막내가 한경면 고산리앞바다 차귀섬까지 달려가서 그곳에서 며칠을 슬피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한다.

차귀섬의 장군바위는 대정읍 바굼지오름(簾山)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에 한지관이 바굼지오름에서 뒹자리를 보다가 차귀섬의 장군바위가 보이는 것이 흠이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상주가 뒹자리만 좋다면 그것 하나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상주가 도끼로 장군바위를 찍자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지금도 그때 도끼로 찍었던 자국이 장군바위에 남아있다.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은 비록 바위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넋을 기려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장군바위가 호종단이 탄 배를 파선시키고 왜적의 침입을 막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제주도에는 장수가 태어날 혈맥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한 중국의 진시황이 지관인 호종단을 보내어 제주의 혈맥을 끊도록 했다. 호종단이 혈맥을 끊으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지장새미에 이르렀다. 지장새미 옆에서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호종단이 물혈을 뜨러 왔으니 숨겨 달라고 청했다. 농부가 소 길마 밑에 넣어 둔 물사밭을 가리키자, 할머니가 그 행기물 속으로 숨었다.

호종단이 지장새미에 이르러 샘물이 없는 것을 보고, 문서를 찾아보니,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소’라고 적혀 있었다. 꼬부랑나무는 소 길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호종단이 이를 알지 못하고 농부에게 묻자, 농부가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며 면박만 주었다.

호종단이 화가 나서 가져온 문서를 엉터리라며 찢어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물혈을 뜯

수가 없게 되자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 그런데 돌아가던 호종단이 차귀섬 앞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 죽고 말았다. 장군바위가 그를 벌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같은 내용을 노래에 실어 전하고 있다.

“산의 조종은 곤륜산이요/강의 조종은 황하라/한라 영산을 바라보니/북쪽으로 도두봉이 있어/도인이 날 듯하고/남쪽을 바라보니 범섬이 떠 있어/호안 장군이 날듯하고/영실기암을 바라보니 오백장군이 난열한데/일대장군은 차귀도에 서서/호종단을 막아내었다”

한편 장군바위로 변한 동생을 본 형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499명의 형들도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변했다. 이렇게 생긴 바위들이 영실기암이다. 오백장군이라고 부르지만 한라산 서쪽 비탈에는 499장군이 서 있으며 차귀섬에 막내 혼자 떨어져 있다. 이들이 바위가 되어 흘린 피눈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봄이 되면 철쭉꽃으로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홀몸이 된 설문대할망은 만단수심(萬端愁心)을 다 잊고자 하염없이 돌아다녔다. 한라산에 오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삼시간에 안개가 덮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슬픔에 싸인 설문대 할망이 화가나서 부리는 조화라고 한다.

설문대 할망이 몸집이 커서 늘 옷이 아쉬웠다.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민들에게 명주 100동을 모아 속옷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도민들이 명주를 모았으나 99동 밖에 되지 않아서 다리는 놓이지 못했다. 하지만 조천리에 영장매코지는 그때 할망이 놓던 다리의 흔적이며, 신촌리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때의 자취라고 한다.

설문대 할망은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삼았다. 어느 날 설문대 할망이 키 자랑을 할 생각으로 물이 깊다고 소문난 제주시 용담동 바닷가 용연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용연물이 할망의 발등까지만 닿았다. 할망이 서귀포시 서홍리 흥릿물에 들어가보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다. 그래서 할망이 깊다고 소문난 한라산 물장오리에 들어갔는데, 그만 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 물장오리 물은 밑이 터진 연못이라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채록연도, 지역 불확실, 남자로 추정, 진영삼>

2. 선문대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거구의 흔적, 섭섭 구멍흔적
-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바다에 잠겨서 발로 물장난을 했다. 서귀포 법환리 앞 바다의 ‘섭섭’에 있는 커다란 구멍 두 개는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서 잘못

발을 뺐했을 때 생긴 구멍이다.

〈1960년대 이전 추정, 서귀포, 金氏(女), 60세〉

3.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 명주 明紬 백통을 모아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기에 도내의 명주를 전부 모았더니 99통밖에 못돼서 못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할망도 다리를 놓아 주다가 말았다. 그 놓다가 만 다리가 지금 한림 翰林 앞바다에 있는 긴 곳이[岬]이다.

〈1960년 이전 추정, 한림읍, 李氏(女), 62세〉

4.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빨래하기

- 한 발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가파도 加波島에, 또 한 발은 제주도 동북쪽에 있는 성산 城山 일출봉 日出峯에 디디고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5.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술의 흔적

- 구좌면 舊左面 송당리 松堂里의 동북쪽 들판에 있는 세 개의 바위는 선문데할망이 작은 술을 걸어 놓고 밥을 짓던 곳이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6.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빨래하기
- 한라산과 제주시 북쪽 먼 바다 가운데 있는 관탈섬에 밭을 디디고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제주시, 高氏(女), 48〉

7.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 치마폭에다 흙을 싸서 담아다 쏟아 부운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동시에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들에서 쏟아진 흙들이 도내에 무수히 산재(散在)해 있는 작은 오름[岡]들이 되었다.

〈안덕면, 상창리, 李氏(女), 52세〉

8.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 할망이 갈래죽(삼)으로 흙을 떠서 쏟아 부운 것이 한라산이 되고 조금씩 흘러 흙들이 도내의 작은 산들이 되었다.

〈1960년대 이전 추정, 지역, 제보자 불확실〉

9.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배설하여 그것으로 산 만들기
- 워낙 큰지라 식량 食糧이 많아서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싸는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

〈중문면 강정리, 李甲順(女), 40세〉

10.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백사장 만들기
- 표선면(表善面) 해안의 ‘한모살(큰 백사장)’은 본래 물이 깊어서 풍파가 일면 파도가 들이닥치고 가옥에 침수하여 고난이 심했다. 매년 한 사람씩은 어린 아이들이 나가 놀다가는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할망이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 주면 메꾸어 준다고 하기에 백성들이 모아서 만들어 주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 깔고 다음에 북풍이 일어서 모래가 덮어씌워지니 현재의 백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조수가 나간 다음에 백사장의 모래를 파헤쳐 보면 굵다란 나무들이 썩어서 정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표선면, 高氏(男), 68세〉

11.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담, 맹수 없는 이유
- 할망이 갈중이(작업복 바지) 하나만 지어 주며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해서 제주도 백성들이 무명 한 필씩을 모아서 만들었더니 가달(가랭이) 한 쪽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할망도 흙 한줌을 집어서 빚어 놓은 것이 현재 모슬포 앞 바다의 긴 곳이(岬) 알뜨르라고 한다. 갈중이를 다 만들어 주었으면 같이 제주도 내 모든 산줄기에 장군혈이나 모든 혈을 붙어 넣어 주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라산에 봉우리가 구십구 九十九 밖에 없는데, 할망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백(百)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라산에는 왕도, 범도, 그 밖의 맹수들도 안 난다고 한다.

〈중문면 강정리, 李甲順(女), 40세〉

12. 선문데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죽음, 물장오리
- 하도 키가 큰 것이 자랑이어서 제주시에 있는 용담(龍潭)물이 깊다기에 들어서 보니 발등까지밖에 안 찼다 남군 ○○ 물에 들어서 보니 이번에는 겨우 무릎까지 찼고, 마지

막으로 한라산 물장오리에 가서 들어서 봤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13. 선문대 할망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핵심화소 : 죽음, 오백형제

- 아들 5백 형제를 낳고 그 많은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숲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산중에서 죽어 버리니 그것이 현재 제주도 명승命勝의 하나인 영실기암 靈室奇岩 의 오백장군봉이다. 등산할 때에 이 오백 장군봉 峰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할망이 성을 내서 구름과 안개를 끼게 한다.

〈한경면, 판포리, 邊仁善(女), 52세〉

14. 설문대 할망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pp. 277-279

- 핵심화소 : 설문대할망의 이칭(선문대, 설명주, 세명뒤, 세멩디)빨래하기, 다리 놓기 실패, 물장오리, 쇠섬 만들기, 음문으로 사냥하기

-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도 아주 아득한 옛날에 제주도엔 설문대 할망이라는 아주 키가 큰 할망이 있었수다. 이 할망은 설문대할망이라고 하지마는 선문대 할망, 설명주 할망, 세명뒤 할망, 세멩디 할망이라고도 하는디 이 할망을 제주도 살므치고는 모르는 사름이 었수다. 이 할망으 키는 어찌나 크던지 한루산(韓孺山)에 걸터앉아(걸터앉아서) 한 발은 쇠섬(제주도의 동쪽에 있는 섬, 牛島)에다 뻗고 또 한발은 西歸浦 앞으 범섬에다 뻗고 城山峯을 광돌(빨랫돌)로 삼어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이와 같이 키가 굉장이 컷기 때문에 옷을 해입지 못헷수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지주 사름들ㄱ라 내 옷을 한 벌 해주면 나는 육지까지 드릴 놓아주것다고 헷수다. 지주 사름들은 그렇게 하자 하고 지주에 잇는 옷감을 모앗고 성문대 할망은 조천(濟州牧 안의 東쪽에 잇는 海村으로 옛날에는 濟州出入의 港口였다)에서부터 드리를 놓기 시작헷수다. 지주 사름은 지주에 잇는 옷감을 ㅁ(모두 다) 거두어서(모아서) 옷을 지엇는디 제우(겨우) 설문대 할망으 잠뱅이(짧은 속곳)밖에 못 만들엇수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드리 놓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이 드리를 놓는데 朝天 앞바당에 소낭구를 數數千 동을 깔었는데 그 소낭구가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바당물이 얼마나 깊은가 알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목안에 잇는 용소에 들어간 보낸 물이 할망의 발등밖에 안고 서기포(西歸浦)의 西烘里에 잇는 홍리물에 들어간 보낸 무릎에까지 안고 할루산에 잇는 물장오리가 깊다고 해서 거그 들어가 봤더니 그만 그 물장오리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물장오리는 한엇이 깊은 물이여서 그 키 큰 설문대 할망이 빠져죽었다고 합니다. 지주의 東쪽으 成山里 앞바당에 잇는 쇠섬은 원래 濟州本土에 붙어 잇었다고 합니다. 지주 본토에 잇던 쇠섬이 어찌서 섬이 났느냐 하민 설문대 할망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대 할망은 혼쪽 발을 성산멘 五照里의 食山峯에 띠디고 혼쪽 발은 성산멘 日出峯에다가 띠디고 앉아서 소매(小便)를 보는데 오줌 줄기가 어찌나 심이 세게 나오던지 땅이 깨어서 땅의 일부가 떨어져서 그리서 쇠섬이 되고 쇠섬광 성산 사이에는 오줌 줄기가 세게 흘러서 지금도 그 사이의 바당물은 세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 사이의 바당을 지내가는 배는 썬 潮流에 휩쓸려서 破船되고 破船 船體는 좇일 수가 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배가 고프민 城山 앞바당 섬지코지라는 디에 강 두다리를 짝 떡벌리고 앉이섯민 켈기덜이(고기들이) 할망의 扃문테러(下門쪽으로) 문땅 들어가는디 그리扃민 할망은 扃문을 꼭 중간 나오란(꼭 잠그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서)꽉 쏘아서 묵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래도 많고 물개도 많고 켈기도 많고해서 설문대 할망은 늘 여기서 켈기를 심어서 묵어서 그리서 지주 사름들은 여기를 우시게 소리로 설문대 할망 코지영 합니다.

〈1971년 7월 제주시 이도이동 고흥규(63세, 남)〉

15.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 핵심화소 : 하루방과 하문으로 사냥하기
- 옛날 지주에(濟州에) 설문대 하루방이라는 하루방이 잇엇수다. 이 하루방 키는 할루산(漢拏山) 높이와 같앗다수다. 그리고 이 하루방의 셋놈(쫓)은 질고 커서 할망을 구하지 못扃영 한자 살엇다고 합니다.扃로는 바당(바다)에 느런 보낸 키가 큰 할망이 바룻 잡암扃난(海産物을 잡고 잇어서) 설문대 하루방은 저 할망은 내 배필이 될 만扃다고 보고 할

망 절에 강

“난 설문대 하루방이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둘이 부배(夫婦)되어 함께 삼시다.”

설문대 할망이 설문대 하루방을 보낸 하루방 심을 만흔여배여(삼어서 살 만하
여서) “너는 설문대할망이요. 실푸도록(실컷) 바닷괴기(바다 고기) 맥에주기영(먹
여준다고 하면은) 허금허쿠다(허락하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우다”

흐연(해서) 하루방 할망은 부배가 되었수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부배가 되었 사년디 설문대 할망은 아덜 오백성지를 보
고(놓고) 스뭇(매우) 괴기가 먹고 싶어서 하루방ㄷ라(보고, 에게) 어서 바당에 네레가서
괴기 심으레(잡으러) 가자 흐고 함께 바당데레 느레갓수다.

하루방은 할망ㄷ라 “난 절로 강 괴길 다둘리커매(쫓을 터이니) 할망 온 소중기(속곳을)
벗영(벗고서) 하문을 을양(열고서) 앓아시런(앓아있거라)” 흐고서 바당 쏘곶에 신(바다
속에 있는) 괴길 다올리는다, 셋놈(젓)으로 영덕마다(바위 굴 속마다) 질으멍(찌르며, 쭈
시며) 이 궁기 저 궁기(이 구멍 저 구멍) 들썩들썩 숙대겨 가난(쭈서서 가니) 바당 괴기
(바다의 고기)들이 혼 어이에(한순간에) 매딱(모두 다) 설문대 할망 하문데레(下門으로)
기여 들어갓수다.

설문대 할망은 괴기들이 거저 문(모두 다) 들어온 만흔난 하문을 뚝기(따악) 중
간에(잡고) 바당서 나와서 핏 싸놓난(풀어 싸놓으니까) 수수백 섬이 나왔수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그 괴길흐때에 문 끓여묵인 삼천삼백 연을 살엇
깁 합니다.

<1972년 3월, 북제주군 성산면 신흥리, 오문복, 남>

16.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거구
-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
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

<1972년 5월 25일 구좌면 김학리 안용인,남>

17.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빨래하기
-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고, 팔은 한라산 정상을 짚고 서서 발로 빨래를 빨았다고 한다.(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18.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감투
- 제주시 한내(漢川) 위쪽에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고 한다.(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19.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 제주도에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마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흘러서 된 것이라고 한다.(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20.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속옷, 다리 놓기 실패
-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데 명주 백 통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힘을 다해 모았으나 99통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신촌리 등 앞바다에 바다로 뻗어간 바위 줄기로 남아 있다.(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21.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죽음, 물장오리

- 선문대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에 자기의 키보다 깊은 물들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제주시 용담동(龍潭洞) 용소(龍沼)가 깊다기에, 들어가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다. 서귀읍 서흥리(西歸邑 西烘里)에 있는 흥리물은 무릎까지 닿았다.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 물장오리가 밀이 터져 한정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22.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거구, 빨래하기

-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 앉고, 한쪽 다리는 관탈에 놓고, 또 한쪽 다리는 서귀읍 앞바다의 지귀섬이나 대정읍 앞바다의 마라도에 놓고 해서 성산봉을 빨래 바구니로 삼고, 소섬(구좌면 우도)은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1975년 2월 28일 성산면 시흥리 양기빈,남,69세,>

23.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거구, 빨래하기

- 옛날 설명두할머니 또는 세명뒤할머니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4.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지형형성, 오름 형성

- 제주도에 오름들은 할머니가 삽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줍씩 집어 놓은 것이라고 한

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5.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지형형성,산 모양 만들기
- 구좌면의 득랑취(自郎崇)는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은 후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치는 바람에 패어진 것이라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6.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거구,한라산
- 할머니는 키가 커서 한라산과 일출봉 사이를 한 발자국에 놓았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7.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거구, 등경돌흔적
-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이는 설명두할머니가 길삼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위에 다시 바위를 올려 놓지 않았는데,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얹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 놓아 등잔을 높였다고 한다. 등잔으로 썼다고 하여 등경돌 (燈檠石)이라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8.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지형창조, 배뇨, 소섬 만들기,
- 본래 소섬(牛島)는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설명두할머니가 한쪽 발은 선상면 오조리의 식산봉(食山峯)에 디디고, 한쪽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즘을 누었다. 그 오즘 줄기의 힘 때문에 육지가 패어지며 오즘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렀다. 그 때문에 육지 한 면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는데, 바로 소섬이다. 그때 흘러 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이다. 오즘 줄기의 힘이 센 덕분에 깊이 패어져 고래나 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다. 그때 오즘이 흐르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29.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오즘누기,성산일출봉
- 일설에는 이 할머니가 성산 일출봉과 성산면 시흥리 바닷가의 브람알선돌이라는 바위를 디디고 앉아 오즘을 누었다고 하기도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30.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 설명두할머니는 속옷 한 벌만 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백성들이 애써 모았지만 99필 뿐이었다. 그 때문에 속옷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리도 놓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31.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이칭(다른이름).

- 설명두할머니는 세명뒤할머니, 췌멩뒤할머니 또는 설명대할머니이라고도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남>

32. 선문대할망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 핵심화소 : 솔덕의 흔적

- 애월면 곽지리(郭支里)에 흡사 솔덕(돌 따위로 솔전이 걸리도록 놓은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선문대할망이 솔을 엮어 밥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할망은 밥을 먹을 때, 앓은 채로 애월리의 물을 떠 넣었다고 한다.

<1975년 12월 19일 한경면 고산리 이자영,77세, 남>

33. 선문대할망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 201-202

-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담, 죽은장오리, 거구, 하문에 각록 숨기기, 오줌으로 내만 들기

- 바지 잃은 사돈 이야기가 끝나 한참 웃고 다시 잡담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선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 설명두 할망, 세명뒤 할망 등이라 일컬어지는 이 거녀(巨女)의 이야기는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짤막 짤막한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전승되는데, 이 여인의 거녀적 모습을 표상하는 요소가 가장 많다.

설문대 할망이 잇어나십주(있었읍지오).

원 그건 모름주.거 뭐, 비단 백필만 허영 소중기 맨들어 주민(만들어 주면) 추즈도끼지 드리(다리) 놔 주멘(놓아 주마고) 허였다고.

주문헌단 흔 필이 부족하여서 못허여 주니 걸 아이 허여 쥐 부렀다고.

겨니(그러니) 설문대 할망이 경허여도(그리해도) 죽은장오리에는 빠전 죽었다고 하니 죽은장오리가 원 그렇게 짚은가(깊은가) 모르겠어, 그렇게.

한라산 머릿박호고 사스(泗水) 호고 추즈(楸子島)는 발 걸치고 허연 뉘난(누웠던) 할망(할머니)이라고 하니, 허허허. 엉뚱한 할망이주.

그 할망이 경 허였주게(그리 했지요). 한라산 우의(위에) 가가지고 옹(이렇게) 가달(다리) 벌건(벌려서) 오줌을 싸는디, 포수가 각록(角鹿)털을, 사슴털을 다올려 가지고(몰아서) 총으로 쏘을라고. 거, 굴 속에 곱아 부러(숨어 버려)

어, 보니,(이렇게) 보니 엉큼한 할망인디, 할망(할머니)그디 가 들어가 부러어, 각록이. 하하하하.

(조사자 : 각록이?)

각록이. 들어가 근지러와가니 오줌 싸니 것이(그것이) 내가 뒀었다고.

(조사자 : 아, 아, 아.)

설문대 할망이 크긴 커난(켰던) 모양이라 양. 각록 으나문(여남은) 개가 그디(거기) 들어가게쿠름. 허허허허.

[현원봉 : 옛, 말도. 허 허 허.]

<1979년 4월 22일 서김녕리 용두동 안용인,74세, 남>

34. 설문대할망

-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710
- 핵심화소 : 빨래하기, 오름만들기, 다리 놓기 실패, 하늘과 땅 분리, 설문대하르방과 음문으로 사냥하기, 감투
- 고재환씨의 안내로 송기조씨를 찾아갔다. 자그마한 방이지마는 글씨 한 폭이 걸려 있었다. 활달한 성격이요 익살스런 분이란 말은 이미 들었었지만은 괜찮은글씨 한 폭이 표구도 안 된 채로나마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생활감정만은 운치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취지를 말하고 제주도 전설로서는 가장 잘 알려진 '설문대할망'에 대해서 우선 물어 보았다. 제보자는 이내 이 마을 남쪽 내에 놓인 돌덩이 '족두리석'이야기부터 꺼냈다. '족두리석'은 꼭 족두리처럼 생긴 돌인데 설문대할망이 쓰던 족두리라 한다. 송기조씨는 이야기의 골격만을 말하고 마는 투여서조사자들이 가끔 질문을 던져야 말이 이어져 나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표준어화하여 말하는 편이어서 순제주도 방언과는 거리가 있는 말씨였다.

설문대할당 감투가 요디(여기) 이십쥬(있지요). [김영돈: 아 감투마썰? 어디 잇어마썰?] 고지렛도. 기연디(그런데) 거기 경주이원흠(慶州李元欽)이 족감석(族感石)이라 새겨졌쥬.

경주이씨 이원흠에 대한 겨레족재(族宇), 감동감재(感宇), 친족이 감동해서 새긴 돌이라 써진 게 잇긴 잇는다. 우리가 옛날(옛날) 들으니까, 설문대할망이 키도 크고 심도(힘도) 썩고(세고) 흐여난(하엿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착발(한쪽발)은 사라봉에 디디고 혼착발은 저디 물장오리라 고 거길 디디어서 산것물에서 빨래(빨래) 흐다가, 산것물에 빨래호젠(빨래하려고.) 구뵁호단(꾸벅하다가) 벗어지영(벗어져서) 털어져다(떨어졌다) 그렇게 말흐디다.

그 돌을 보민 혼편으로(한편으로) 영(이리) 모즈(幅子) 모양으로 뵈 디가(테가)잇언(잇어서) [고재환: 예, 있습니다.] [김영돈: 거 어디 잇어?] 여기서 주차장 감만호민(갈 만큼 하면) 바로 가갸우난(가까우니까) 볼 수 잇수다. [고재환: 가운디 영(이렇게) 보민(보면) 바로 모즈 썩난(썩던) 것갸치록(것같이) 되엿읍니다.] 그 모즈모양으로 뵈 거기에 경주이원흠 족감석이라 우리가 보니까 썩 이십디다. ‘경주’라는 건 ‘경주이씨’. 원흠의 본관 ‘경주이씨’를 말흐고, ‘경주이씨’이엔도 안흐고 그냥 ‘경주이원흠 족감석’이라. 이원흠 친족덜이 감동호 돌이라 흐니 그건 이원흠 이름을 나타내는 거주 그건. [김영돈: 이원흠씨호고 설문대할망호고 무슨?] 관계 읍읍니다. 그디(거기에) 글 새기는 이만 물어 보도(보지도) 앓고 이름을 나타내우젠(나타내려고) 흐는 것 뿐입쥬.

[김영돈: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어떻호영(어떻게 해서) 만들엇텨(만들었다고) 흐니까?] 요전이 아으덜(아이들)이 전설을 썩 주시오 호기에 썩 줘신디(주엿는데), 뵈엔(무어라고) 썩줘싱고(썩 줏는고) 흐니, 옛날에는 여기가 하늘광(하늘과) 땅이 부뵈다(붙었다). 부뵈는디 큰 사름이 나와서 떼여 부러다(버러다). 떼연(떼어서) 보니, 여기 물바닥이라 살 수가 읍으니 궂디로(가로) 물을 파면서, 목포(木浦)갸지 아니 파시민(파시쪽) 질을(길을) 그냥 내불테인디(버릴 터인데) 그갸지 파부니(파버리니) 목포도 끊어져다.

그것은 그때에 여기를 육지 맨드는(만드는) 법이 잘못호 거쥬.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흙)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이 떨어지민 큰오름이 뵈곡, 족게 떨어지민 족은 오름이 뵈엿다, 그건 옛말입니다.

[김영돈: 어떻하썩?]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흙)을 싸다가 많이 떨어지민 한라산이 뵈곡, 족게(적게) 떨어지민 도돌봉이 뵈엿다, 그건 옛날 전설이곡.저 생각으론 이 제주도를 처음 맨드는 분이 잘못 생각호엿어. 스방으로 흑을 지쳐시민(위로 던졌으면) 바다는 바다대로 가곡, 육진 돌아져시민(도려내졌으면) 뵈건디, 웨 육지레(육지로) 가는디 파부러트느냐, 나 갸뜨민(같으면) 파지 맵생(마시라)호켄(할 걸).

[김영돈: 육지호곡 부뵈당은에(붙었다가는)] 부뵈(붙은) 게 아니고 전부 물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뵈는디 친지개벽호 때 아미영호여도(아무리 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

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계가 열렸느냐 흐민 아주 키 크고 쎌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흐고 땅을 밋트로(밑으로) 흐여서 흐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읍으니 궂드로(가로) 돌아가명 흑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 흐는디 거 다 전설로 흐는 말입쥬. [김영돈: 하, 다 바당이었는데 예.] 예. [김영돈: 또 속옷 이야기가 있던데 예?]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 허리만 당혀 주면은 목포레 가는 드릴(다리를) 놔주겠다(놓아 주겠다).기연디(그런데) 그걸 흐여 주질 못혀여서 드릴 못 낫고(놓았고). 기여니 명지(명주)가 멧동이 드는지 알 게 뭐야 윈, 워낙 커노니까. 기영흐난 못 낫쥬(놓았지).기연디(그런데) 그 때도 그런 말이 잇엇답니다. 만일 드릴 놓앗더민(놓았더라면)호랑이 제와서(겨워서) 못 살 거라고. 호랑이·범이 들어오거든. 현대 제주도에 웨범이 읍어 젓느냐 흐면은 구구곡(九九谷)이라고 아은아읍골이 이십쥬. 거(그것) 백골 웨여서(는) 범이 와 살 테인디(터인데) 골 흐나히(하나가) 부족하니 범은 범흐지 못한다. 육지 가도 제주도 사름신디(사람한테) 범이 맹이도(다니지도) 못한다고,혹내 남쟁(난다고). 제주도 사름 안탄(사람한테는) 범이 아니 오라(와).

[김영돈: 기연디 원래 제주도에 범이 잇엇단(있었다가) 어디 중국 사름이 들어완에(들어와서는) 흐 골짜기에 몰아단 범들을 죽여부렀다 흐는 말도 잇는디예] 그런 말 못 들어났수다. 혼디 우리 은(자란) 후에 궂지 잇어난 게 깝녹(사슴)·산뿔지(멧돼지), 곧 멧뿔지, 그것은 우리 은 후에 궂지 잇어나십쥬(있었었지요.)

[다음 부분은 녹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살짝 덧붙였다. 녹음은 되어있지 않다.]

설문대하르방이 잇어났쥬(있었었거든). [김영돈: 설문대하르방도 잇어마썸?] 설문대할망이 이신디(있는데) 하르방이 웃입니까. 할망이 이시민 하르방이 잇쥬. 하르방이 잇다가, “궂기(고기)가 꼭 먹고 싶다.”

고. 할망이 곧는(말하는) 말이,

“한라산 꼭대기에 강 잇다가 나 말대로만 흡서(하십시오).”

갓어. 갓는디 하르방 보고,

“당신이랑 한라산 꼭대기에 가져 대변 보멍(보면서) 그것으로 낭(나무)을 막 페어 두드리멍(두드리면서) 오줌을 작작 꼴깍서(갈기십시오). 꼴기면은 산뿔(멧돼지)이고 노루고 다 잡아질 텡쥬(터이지요).”

아닌게 아니라, 이영했더니(이리했더니) 산뿔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전 누워 잇엇덴(있었다고). 비브름 피흐젠(피하려고.) 흐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그곳, 陰部) 간 문 딱(모두) 곱안(숨었어). 곱으니(숨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단(잡아다가) 흐 일년 반찬 흐연

먹엇덴(먹었다고) 햏여.

<1980년 11월 23일, 오라동 동카름, 송기조,74세, 남>

35. 설문대할망

-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1990. pp. 79-80.

-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담, 나막신 자국, 산신제흔적

-설문대할망에 관한 얘기를 채집하기 위해 제주도 일원을 두루 다녔으나 이미 채집된 내용에 비해 특이한 점을 거의 발견치 못했다. 그러든 중 玄容駿 교수님으 로부터 이 李原祚의 耽羅誌 (奇聞篇)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내용은 “朝天邑 新村里에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남아 있다” 는 것이었다. 이 기록 내용이 현재 구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朝天,新村里일대를 사흘간이나 수소문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출기도 하고 해서 조천 신촌 경계지(속칭, 권물)에 있는 친구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할머니가 계셔서 인사드리고 살아가는 얘기 끝에 설문대할망에 대해 물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걸 부추겨 세웠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젠 잊어부런, 다 잊어부런 잘 몰라. 요센 그런 말 허지덜도 안 허곡. 건디(그런데) 닛날 엔(옛날엔) 그런 말이 이섯쥬(있었지). 설문대할망 이랭헌(이라고 한)지레(키) 큰 할망이 이섯는디 가달을(다리를) 벌리븐(벌리면) 추자도까지 가는 할망이. 건디 할망 지레가 하도(위낙) 커부난 옷을 못 입영 살았거든. 그래서 제주사람덜 암피(제주사람들한테) 옷을 멘들어 드랜. 거문(그러면) 육지꼬지 드릴 노아주겠다고. 아, 할망이 옷을 멘드라주민 (필자 : 무신 옷 마썸?) 무신 옷은 무신 옷이라 드리마개 (두루마개)쥬. (필자 : 속옷이 아니고 예?) 그건 요섯사람덜이 멩글어(만들어) 낸 말이고, 육지까정 드릴 뇌주겠다고 했거든. 건디 제춌사람덜이 베 혼필이 부족해와서 옷을 못 멩글아줬거든. 게난(그러니깐) 놓던 드릴 설러부렀쥬(그만뒀버렸지). 으기 대섭도 할마님이 드리 놓던 그못(자취)이고, 영장매도 그못이쥬.(필자: 옛날 책에 보난 신촌 어디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있덴 행게 그런 말 못들 어파수파?)

무신 책(필자 : 조선시대 책마썸) 누겐지 몰라도 이시난 씨신테쥬. 난 잘몰라.

...으기 대섭 말인가? (필자 : 어디 마썸?) 닛날 그런 말이 이신킨거라. (있을 걸.) 으

기 대섭 들어가는 물통. 그 빌레(바위)에 나막신모양(치럼) 과정(과져) 싯쥬(있지). 그건 당추 황당헌 소리고. 건디 그걸 할마님 나막신 즈국이렌 해났덴 허난 ……막 잇날에.

(필자: 으 대섭 빌레에 파진 웅덩이 말이쥬예?) 응.

(필자: 건디 할머니 옛날 산

신제도 해나수짜?) 해났쥬.

(필자 : 거른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짜?사설중에?)

닛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때까진 불공) 드릴 때 해났쥬. 저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필자 : 어떤 심방 마쥬. 그 심방 이름 알아집네까?)

그 머시나 김 머시던가,

이 머시던가? 오래부난 잘 몰라. 그 심방이 우리영 산신제(山神祭) 불공 드릴 때 잘해났쥬. (필자 : 그 사실 흐썰도 모르쿠과?) 이젠 몰라. 해난 거 듣기만 했시니까.

건디 백록산신(白鹿山神)이영 오백장군(五百將軍)이영 해나긴 해서.

<1988년 11월16일 오후 2시, 조천읍 조천리, 김수동, 제보자자택, 79세, 여>

37 설문대할망

- 설맹이 할망과 백사장(표선리 원로회) 『표선리 향토지』, 1996.
- 핵심화소: 한라산, 당개할망, 바당, 한집, 명주, 속옷, 음부, 다리, 죽 오백장군, 설문대할망, 표선리, 한모살

① 개요

이 이야기는 표선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당신본풀이이다. 당개 할망 혹은 설문대할망의 좌정 경위의 이야기이다.

② 내용

옛날 한라산에 솟아난 당개할망은 저 바당 한 집과 사이에 아들이 7형제였다. 명주 99동을 모아 속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음부를 가릴 한 동이 모자라 결국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지 않게 되었다.

그때 7형제 중 다섯 형제는 한라산 오백장군을 거느리고, 아들 하나는 할망의 부름으로 와서 죽을 쭈다가 죽에 빠져 죽어버렸다. 이 아들은 소섭을 차지하는 신이 되고 다섯 아들은 한라산 오백장군 오백 선생을 거느리며 죄정하고, 설문대할망은 표선리 한 모살에 쌓아서 만든 공이 있었는데 거기를 좌정처로 삼아 당개할망이 되었다. 나주목사가 여

기에 와 설문대할망의 영험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③ 특징

설문대 할망 이야기를 대략 살펴보면, 배설물로 지형을 만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의 형태로 설문대할망이 회화화되거나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 지기도 한다. 그리고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는 설문대 할망이 해녀들을 보호하고 부(富)를 가져다주는 당신(堂神)으로 나타나며, 제주의 뱃사람 들은 설문대할망을 그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믿었음을 보여 준다.

설문대할망은 창세신이었다가 전설로, 다시 당신으로까지 변이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현재 신성한 이야기로 전승되는 특이한 경우다.

37. 설문대할망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8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1, p. 128.

- 핵심화소 : 지형창조, 오름만들기

-설문대 할망에 관련된 설화. 설문대 할망 있잖아요?

“설문대 할망은 뭐 알아저게.”

-아세요?

“옛날에 우리 시부모가 설문대할망 속옴 하나 행 입젠하나 멩질 뭐 선필을 췌 텐 해라 선필 산맹드는 것도 삼으로 그자 호나 탁 거러놔그넝 발로 탁허믄 오름 되고 이 오름들토 설문대할망이 ……”

-아 금악에 있는 오름들…….

“아 금악 아니고 다른디 다 선필이 아니고 선둥이 들어서 속옴을 행 입었텐 하 난 얼마나 큰 할망인지 경고릅디다. 예 계난 오름도 삼 흙 한갈래 행 탁행 탁밖르 른 가운데 파지지 았아수가게, 계난 거막오름은 무사 거막 오름이랜 햐신고 하난 거무많이 모여지난 거막오름이랜 해나서. 그건 어뎡 알말이라.”

<한림읍 금악리, 양경옥(71, 여)>

38. 설문대할망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8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

학과, 2011, p. 129

- 핵심화소 : 물장오리, 죽음, 거구

-물마다 얽힌 전설같은 건 어수짜?

“물마다 얽힌 전설은 한샘이 물에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 물이 그렇게 깊었다. 하는 뜻에서 그런말을 농담삼아 말하지만은 물장오리에 설문대 할망이 빠져죽었다는 말이 있지? 거기는 물장오름 저기 가면은...거기는 이제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은 무슨 전설이 있냐면 우리가 듣기로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에서 이제 이래 바닷가 까지 한쪽 오르젠 올라가니까 덜렁자빠지는게 금악오름에 엉덩이가 탁 닿았어 닿으니까 오름이 폭 빠져서 이제 암매(산이 들어갔다)가되었다고. 올라가봤지? 그디 물많이 고인데, 설문대할망이 폭빠지고 이제 한라산봉우리 물이 할매가 이제 머리로 탁 치니까 돌이 탁 깨져가지고 물이 탁 들어가니까 그 우물이 한라산으로 발은 어디로 향하나 비양도 비양도로 발을 탁 뻗히니까 비양도가 워낙 높으니까 비양도지 발힘으로 딱 눌러부렀다고, 설문대할망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모르겠다만은 그만큼 컸다고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할망이주 상상은 못하는거라이 할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런 전설들을 농담삼아 붙여지는거고.”

<한림읍 금악리, 양일화(81, 남)>

39. 설문대할망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9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pp. 119-120.

- 핵심화소 : 치마로 오름만들기, 죽음, 물장오리

- 질문자 : 막 설문대할망 이야기 있잖아요. 완전 옛날 이야기요.

양병생 : 설문대할망 이야긴 어떻게 말이광? 하하하하하.

질문자 : 큰 할머니 있었다고 막.

현술생 : 설문대할망이 게 무시하게 할망이 무슨, 허, 원당봉에서 그 저 가던걸, 저래 빨령(빨려 들어감) 장우리 해신디.

질문자 : 아 원당봉에 아.

양병생 : 장오름서게. 거게 가달 벌청 바다에서 빠래했더명 골아났덴.

현술생 : 네 절로단에 한 거. 또 그 오름이 그 설문대할머니가 치매(치마)에 흙을 싸가지고 영 가명 흐끔씩 흘쳐부난 다 오름이 뗏덴 해.

질문자 : 아, 흘러가지고. 그럼 그 흙은 왜 가져간 거예요?

현술생: 응?

질문자 : 치마에 흙을 왜 가져간 거예요?

현술생 : 치마에 치마에 흙을 쌓 영 들러가명 조금씩 흘쳐불렀지. 다 오름이 됐다고. 설문대 할머니가.

질문자 : 아, 오름을 만드셨다고요. 아, 그럼 제일 많이 한 거는 그 한라산이 된 거예요?

현술생: 응. 경헌디 경헌디 개중에는 그 할머니가 줌, 줌 커도 장오름물에 물에. 빠져 죽었던 안 해시냐? 장오름. 장오리. 장오리 물에 빠져 죽언.

양병생 : 물장오리요? 물장오리. 물장오리. 물장오리. 우물에 빠져 죽었져 그런 말씀 아니 크냐.

<도련 1동, 양병생(여, 77세), 현술생(여, 80세)>

40. 설문대할망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9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pp. 120-121.

- 핵심화소 : 족두리바위, 바둑판 흔적

- 양상수 : 저, 오라 가면 족두리도 있을 거야.

질문자 : 족두리요?

양상수: 어, 족두리.

질문자: 족두리는 뭐예요?

양상수: 설문대할머니 족두리 아마 바둑도 뒀난 모양인데 바둑판도 거기 어디.

고중휴: 거 내창에 있다고.

질문자: 내창이요? 바둑돌도 그럼 바둑판이 아니라 바둑돌예?

양상수: 바둑판.

질문자: 바둑판? 바둑판도 있고 족두리는 그러면 돌을 말하는 거예요?

양상수: 어, 돌이 족두리같이 아마 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설문대할망 쓰던 족두리다.

질문자: 그 뭐 설문대할망이랑 설문대할망이 아들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못들어 보셨어요?

양상수: 그건 못 들어보고.

<도련 1동, 양상수(남, 77세), 고중휴(남, 77세)>

41. 설문대할망 설화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0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3, pp. 97-98.

- 핵심화소 : 다리놓기 실패, 목포, 오름만들기

- 질문자 : 그럼 혹시 할아버지 그냥 일반적인 설화들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오백장군이나 아기장군이나 설문대할망 같은 거.

임완송 : 아아, 그 설문대할망이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얘기하는거 보민 설문대할망이 목포하고 제주시 사이에는 제일 깊은 바다에 들어서도 무릎, 무릎밖에 안 닿는데 그 장우리물에 푹 빠지면 모가지까지 닿는다고 그런 말은들었었는데. 그 설문대할망 하는 말이 제주도민에게 자기가 입을 옷 한 벌만 해준다면 자기는 목포와 제주 사이에 다리를 놔주겠다고 그렇게 한 디도 불구하고 전도민이 돈을 모여도 그 설문대할망 옷 한 벌 사줄 돈이 없어서 다리를 못 놔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설문대할망이 그 흙을 자기 앞치마에 흙을 잔뜩 집어 놔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흙을 조금씩 조금씩 놓은 것이 그제제주도 250개의 오름인가 450개 오름인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조천면 와흘리, 임완송(남, 82세)>

42. 설문대할망 설화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1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4, pp. 97-98.

- 핵심화소 : 오줌누기로 물 만들기.

<김만봉> : 설문대할망은 워낙 크니까 옛날 한라산 백록담에서 얘기할만 한데가 비양도 밭디더서 오줌을 썼다. 그것이 한라산에 화산 꼭대기의 장애 물이 있다. 그것이 한라산에 화산 꼭대기의 장애 물이 있다. 설문대할망이 그렇게 컸다는거라 그래서 오들노루가 과거로 생각해보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한 끄트머리가 ??? 그러면 또 하나는 비양도라고 하면 여섯이 된거 아니냐 우리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설문대할망이 그렇게 컸던 모양이야. 그 오줌강 식량 그것이 물이 되가지고 이제 먹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물이 하도 많다 이거야.

<질문자> : 그래서 물이 많구나.

<김만봉> : 다른 외국에는 물이 없어서 물이 금 주고 받았다는데, 제주도는 그 설문대 할망이 오줌을 많이 싸부니까. 푸하하그 전설이 있다니까.

<조천읍 신엄리, 김만봉(남, 83세)>

43.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2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2006, pp. 275-276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속옷을 그 천을 뗏 필을 헤여그네 그 속옷을 해주민 이디왕 저 이 육짓 사이에 다리를 놔 주켄 겐디 한락산 꼭대기 광 그 새에 혼 발짜국이민 영 가달을 티왕 가낫젠 허주게. 경헌디 그 천이 모지렌 옷을 내일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난 그 할망이 그 일로 저래 다리를 못 놔줬젠 경헌 말이 이서. 설문대 할망이.

<조사자> : 이 그 할망이 그 할망이구나

그 할망이 그 할망이주~

<조사자> : 계민 그 속옷은 얼마나 들엇길레 경헛우가?

얼마나 계난 그 속옷이 너미 할망이 커노난 천이 몰라 당혈수가 어서서 너미 커노난 옷을 영 뗏 필을 들여도 그 속옷 하나 만들수가 업엇어. 경허난 당허지 못허난 속옷을 만들 수가 어시난 그 할망이 속옷을 허여주민 이디서 육짓 사이에 다리를 놔주켄 헤도 그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나네 그 다리를 안 놔 줬젠 허주게

<2005년 7월 31일. 신흥1리 마을회관.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44. 설문대할망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2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2006, pp. 328-329

- 핵심화소 : 한라산·오름만들기, 속옷 만들기

- 설문대 할망 이 육지 육짓 할망이라 보랜 육진디 이 제주도에 오름 영아리니 붉은 오름이니 한라산이니 제주도에 오름이 그 설문대 할망이 저 제주 한라산을만들언

<조사자> : 하하하~ 한라산을 만들언??

한라산을 만들젠 그 어떠케사 커신디 육지 혼 가달 노코 제주 혼 가달 노코 이러케 이러케 별겨사네 삼으로 육짓 흘글 한라산더레 맨들젠 가명 혼글호꼼씩 털어진 것 조금 털어진건 죽은 산 크게 털어진건 큰 산 이러케해서 경헨 그 삼으로그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엇썬.

<조사자> : 아~ 경헨 쪼그만 떨어진건 오름뒤편고, 겐디 할머니 무사 한라산은 영 세워시민 산처럼 영 생겨야 돼살건디 무사 영 가운데가 영 파져신가마심?

그거 갱 그 훑아사당으네 잘락잘락 비우당보른 거 카진디 이실꺼여 나 거께진 모르고~

<조사자> : 하하하 아이고 막 커신게 거 한라산 만들젠 하믄>

겐디 그 할망이 옷은 속옷을 아흔아홉 필을 들어넌 속옷을 헤노앗썬

<조사자> : 어 막 커부난

응. 아흔아홉필 그건 속옷을 헛썬~

<조사자> : 그 멩주 속옷이렌 하지 안습니까?

이 멩주던 베던 무명이던 그 할머니 속옷은 많이 들엇텐. 아흔아홉 필을 들어야 속옷 흥나 헤연 입엇다

<2005년 7월 29일. 제보자 자택.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45. 설망도 할망 이야기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4, pp. 127-128

- 핵심화소 : 옷감 부족, 오름 만들기, 물장오리

- <조사자> : 바매기 가지깡이 물에 설문대 할망 빠져 죽엇던 행게양. 그 말 흥끔 그라 줍서.

옛날 설문대 할망이 이서났썬. 그 할망이 저 바당(바다)으로 건너 와도 발등도 아이 즈물안허난, 멩취(멍주) 쉰 동을 아전 소중이를 혀도 처자가 부족허연 못허연. 이젠 치메자 락에 흘 흘 갈래죽을 싸이전 땡기명, 이디 강 독독 저디 강 독독 문디려부난, 그게 문 저 바매기가 되엇쟁 허주게. 또 물장우린지 텍장우린지 강 나 요디나 디더보민 발등이 즈물 크냐 허연, 설문대할망이 양 가덜을 영 허여났썬. 비 오커냐 안 오커냐 하늘을 씨려났썬 헛디다. 하도 커부난. 게난게 멩주 쉰 동이민 거 땡 필이라. 거 처지도 부족허연 못허영 입엇썬. 경허난 이젠 물장우린지는 아이 디디고, 바매기 꼭지엔 현 동그란 물 이시난, 이 디나 나 지레광 그튼 물리카(물인가) 허연 디디난에 움막 들어가 부런. 장우리에 상 그

물을 보민 보말도 조랑조랑 돌아지곡 가지깁이도 이서듬서, 그 물이 죽을 사름은 보곡
살 사름은 아니 보인덴 허매.

<1992년 7월 24일, 북제주군 조천읍 선홍1리 제보자 자택, 부의함(여, 81세)>

46.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85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큰 할망, 먹성, 산방산, 군산, 기운, 말

- <조사자> : 그 할망이 어떻 만들엇인고예?

그 할망이 어떻사 어떻사 만들엇인디 그 할망이 다 헛젠 허주게. 산방사도 돌 멜라지는
거 그 할망이 올려낫젠 허곡, 들영 오려 낫젠 허곡, 군산도 혼 펜으로 툫아지는 거 그 할
망이 흑으로 메꿨젠 허고 경 쫄아낫주게, 할망이 너무 기십이 썬어노난, 감당을 하지 못
해서 밥도 뭐 큰 함박으로 서른 개 먹엇젠 헤냐? 경 먹엇젠 옛날에 보리밥게, 아 우리
밭 가는 장남도 큰 사발로 두 개씩 먹으난 그런 할망게 먹당도 버치주게, 배가 커노난
거주게

<조사자> : 건디, 설문대할망 옷은 머 하나 저기 부족헤네예?

옷은 저 무스것이 부족헛젠, 멘든 것이이 다리 혼 차 그들어갈 바지가 엇엇젠 부족헤연.
그슴으로 멘들다 보난 다리 혼 작은 멘들 거 엇언, 할망이 입젠 보난 다리 혼착이 엇언
젠 허여.

<조사자> : 게난 그 옷을 누게안티, 할망이 멘든 건가예?

할망이 멘들이 아녀고 누게가 멘들엇인디 그기 바느질 와치가 멘들앗일테주. 나 그거 들
은 말이주게. 경 즐바로 들어젇어? 아이 때난 할망 옛말 곱읍서 옛말 곱읍서 허민 할망
덜게, 옷도 혼 작은 부족헤연 멘들지 못헛젠 허고, 산방산엔 다리 혼 착 걸치고, 군산에
다리 혼착 걸치고, 저 한라산에 머리뺍 뵙 누웠젠 허주게. 큰 할망이라. 우리 들은 말이
주게 옛말 곱으멍,

<조사자> : 그 걸 헤기네 바쳤인가 아니면 이녁 냥으로 행.

옷은 멘들다 보난 기지가 부족허난 다리 혼착이 들어갈 것이 엇엇젠 게난 몰라게 다시
멘들양사 입젇인디, 무시거 멘들아 주켄 아녀고 바느질 와치가 간 멘들다 보난 옛날은,
미녕산디 광목산디 허난게 부족허난게 혼 착 엇이 그냥 내부난 할망이 입젠 허난 다리
혼착이 들어갈 것이 엇언게. 경 헛주게. 기지가 부족헤 부난.

<조사자> : 할망이 막 커부난. 할망은 저기 바느질도 잘 헛인가? 옷감도 잘 찢인가예?

아이고 ㄱ만이 앓앓이민 헤다 주난 입엇주 그 할망 만들미랑마랑.

〈조사자〉 : 경 허곡 설문대할망은 말도 탕 땡겄덴 헛디가?

몰도 죽은 몰이 아니라 탕젠 흐는거 보민 완전히 가달 혼착은 몰 하나에 가달 혼착은 몰 하나에, 가운데 타고 경 헛젠 허메. 몰이 세 개게. 몰이 가운데 하나 양착 다리에 하나씩 흐고 앓안 땡겄주게. 게네 이경 땡이는 사람도 잇어. 남자게. 몰 이경 땡이는 종 늬도 잇엇젠 허메. 게난 우리 보도 쓰도 아년 들은 말.

〈조사자〉 : 색깔은?

색깔도 모르고 경 몰 세 개에 땡겄젠 들엇주, 무신 하간 말 하도 커 노난 경 헛젠 말 만 들엇주.

〈조사자〉 : 거문 시에 사는 할망이 시에 잇당도.

어디 가젠 허민게 몰.

〈조사자〉 : 감산리나 여기도 와났덴 헛인가?

우리 할망덜토 그 옛날 들은 말로 옛말 곁는 거난.

〈조사자〉 : 예 거난 설문대 할망은 아들이 잇엇이카예?

아들사 신디, 딸사 신디 늬 알 거여? 아길 안 낳젠 들은 거 잇어, 예긴 어디 갓수과? 흐난 아긴 나젓이나. 우리 할망이 또 경 곁는 것도 닙고 몰라. 아들이 나오질 아녀난 몰르주, 하.

〈조사자〉 : 삼촌, 영등할망 이야기허고는 딱납니까?

딱나주게 영등할망 흐고 이 할망 흐고는 딱나주게.

〈조사자〉 : 어떻 딱난고예?

영등할망은 바당으로 들어오는 할망이고 씨부리레. 바릇씨여 전복씨여 보말씨여 씨뿌리레 오는 할망이고, 이 할망은 설문대할망, 커 노난 설문대엔 헛주.

〈조사자〉 : 설문대가 무슨 뜻인고예?

설문대 곁이 크다. 예 설문대 곁이 지레광 큰큰 흐게. 말이 입으로 나는 것이 지레가 흐끔 경 아이고 설문대 할망 곁이 즐바로 허라 지레만 큰큰 헤듬서 경 벨량으로 곁는거.

〈2017년 3월24일,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여, 제보자자택, 1933년생〉

47.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255p.
- 핵심화소: 설문대, 오줌, 한라산, 산방산, 용머리

- <조사자> : 설문대 말 들어납디가?

설문대 할망게 뭐 한락산에 혼착 뭐 혼착 허여그네 요 산방에 허리 굽었다가 거기서 뒷 빠졌다 뭐 허리 굽었다 먼 그런 소리로 아으때 들어봤지.

<조사자> : 아이 때예?

응, 가달이 널르고 키가 크고 혼니까니 머, 한락산에 혼착 산방 혼착 가달을 이렇게 걸쳤 어이, 걸쳐서 영 굽었다가 그디

“산방 그 알넉편이 그것가 무슨, 용머리 거기서 뭐 오줌 싹인디 세수 흡인디 헛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다”

굴아, 그런 말은 들어봤어.

<조사자> : 설문대 할망이 웃은 잘 만들었인가마씨?

거 웃 멘들고 안 멘드는 건 잘 모르고이, 경 하도 키가 커갓고 경

“한락산 혼착 산방산 혼착 가달을 탄 오줌 싸다가 거기서 박아졌다”

혼 말을 들어봤어, 그런 말은 들어봤다고. 육지 나가젠 헛단 보난 거기서 발 걸쳤다가 오줌싸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붙어, 그런 말만 들어봤어. 설문대 할망은 무슨 뭐 한락산에 허리, 마라도엔 발, 어딘 뭐 굴으민 들어명 해나네.

<2017년 5월15일 안덕면 감산리 고재일, 여, 제보자 자택, 1927년생>

48.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230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소변, 생케못, 민악, 부대악, 민오름, 급수장, 봉천수, 말, 소

- <조사자> : 거른 아까 그 설문대할망 들었던 거.

설문대할망이 워낙 크긴 커난 모양이라이. 여기 저 부대악이엔 현 오름 잇지? 이 수돌 목장, 이수돌 양잠단지 잇지 않아? 안 봐났일 거라게이. 양잠단지에논이. 안 봐났지?

<조사자> : 예.

거기 부대악허곡 저 민오름에는 민악허고 그 양사이에 급수장이 잇었어. 소와 말 먹는 급수장, 계난 그 물이 설문대할망이 양쪽 오름에 영 걸쳐 앓안. 소변 봐 부나네 그 물 생겼젠, 그영 현 말 들어났주게. 우리도 어린 때. 계도

<조사자> : 아, 기마씨? 그 물이름은 뭐 마씨?

생케못, 생케못이런 현 못, 계난 그 부대악허곡 민악, 민오름이엔 현 그 민악 허곡 양 사 이에 그 물이 잇었어, 급수장이이.

<조사자> : 예

소, 말 거 이소장 목장인데, 옛날은 공동목장으로 헐디, 지금은 전부 그 가인털명이 있어
나나네 가인털 좇이해부난 목장이 어서저신디, 옛날은 다 경 헐. 그 물이 그 설문대할망
싼 소변으로(웃음) 물이 뻘젠 옛날게, 우리 들어낫주게.

〈조사자〉 : 아아.

바로 그 오름 양 사이에 물이 있어, 생케못이라는 급수장 물이, 소 먹는 물이.

〈조사자〉 : 아, 건 봉천수 아니예?

응 봉천수계, 지금도 물 실거라.

〈조사자〉 : 아

그 물 있어, 계난 지금은 이, 말 소 없어노니까 목장덜 다 뻘주만은 전부 수물뉘블연.

〈2017년 5월18일 조천읍 와산리 고근송,여 , 제보자자택, 1930년생〉

49.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231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바당, 산방산, 한라산, 육지, 다리, 형제섬, 명주(맹지)

- 〈조사자〉 : 설문대, 한라산 오름 만든 할망 말도 곱아 줘서.

이제 머 멧고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 잇 너무 커 부난, 빨레 허젠 허난 산방산에 다리
걸치고, 저 한라산에 발 걸친 빨레 허고, 저 설문대할망이 너무 커 부난 죽지 못허연.

“아이고 어디 간 죽으코.”

저 한라산, 물에 강 죽젠 허난 이거 사지는 못이 었언.

〈조사자〉 : 여기가 사전에 요기가 물속에 못 들어 간?

너무 얇안.

〈조사자〉 : 너무 낮아부난, 물이 낮아부난?

응, 물이 낮아부난 못 죽으나네 저 바당 물에 간 빠전에.

〈조사자〉 : 바당물 어느 바당물 마씨?

저이 형제섬 앞이.

〈조사자〉 : 어떻 살앗인고예? 할망이 막 커부난.

아이고 게메, 지금은 생각허문 다 거 거짓말, 어디 저 발 산방산에 걸치고 한라산에 걸치
고 빨레 허여? 죽지 못 허난게 저 한라산 물에 빠정 죽젠 해도 죽지 못 해연, 바당에 강
빠전 죽언.

〈조사자〉 : 설문대할망 옷 만든 거 알아지쿠과?

설문대 할망게 커부난 저, 명지 아흔아홉 벌만 헤다 주면은, 이제 그걸로 옷 해 입곡 저 육지광 제주도에 다리 놔주켄 흐난, 하나가 모지렌 아흔아홉 갠디 백갠디 하나가 모지렌 못 놓아퀘.

〈조사자〉 : 어디광 어디 사이에 제주도 어디에 다리 놓젠 헤신고예? 제주도 다리 놓을 디가?

몰라 그건.

〈조사자〉 : 그건 모르고 육지광 제주사이에.

응 다리 놔주켄 흐난 그건 못허고.

〈조사자〉 : 멩주 혼 필? 멩주 혼 동이가 부족헤연마씨?

백 필만 헤다 주민게 저걸로 옷 해입곡 육지광 제주도 새예, 다리 놔주켄 흐난 하나가 모잘연 못 헤연.

〈조사자〉 : 흐나가 모지란 경 헛구나예. 게난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에서 죽지 못허고 저기 형제섬에서 죽엇구나예, 저기 막 짚으과? 형제섬이.

짚은 디고 잇곡 얇은 디고 잇곡, 멘찍 아녕 짚은 바당

〈2017년 5월20일 안덕면 사계리 박군생, 여, 제보자 자택, 1916년생〉

50.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234-235p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다리, 영장메, 소중이, 물장오리, 한라산
- 해안도로쪽으로 가면이 해안도로쪽에 영장메가 잇는데 동산같은 비위로 된 동산인데, 설문대할망이 육지에 다리 놓기 위해서 기초를 닦던 다리라고 그래, 그계.

〈조사자〉 : 영장메가?

어 설문대할망 저 박물관에 가면 그계 나와.

〈조사자〉 : 그런 거는 언제 들어난 마씨?

어린때부터 들은 거지?

〈조사자〉 : 음, 그냥 웃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덜 허는 얘길 들엇어.

〈조사자〉 : 거문 영장메를 그 말들었다고?

응, 기초해서 만들어 가다가 안 했덴. 그 어떻게 해서 안 했나, 그 체구가 굉장히 큰 할

망이라이. 계난 할망이 자기 입을 소중이 하나만 만들어주면이 다리를 놔주겠다 했던 거라. 계난 전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뭐 미녕메기라고 그레이 이 광목. 이런 거를 수집했는데도 그 할망 입을 소중기를 못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장오리 물에서 빠져 죽었는데 그거 허다가 못 헨거, 할망이 물장오리 가서 죽은거, 물장오리. 물 알아?

〈2017년 5월23일 조천읍 신흥리 김기배, 남, 신흥경로당, 1935년생〉

51.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155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파군봉, 베개, 큰 관탈, 죽은 관탈, 발가락,키
- 설문대할머니가 얼마나 키가 컸는지, 파군봉을 베개 삼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더니 큰 관탈, 죽은관탈 알지? 거기가 설문대 할망 발가락이렌 헛어. 그만큼 컸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들었는데.

〈2017년 8월10일 애월읍 하귀1리 배광시, 남, 하귀1리 노인회관, 1938년생〉

52.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1, 2017, 355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한라산, 성산오름, 산굼부리, 멧지, 속옷, 송악산, 산방산, 오줌
- 설문대할망 역사를 다 모르는다

〈조사자〉 : 어릴 때 혹시 들어났우과?

들어나긴 헛인디, 설문대할망이 어떻게 컷인디 멧지 아홉 필을 헛인디도 속옷 하나를 못 헛인디 한라산 발 흔짝 올라난 디가 거리 물 골르고 성산오름 한 쪽 놓은 디가 그 디가, 오름이 뤼고 산굼부리엔 오줌 싸부난 그 물 고인 거랜.

〈조사자〉 : 산굼부리가 마씨?

경 흐고 대변 본 거는 저기 송악산이고, 닭을 거 엇이난 돌 하나 심어 닭아난 게 산방산 이주.

〈2017년 11월2일 표선면 가시리 오국현, 남, 제보자자택, 1935년생〉

53.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112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키, 백록담, 한라산, 검은오름, 바르메오름, 금악봉
- 〈조사자〉: 설문대할망예.

근거는 없고, 근거는 없어도 키가 한라산, 여기서 추자 관탈꺾지는 다리를 놔가지고 그냥 걸었다고, 한라산 꼭대기에서는 그 백록담에서는 그때 빠져 낫다고 이런 것이 이서. 계난 키가 얼마나 컸는지 저 그 한라산을 그 바르메오름을 베게 삼아 누우면은 검은 오름 금악봉꺾지 발이 닿았다고 이제. 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로 내가 그런 전설을 들은 적 있어 마씨.

〈조사자〉: 설문대할망 이야기 또 다른 거 아는 거 잇우과?

예.

〈조사자〉: 키만 엄청 컸다?

예. 키만 엄청 컸다는 얘기만 들었우다.

〈조사자〉: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만들었저 허는 얘기는 안 들어봤우과?

그런 거는 안 들어봤입주.

〈2017년 12월19일,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제보자 자택, 1934년생〉

54.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3, 2018, 85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큰다리, 작은다리, 할망, 산짓물, 빨래, 한라산
- 〈조사자〉: 설문대할망 들어봄디가?

옛날에는 설문대할망이 하도 크난 큰다리 죽은다리 가달 걸청 다리 영 사그넝 굽영 산짓물에 빨래 해넛텐 말 들어본 적 있어.

〈조사자〉: 아 산짓물에서 빨래헨?

어어, 큰 다리 죽은 다리 한라산에서 큰다리 죽은 다리가 있어. 그리 양착 밭 걸청 굽영 산짓물에 빨래헨젠 하난 할망이 좀 죽았어?

〈2018년 7월19일 제주시 오라동 서인순, 여,오라동 사평마을회관, 1937년생〉

55.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268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 속곳(속옷), 목포, 다리, 범

- 아, 설문대할망이야 옛날 해가지고 거 할망 속곳 하나 멘들어 주며는 목포에서 제주 깎지 다리 놔 준다고 해가지고 허며는, 게서 제주도에서 거절허는 게, 그 왜냐른 그 다리 노며는 육지서 그 범이 제주도 들어온다고, 제주도에 범이 없으니까 그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주사람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다릴 못 놓게 해여.

<조사자> : 설문대할망이 그리해 준대 했는데.

어, 속곳 하나만 멘들어주면 그걸 다릴 내준다고 했는데 그 범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거절을 해가지고 그걸 안해.

<조사자> : 그건 어릴 때 들은 얘기우파?

그 전설이지 뭐.

<2019년 5월30일, 서귀포시 예래동, 김순봉, 여, 하예1리 경로당, 1933년생>

56. 설문대할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3, 2018, 282p.

- 핵심화소: 설문대할망당, 한라산, 고근산, 범섬, 일본, 다리, 쌍동굴, 속옷, 구멍

- <조사자> : 설문대 할망은 들어봄디가?

설문대할망이 동쪽에서 한라산에 강 밭 뺨으난 고근산이 되고 오름이 되고

<조사자> : 한라산에서 누워가지고예?

한라산에서 폭발허난 그 튀어 나온 것들이 돌아냥 문섬되고, 할망이 하나씩 돌 던진 것이 그게 바당에 들어가난 썩은 섬 된 거.

우리 마을에서는 고근산 굼부리가 음막해여, 거긴 설문대할망 엉덩이 앉은 거, 호근리 고근산, 한라산은 베개하고 범섬에 고망 두 개 낫지? 알아져? 그 구멍엔 밭 담그고 헛젠 해여, 이 할망 끝는 거랑 다르다이.

<조사자> :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마씀?

호근리에서는 경 곶아. 나 소중기 하나 멘들어주면 일본과 한국을 다리 놔주켄. 소중기라고 해녀들 입는 거 잇지이? 근디 천 엇어부난 소중기 못 멘들앗주. 할망이 얼마나 컷인디 그거 허리에 하는 거 하나 못 만들언.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리도 놔주켄 헛인디이.

옛날에 고근산 굼부리에서 방아깨 던지른 문섬으로 나온다고 해. 그건 범섬 호고 고근산

하고 연결되었다는 거.

〈2019년 10월17일 서귀포시 강정동 정순희, 고정열, 여, 강정마을 경로당, 각각 1935년,1937년생〉

< Abstract >

Consideration on Transmission Aspect and Use State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Kang Chung-Min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also known as Seolmundae Halmang, is widely transmitted and passed down between residents of Jeju Island. Even now,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is spread wide throughout Jeju Island and is still being recorded.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has a lot of content related to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Jeju Island. Story elements of this creation myth which describes the creation of Halla Mountain and Jeju oreum (rising small defunct volcanos on Jeju Island) show that Seolmundae Halmang was a goddess of creation with a high status among the people of Jeju.

However, while the status of the deity portrayed in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is high within the group of people that enjoyed the story, it does not appear in the core bonpuri despite the story being widely transmitted all over the island. In addition, while the Seolmundae Halmang is fragmented, it shows the aspects of a mythical legend and folk tale well. One could say that this is a characteristic that expresses the consciousness of the Jeju people remarkably well. Therefor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is point.

Firstly, the author compiled recordings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recorded before 1960, published books, and the 2018 version of the story. From this data, the author selected and derived representative tales and major motifs.

Focusing on these motifs,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was the starting point that showed patterns of story transmission about

Seolmundae Halmang, who was revered as a goddess among Jeju residents.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is characterized by typological complexity that could not uniformly categorize it as either a myth, a legend, or a folktale depending on the data. With this in mind, the author first derived the mythical elements of the *Seolmundae Halmang* story. The motif of separa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was understood and identified as a mark of a creation myth. In each version of the story, the possibility of mythological ritual is noted and characteristics that prove the goddess’s productive powers are examined. In addition, the mythical elements of these points disappear over time and fragmented elements are contemplated.

Looking at each version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and examining the aspects related to the geographical features all over Jeju, the author found legendary aspects to the story that extend to all areas of the island. It is speculated that this may be the reason the people who passed the idea down in the Jeju region recognized familiar landmarks near their regions of residence as evidence for Seolmundae Halmang. This perception infers that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must have been a familiar presence in the lives of Jeju residents, and that thi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legend. Motifs of the formation of topography and the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used to be the realm of the gods, was described as the result of excretion and urination by giants. As time passed, the story became considered as a refractive painting passed down as a series of folktales centered on popular amusement.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went from a point where it had more legendary characteristics in that it provided concrete evidence (unlike a folk tale which does not give a detailed time or place) to a point where it had transformed into having more elements of a folk tale told for entertainment. In particular, the author paid attention to the process where this story refracted into a folk tale due to exclusive focus on the element where Seolmundae Halmang tried to cover her genitals with underwear, which were perceived as traces of ritual offering.

The author also examined the modern phenomenon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which is deeply rooted in the consciousness of Jeju residents, being called upon and used in the present day. The

author also photographed an ancestral memorial tablet of “ Seolmundae Halmang, Creation Goddess of Jeju” and examined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the author examined the current phenomenon of using the various unique elements of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as cultural contents. In particular, the author pointed ou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approach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details of the “Seolmundae Halmang” festival held every year at Jeju Stone Park with other programs held in various periods. In particular, the author predicts that the reasons for and value of summoning “The Tale of Seoulmundae Halmang ” in the modern era could be re-examined. The author does this in reference to the construction of an “Seolmundae Halmang Shrine” in Jeju Stone Park. However, the author also clearly states that insufficient active participation by Jeju residents in this process and limitations on public relations are tasks that must be dealt with in the future.

The Tale of Seolmundae Halmang is a unique story that is told through a wide variety of elements. The author notes that calling upon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could be a way for those of us living in modernity and facing problems such as a sick earth, dehumanization, and materialism.